

건축사 건축

2001 **05** vol. 385

칼럼 _____ 게으름에 대한 찬양

건축기행 _____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3)

해외건축 _____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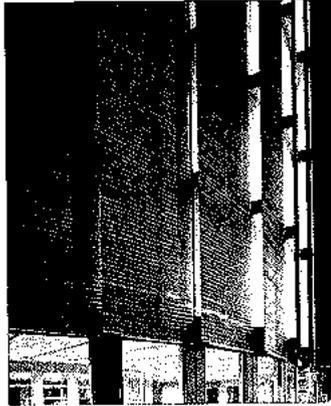
법령 _____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U
R
E
J
O
U
R
N
A
L



차례 2001 5 385호



인트루드(김인철 작)



칼럼	게으름에 대한 찬양	손기찬	18
회원작품	마우나오션리조트 골프클럽하우스	조용식 · 남용수	22
	창파정	송광섭	28
	인트루드	김인철	34
현상설계	국회도서관(전자도서관 겸 보존서고등)		40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48
	강릉대학교 학술지원정보센터		54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58
해외잡지동향			62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3)	김석환	68
기고	건축행정 과연 옳게 가고 있는가	전영철	76
연구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최찬환	78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9)	한동수	83
건축만평		유원재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2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7

발행인: 우남용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편집·취재: 홍보·편집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미당21 (02)702-1871~2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Column

A Praise for Laziness Sohn Kee-Chan 18

Works

Mauna Ocean Resorts Golf Club House Cho Yong-Sik & Nam Yong-Soo 22

Chang-pa-Jeong Song Kwang-Sub 28

Intrude Kim In-Cheurl 34

Competi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Digital Library & Preservation Stack) 40

Chungcheongnam-do Lifetime Education Center 48

Library & Information Supporting Center of Kangneung National University 54

Domestic Science Center of the Ulsan University 58

Overseas Journal 62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68

Feature

Examining Today's Architecture Administration Jeon Young-Cheol 76

Study

District Plan on the Architectural Design Choi Chan-Hwan 78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Han Dong-Soo 83

Cartoon Yoo Won-Jai 90

Architects' Plaza

KIRA News 91

Archi-Net 92

Laws & Ordinances 97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96-7476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9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9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338-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8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3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1-6607 · 은평구건축사회/398-1486 · 송파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6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8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6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6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3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0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3-268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6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830-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3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세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385-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5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6-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8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성지역건축사회/(053)812-5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군영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양주지역건축사회/(054)8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34)35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부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기성지역건축사회/(055)943-608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6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게으름에 대한 찬양

A Praise for Laziness

손기찬 / 동이건축, 인하대 겸임교수
by Sohn Kee-Chan

흥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든 목공의 허물이다

「外篇 馬蹄」 장자

건축세계에는 별 소득이 없이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개발이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 부지런하게도 시간을 허비해 왔다.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부지런케 함으로써 정신없이 살아와, 우리 건축가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한 채 였다. 이제 또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건축침체상황에 접하면서, (어쩌면 정상적인 상황일 지도 모르는) 건축학과와 인기하락과 함께 무기력한 사회 전문직 분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몸부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와 밀접한 바깥 세계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는 우리가 처한 현재성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의미나 중요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깊은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할 일이 없음은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할 일이 없으면서도 무기력한 공황상태는 비참하다. 그러나 의사들처럼 총괄기하여 극한상황까지 몰고 갈 자신감도 없고, (그렇지도 절대로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된다)이 비참한 공황상태를 오늘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적 사대주의와 문화적 상업주의의 기묘한 결합속에 우리가 진정 선택해 보고자 하는 게으름을 제대로 파악 본적도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 속속들이 비추어 들여다 본적도 없다. 이 무기력은 지나간 부지런함조차 치열하게 반성하지 않고 설부른 희망을 좇는 우리건축계에서 빠져린 아픔으로 다가온다. 기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주거환경은 외면된 채, 그저 짝 채운, 잘 뻗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들과 전국토의 고층 아파트화에 지대한 공은 누구의 몫일까? 그 많은 까페와 리브호텔과 예식장이 유럽의 고성, 아라비아의 모스크로 둔갑해도 그것 또한 건축사들의 업무 영역이었을 것이다. 내가 하지 않았으니 나하고 관계없는 천박한 업자가 했을까? 아니면 인테리어업자, 시공업자 그렇다면 많은 허가건축물들은 물샴빔없는 건축사라는 제도장치를 빠져 나갔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 알량한 건축시도장만 찍었을까? 일년에 수십건씩 처리하고도 그 대가로 우리는 바빠 살아왔다. 아니 그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다. 천박한 개발업자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으름은! 건축허가업무가 건축사의 업무전부인 대부분의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건축가의 사회적 직능에서 더욱 경원시되고 있다.

차라리 건축하기라는, 설계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건축서사리든가, 빌더리든가) 게으름으로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찾는 길은!

그 잘난 작품들은 잡지를 쉽게 베끼고, 그도 모자라 가서 보고 베낀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들의 문화나 환경에 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외피만 그것도 일부만 적당히 베낀다. 무슨 대형 프로젝트하면 으레히 자료수집차 바빠 해외유람을 다녀오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외국건축가와 협력참여 해야한다는 전제이니, 그래서 바쁘게 외국건축가들의 치다꺼리에 여념이 없다. 건축설계를 통해 우리의 환경에 깊숙이 개입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 남으려는 수세적인 자세로, 좀 여유가 생기면 약육강식의 자세로 여전히 밀고 나간다. 그렇게하여 부지런하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설계자로 이름을 남긴다.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강한 경영자도

대형설계사무소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설계자에게 이름을 넘기는 게으름도 필요하다.

건축사 면허증 한장에 달랑 사무실을 차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지런함에서 벗어나 평생을 안주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건축가들의 게으름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안주하지 않고 나서는 아뜨리에 사무실들은 작품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재료, 기술, 사공면에서 처절한 몸싸움에 의한 우리 건축을 만들 수 있는 게으름이여!

설계란 중개업무와 달리, 비록 설계계약이 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야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전에 이미 부지런하게 만들어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무수한 계획안들이여! 의사와 변호사들처럼 그 대가를 고스란히 지불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속절없이 바쁘지 않고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을까? 설령 성사된다 한들 설계비는 우리를 게으르게 내버려두질 않는다. 건축주는 건축가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얼마에 해 줄 것인가? 라고 묻는데 건축주가 패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결과야 어찌되었건! 우리의 부질없이 부지런함은 결국 그물에 걸린 느낌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인가?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종류의 일은 즐겁지 못하고 보수도 박하다. 두번째 일은 즐겁고 보수도 높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이윤을 위해 일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오히려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는데 있다. 신경쇠약과 피로와 소화불량증 대신에 말이다. 필요한 일만 함으로써 기력을 소모하는 일없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일만 한다면, 당연히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설계 작업은 법적으로 예외없이 건축사사무소가 아니면 불가능하니, 어느 건축사사무소에서든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으른 꿈을 꾸다면 기준보수요율 없이도 대가는 올라갈 것이다.(일정한 능력이상만 갖춘 모임이라면, 어찌면 이익단체의 가장 큰 목적 일 것이다) 부지런한 수주전쟁에 내몰려야 하는 젊은 건축학도들은 무모한 계획안에, 현상설계에 지금도 밤을 지새우고 있다. 현대의 생산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파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월드컵경기장 설계기간보다도 더 긴 주택설계기간의 게으름이여!

일전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건축사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애초 문제는 조사검사업무는 허가권자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나비미양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 부지런함이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검사원의 신청자격기준이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게으른 건축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니 그저 의아스럽고 경탄스러울 따름이다. 운 나쁘게 행정처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땅속을 파 봐야 하고 정확조 속으로 몸을 던져서 뒤적여 봐야 할 것이다. 주어진 설계나 열심히 하고, 감리에 성실한 게으름에 만족한다면 이러한 제도도(감리와 검사도 구분못하는), 이 천금같은 무거운 짐을 떠메지 않아도 될 터인데!

설계가 문화 예술입네 하지만 금액을 정해놓고 뱅뱅이 돌리기를 해도,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해 일원에 감리비

가 낙찰되어도, 영터리 같은 방식이라고 우리는 비웃지만 발주자들은 별로 겁내는 것 같지 않다. 누군가는 벌떼같이 달려들 것은 뻔한 노릇이니까! 현재의 법대로라면 건축사가 아니면 절대로 설계할 수 없는 제도일진데도! 의사나 약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천년의 문 설계경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보겠다는 발상이건만(C.G작업도 마다하면서) 그 바쁜 기라성같은 사무소들이 어마어마한 계획안을, 작업패널들을 내놓는다. 작품집제작사에서는, 게을리 수작업한 패널은(C.G작업하지 않아) 제작하기 힘들다고 오히려 역정이다. 거대한 당선작은 광활한 들판이 아닌, 우리의 도시환경에 순응하는 게으름이여!

모범답안같은 지침서에 의해 응모된 구민회관들은 지역성은 무시된 채, 디자인감각을 뽐내는 하나같이 출중한 작품들이다. 어느 것이 당선되어도(지역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구에 지어져도 손색이 없다. 심사위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골라잡기 힘든 작품을 옹케도 집어낸다.

건축문화대상 문제점을 토론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토론자의 면면은 바쁘게 참여한 시상자, 심사위원, 시공 회사 등 바쁘고 바쁜 시간을 쪼개 각론은 없고 총론적인 목소리만 높인다. 건축문화대상에 참여하지 말자고 연일 다급하게 팩스를 보내 온다. 방송국 현상설계에서 발주처가 문제가 많으니 참여하지 말자고 부지런하게도 등기속달로 부쳐온다. 건축문화대상에 참가자가 적어, 현상설계경기 참가자가 없어, 아니면 적어서 무산된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이 모두 불참해서 심사를 치르지 못했다는 게으른 소문은 아직 듣지 못했다

우리시대의 옴모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시대에 우리는 컴퓨터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미련스럽게 일하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건축가도 개혁가도 아니다. 제대로 이기적이고 자기관리능력을 가져야한다. 부지런함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하고, 자신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난 자신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신이 없다면, 무모한 부지런함에서 비껴서야 할 것이다. 아! 게으름이여 2001년건축사수첩 제일 첫페이지에 나오는 건축사현장을 한번쯤이라도 되뇌이는 율조리는 위대한 게으름이여! 이와 같은 게으름은 경제불황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생활방편이 아니다. 그것은 두고 두고 배우며 익혀가야 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우리의 생활신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싹을 키워서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선택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미래는 우리를 버리고 말 것이다. ㉞

진정한 자유란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직 진정존재, 그 실체에 의해서만 제한받는 것이다.

「자유로 부터의 도피」에릭 프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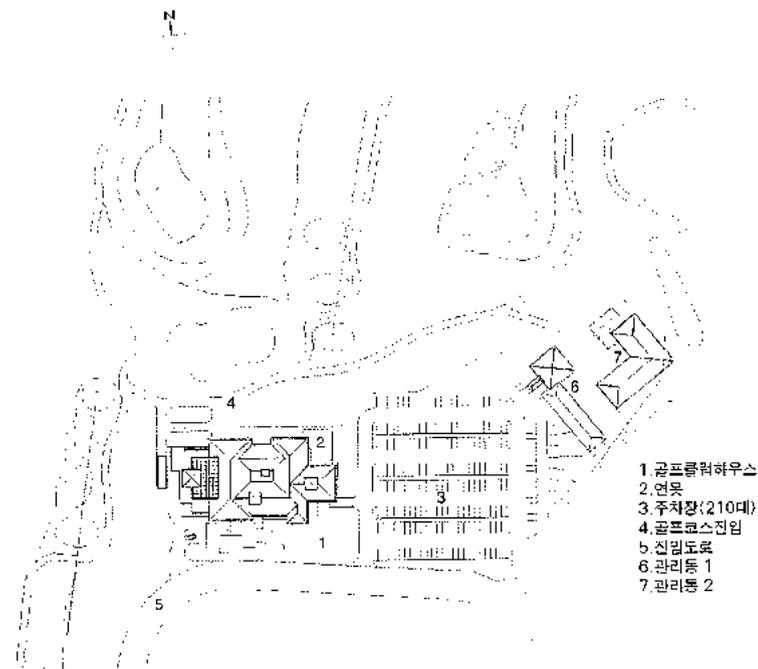
마우나 오션 리조트 골프클럽하우스

Mauna Ocean Resorts Golf Club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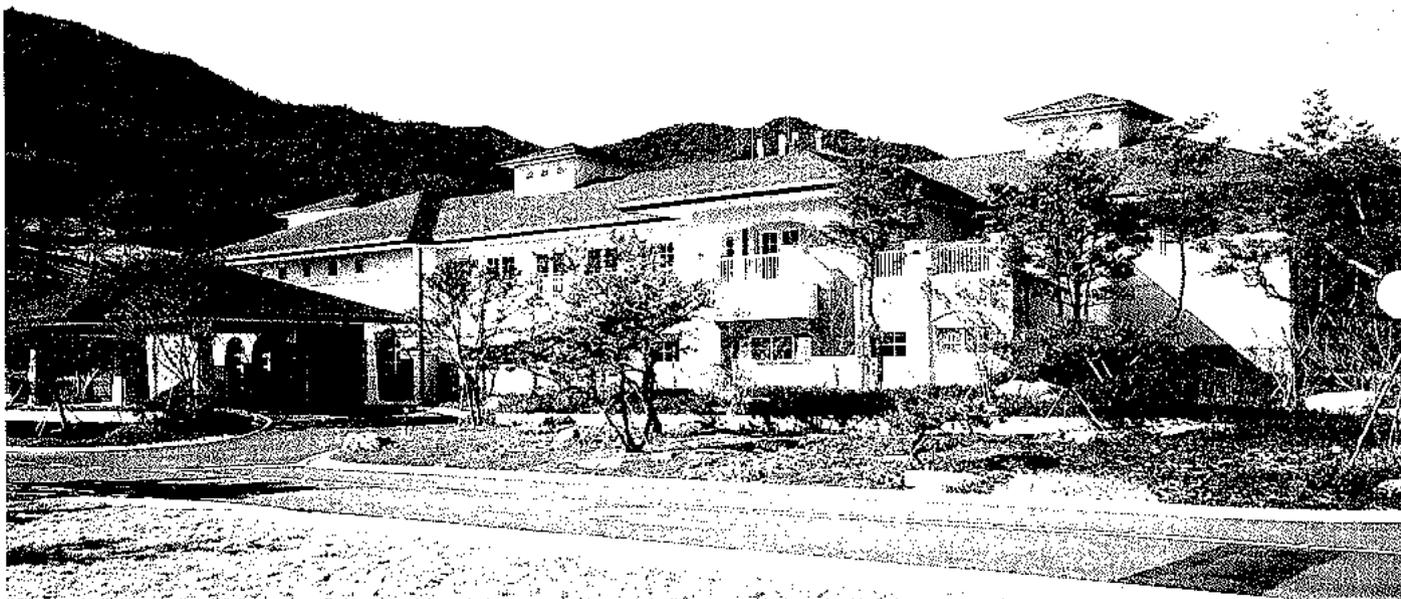
조용식 · 남용수 / (주)두우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Yong-Sik & Nam Yong-Soo

건축개요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 140-1번지 외 18필지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도 로	전면 100m 도로
대지면적	895,628.00㎡
건축면적	3,388.41㎡
연 면 적	5,555.16㎡
건 폐 율	0.38%
용 적 율	0.44%
구 조	철근콘크리트
주요용도	운동시설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 사암 마감
주차대수	210대(법정주차대수 180대 이상)
조경면적	62,693.96㎡(대지면적의 7% 적용)



배치도





울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 위, 구름에 떠 있는듯 높게 자리잡고 있는 Mauna Ocean Resorts Country Club은 그 일대의 대단위 리조트 시설의 첫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더 이상 길이 없을 듯 할 때, 가슴을 질누르고 있던 일상적인 도시생활의 피곤함은 어디론가 간데없이 사라지고, 무언가가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다. 아니, 그것은 신선한 설레임이다.

달리던 산길의 정상에 오르면 갑자기 나타나는 하안색의 지중해 스타일의 건물은 그 자체로 꿈같은 환상 속의 도시로 초대되어진 느낌을 준다.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Field와 Club House는 자연과 어우러져 울산 앞바다와 같은 더 넓은 가슴을 가진 Golfer들과 조우한다.

가족형 콘도미니엄이 들어설 예정부지를 한 칸에 두고 돌아서면 지중해 해변에 휴양차 온 듯한 느낌을 줄 정도의 대 저택이 한 시아에 들어온다. 1층의 주출입 현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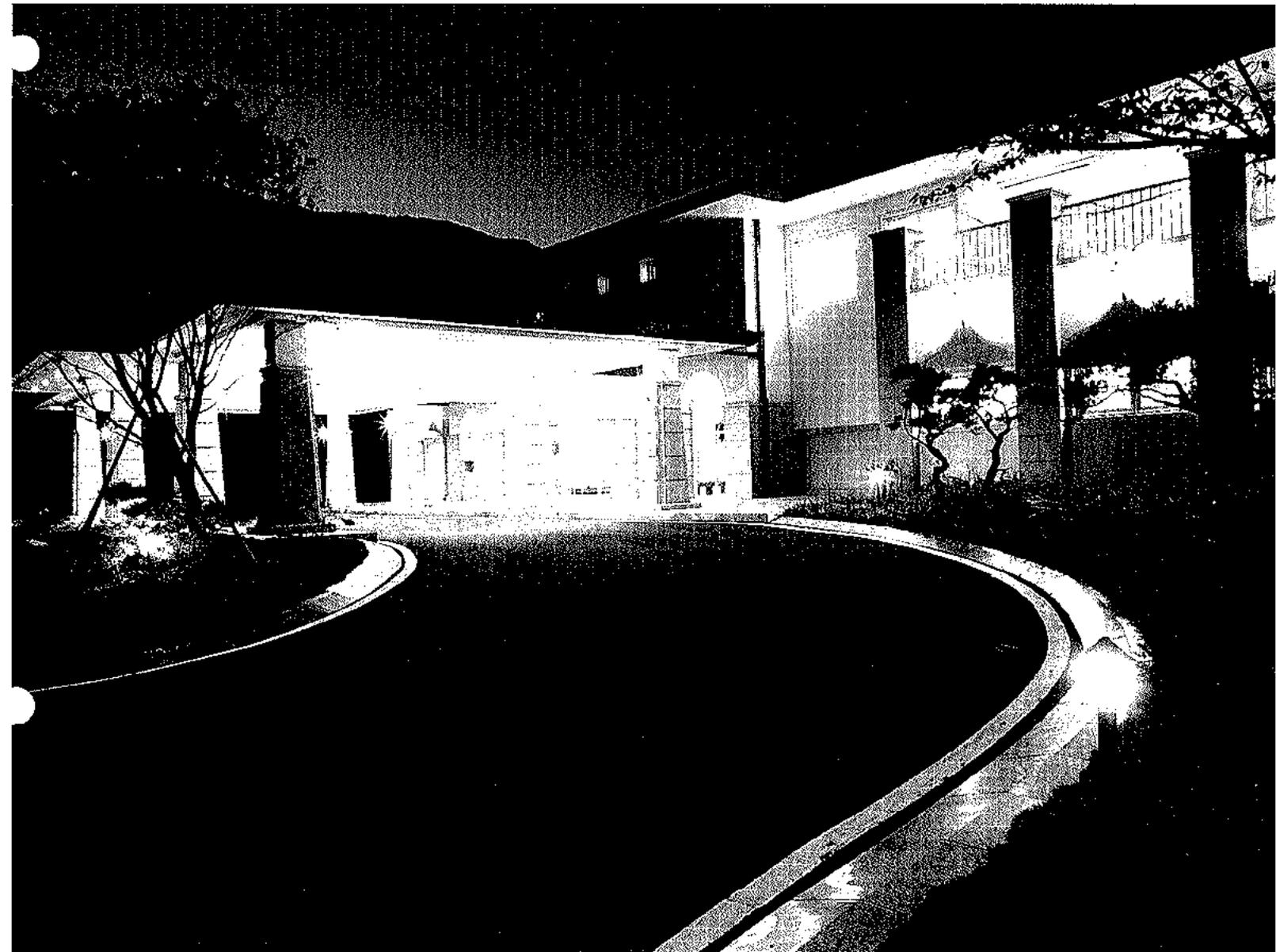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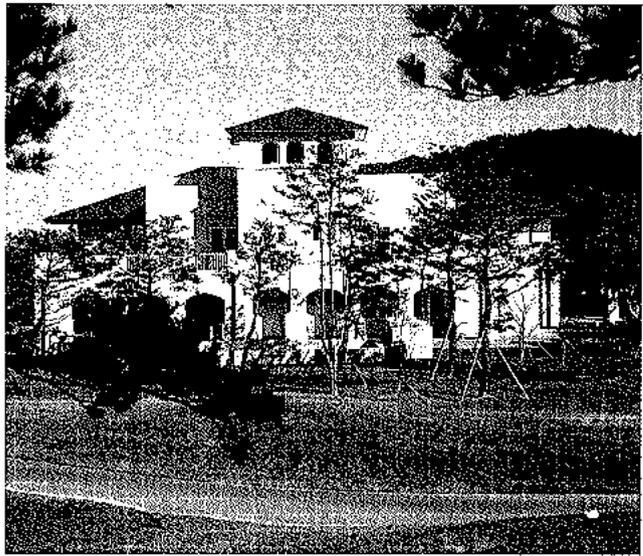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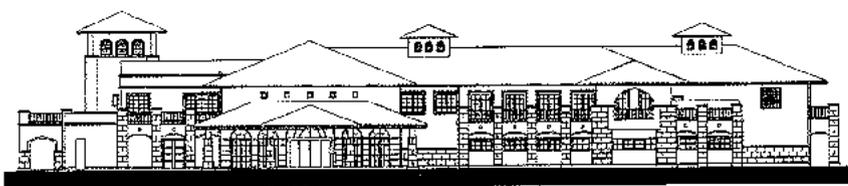
지나 로비에 들어서면 높은 아치로 구성된 중앙홀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사우나와 2층의 연회실로 연결되어진다. 우선 1층의 사우나에 들어서면 넓은 필드를 향해 펼쳐진 조망이 사우나 내부로 자연을 한없이 두팔벌려 가슴에 안겨진다. 단순한 사우나 기능뿐만 아니라, 삼림욕과 자연욕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로비와 마주보고 서 있는 Start Hall은 Field에 나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치를 통해 내다

보이는 Field는 Golfer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Green에 올라서고 싶은 충동마저 불러 일으킨다.

18홀의 코스중에 절반을 돌고 난 뒤 클럽하우스의 2층에 올라서면 각각의 다른 Concept으로 설계되어 모임의 성격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연회실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마주보는 곳엔 V.I.P Room이 배치되어 있어 편안하고 품위있는 공간이 연출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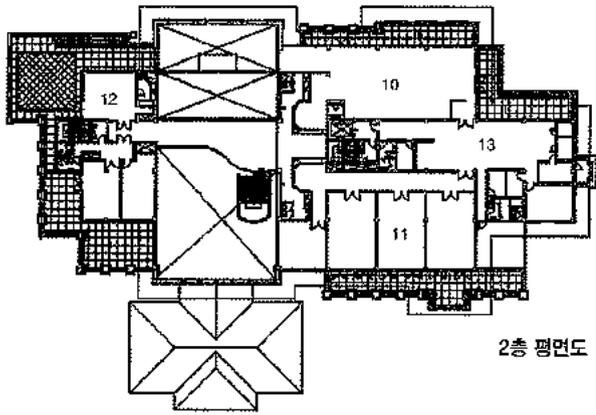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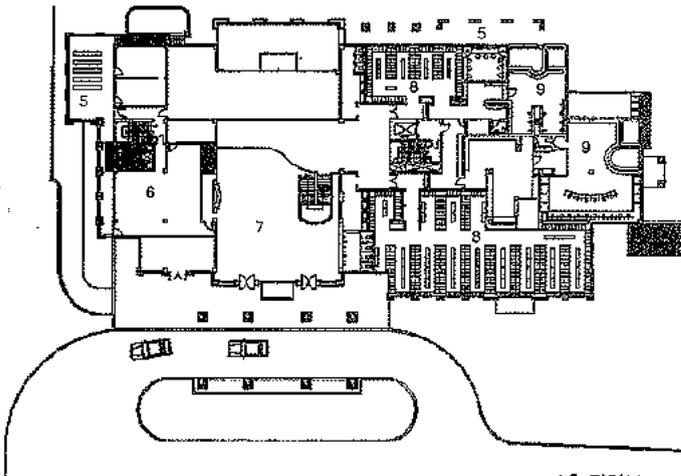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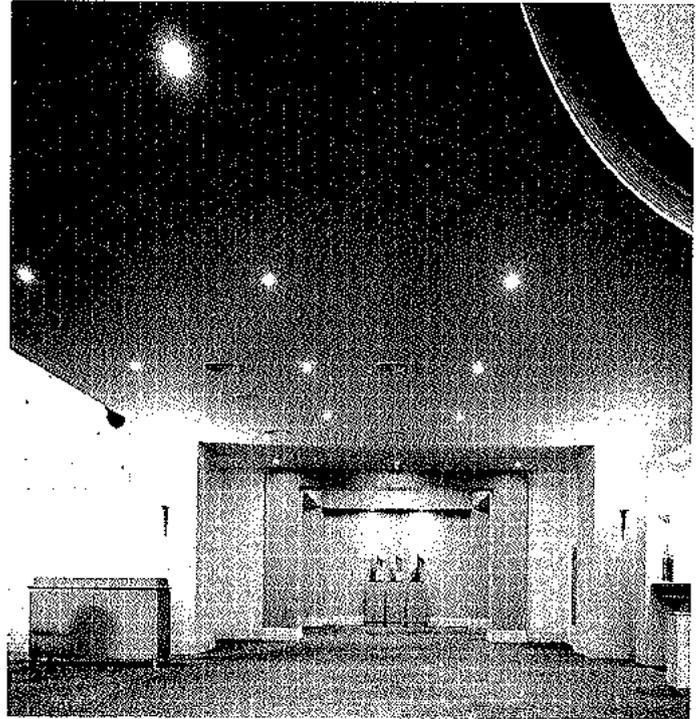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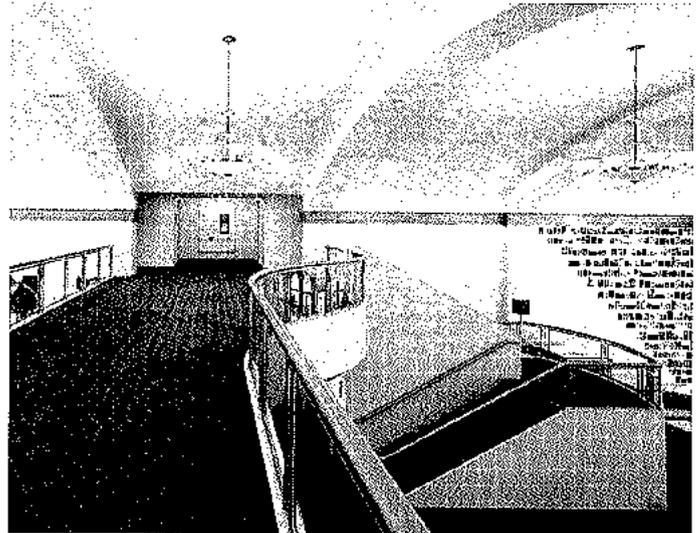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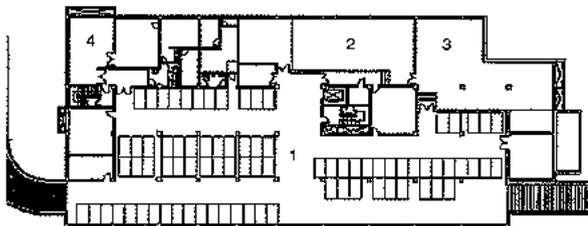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1. 키트고
- 2. 집기실
- 3. 기계실
- 4. 캐디대기실
- 5. 테라스
- 6. 사무실
- 7. 로비
- 8. 락키
- 9. 사우나
- 10. 레스토랑
- 11. 영화실
- 12. 귀빈실
- 13. 주방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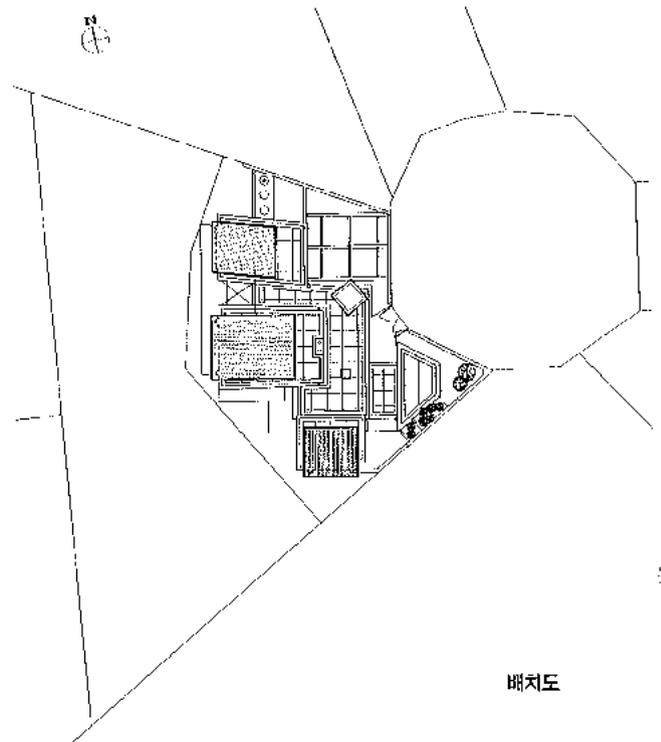
창파정(滄波亭)

Chang-pa-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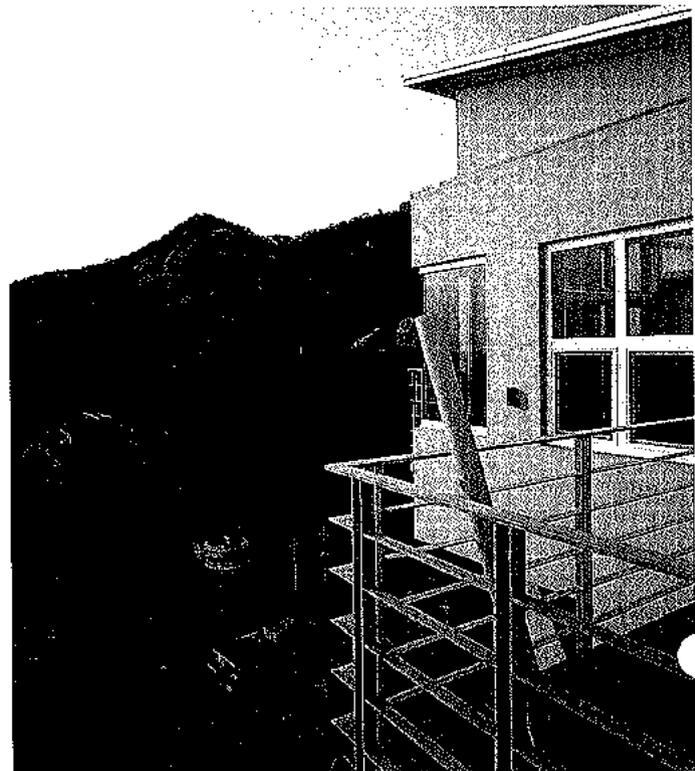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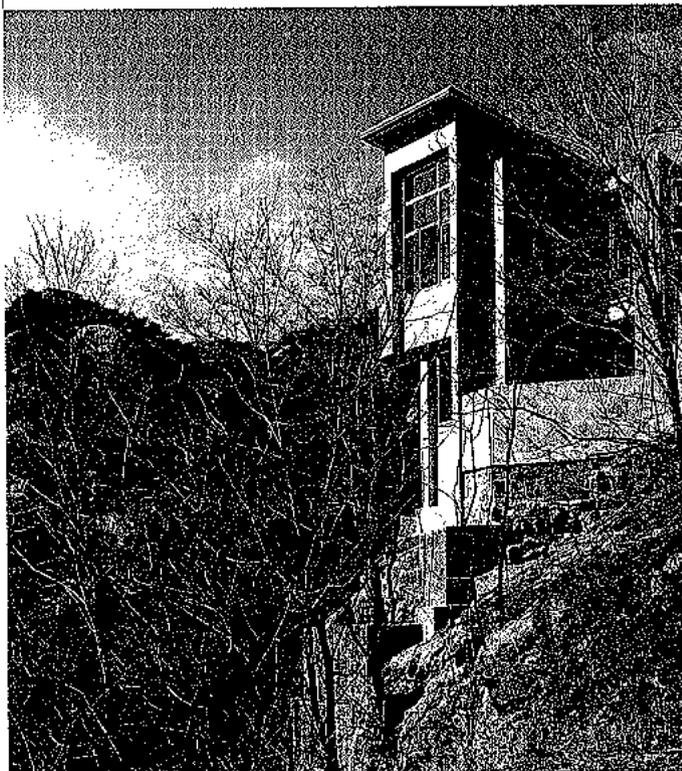
송광섭 / 환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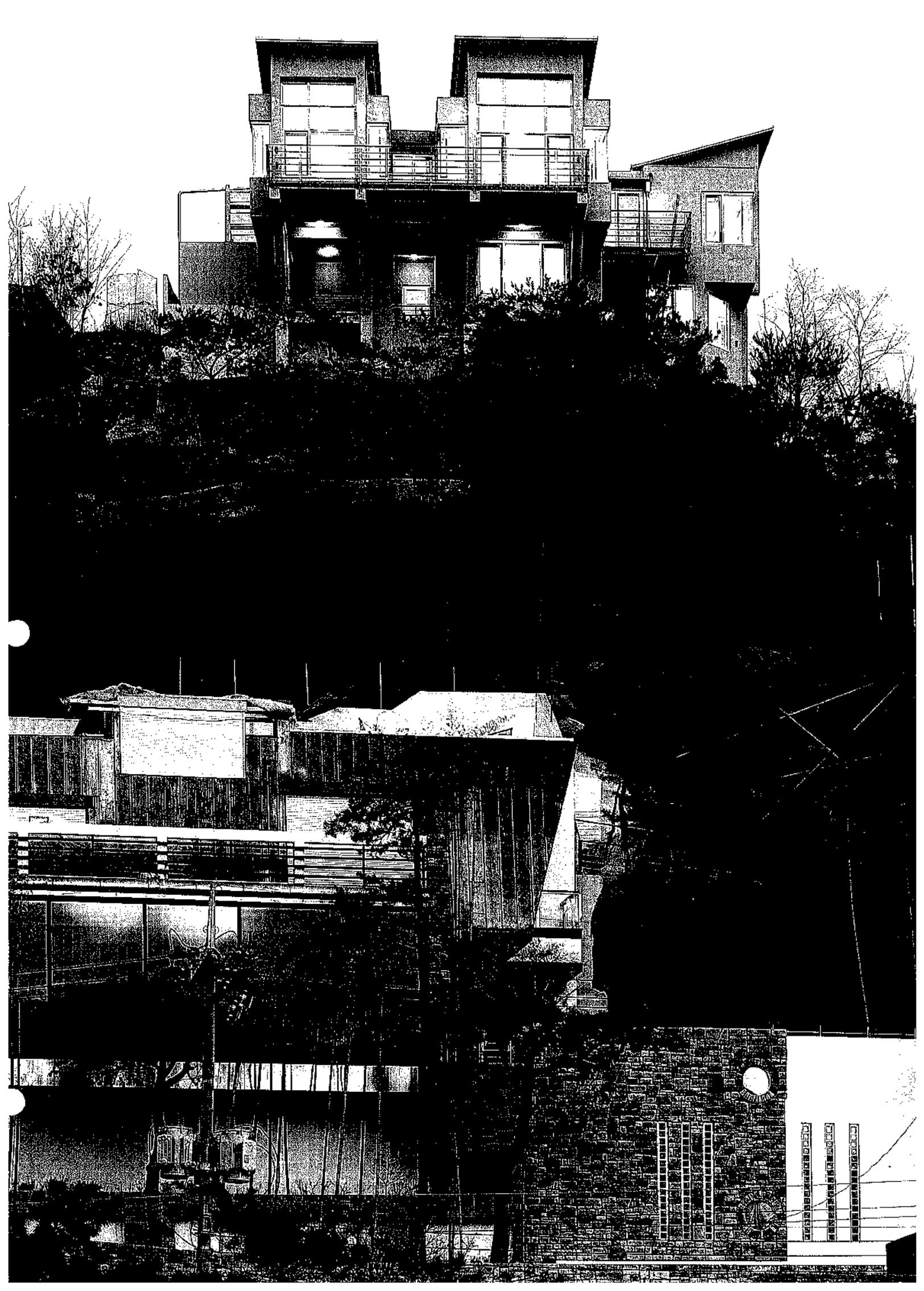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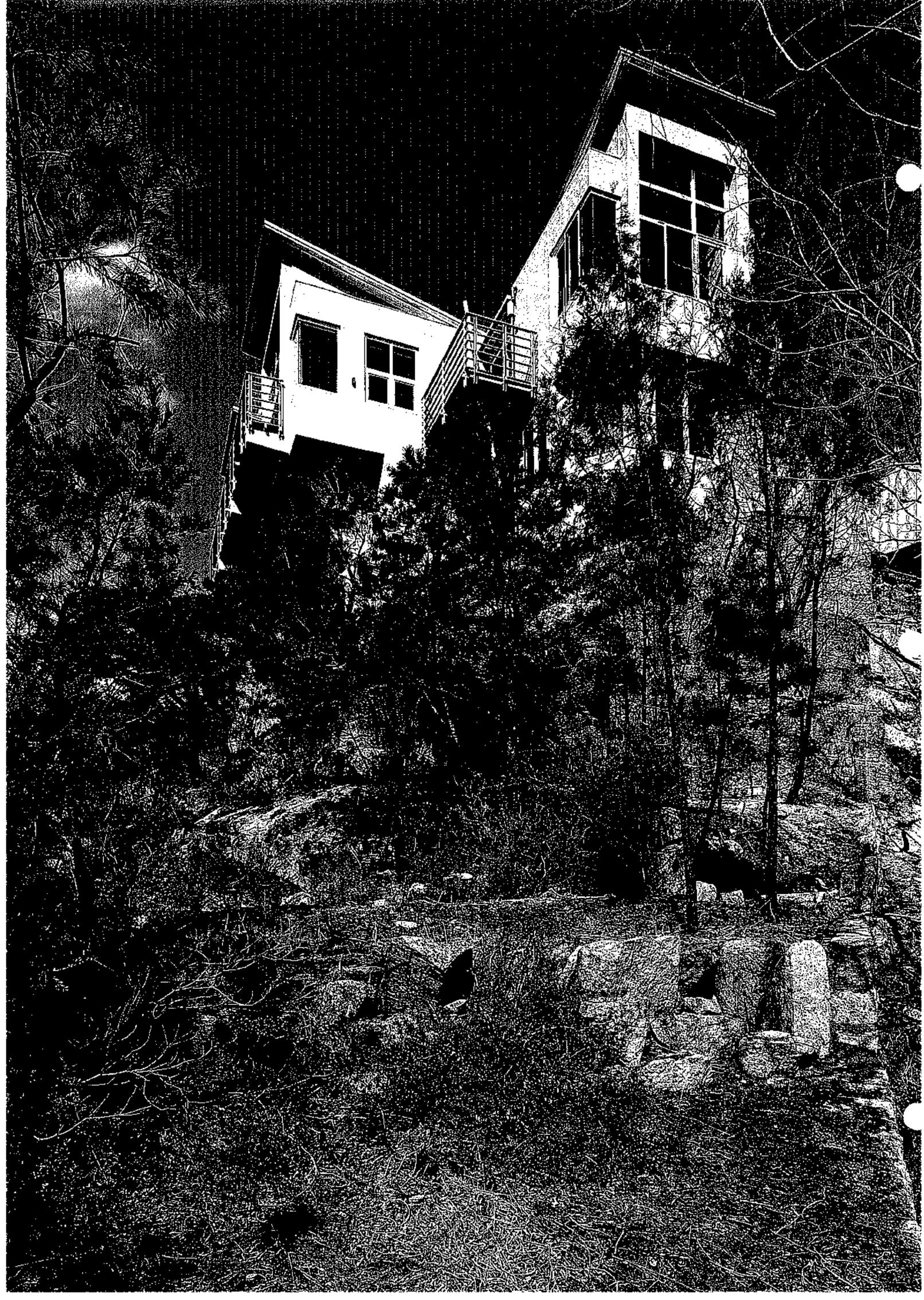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641.00㎡(193.90평)
건축면적	118.92㎡(35.97평)
	1층 - 92.52㎡(27.99평), 2층 - 115.12㎡(34.82평)
연 면 적	207.64㎡(62.81평)
건 폐 율	18.55%
용 적 륜	32.39%
규 모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재료 - 드라이비트, 지붕 - 아연도판점기
설계담당	이홍규, 이정용, 이주연
인테리어	환건축
조경설계	환건축
전기설계	문화전기
시 공 자	황수연
건 축 주	김광욱
사 진	박영채



배치도







풍경과 땅알기

- 시선 아래로 흐르는 냇길래의 능선의 빼어남.
- 흐르는 산세와 산허리에 걸친 저녁해
- 아래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과 솔바람소리, 그리고 절집의 때를 알리는 종소리
- 푸른 파도 같은 능선 너머와 나무숲, 점점이 박힌 집들
-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을 산수화처럼 차용할 수 있는 비워진 정(亭)의 장소
- 경관은 빼어나지만, 부정형의 금경사의 대지
- 전체 대지의 1/3정도 형질변경된 대지와 저층조건과 이격거리에 대한 상대적 협소함.

작업전제

- 경사진 대지의 구조적 결함과 보완
(기초공사의 지반양카와 지반강화 방법 연구)
- 협소하고 부정형인 경사진 대지에 경제적 공간 채우기
- 비바람과 급격한 온도차에 대응하는 경제적 공법 채택
- 집아래 펼쳐진 소나무숲의 자연적 정원과 연계
- 대지형상에 따른 부채형의 사선벽의 활용 및 각실의 경관차용을 위한 시각적 고려
- 도로 지면에서 보이는 형태의 간결함과 리듬, 1층 후면부의 도로에서의 차폐와 동선흐름에 따른 방향성 제시
- 이동 동선에 따른 경관 이동효과와 부분적 경관 차용에 의한 걷는 즐거움 갖기
- 벼랑에서 비상하는 새의 모습같은 활기찬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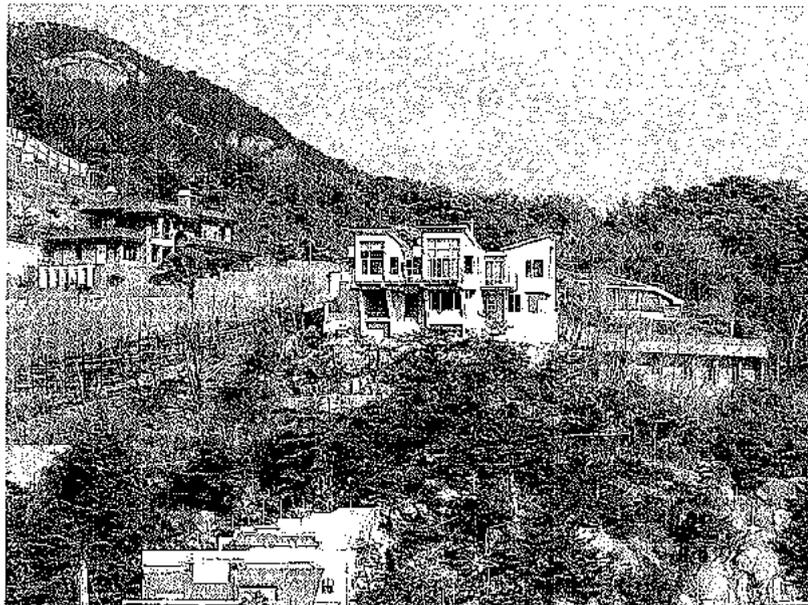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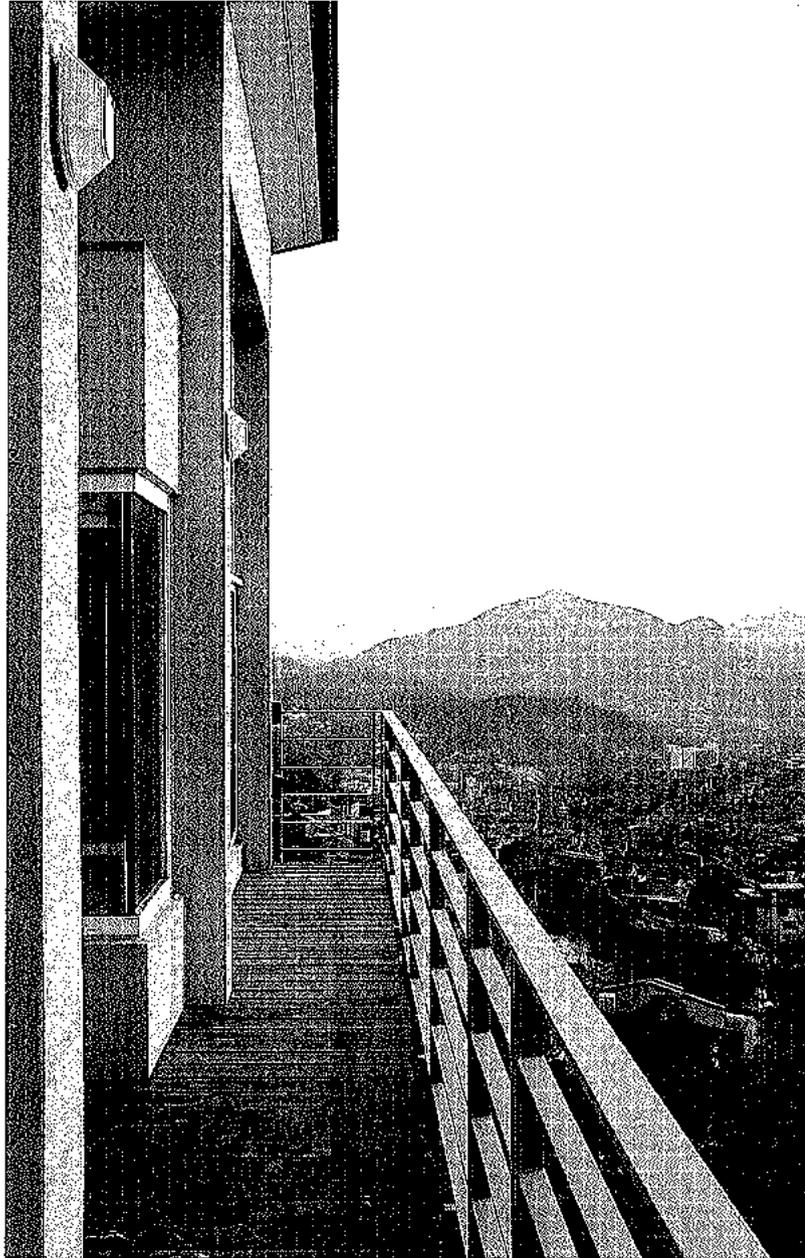
집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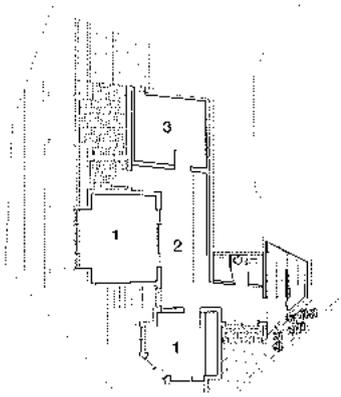
- 금경사지의 위험한 현장조건과 부분적 공정의 어려움
- 3개월간의 기초지정작업과 기초공사의 어려움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의 상이
- 11개월의 공정과 뼈대한 공사비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공간과 좋은 집 만들기
- 무서운 여름날씨와 비바람, 잦은 폭설은 현장공정의 차질과 경비과다 지출의 어려움을 만들고,
- 그나마 사고없이 공정을 끝낸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안도의 숨을 쉬게 한다.

완성되어 가면서 도입부분부터의 의도된 순환되는 길의 연속성, 방향전환에 따른 늘 새롭게 전개되는 경관의 즐거움이 일에 대한 어려움을 잊게 하였다.

그러한 이동경관의 변화는 시원스런 조망과 더불어 눈 내리는 풍경과 눈 덮힌 능선너머의 저녁해, 절집의 종소리는 도심지에서 벗어난 한적한 여유로움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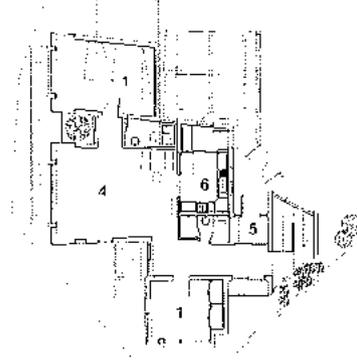
그런 자그마한 즐거움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미완의 완성과 완결의 기쁨이 스스로에게 위안됨을 자위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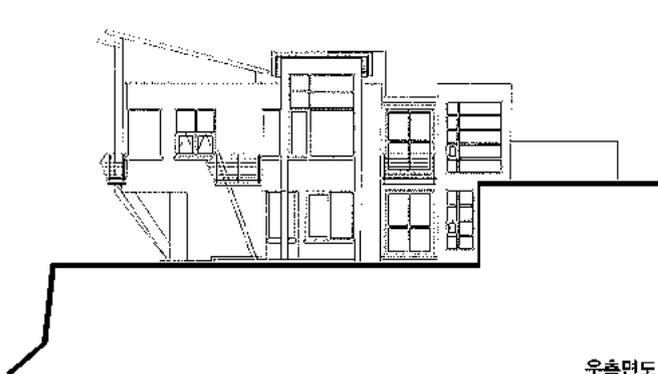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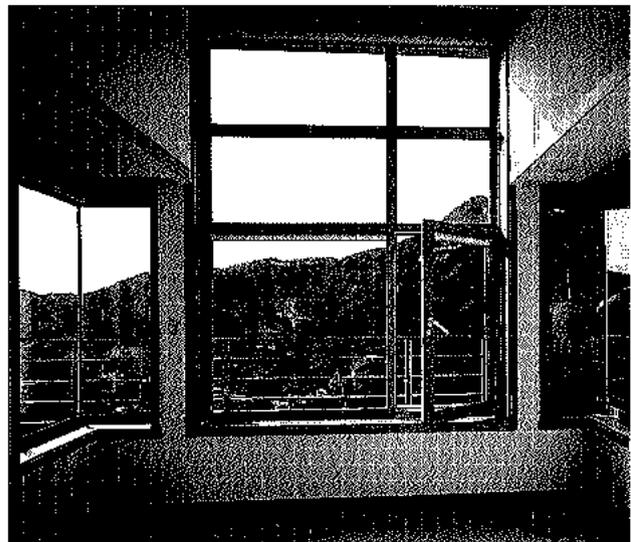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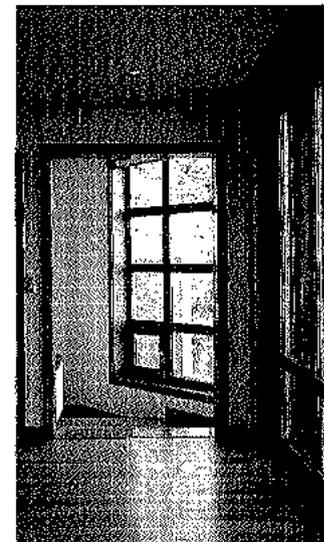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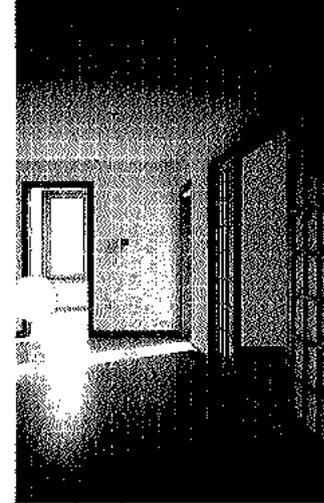


- 1. 방
- 2. 욕
- 3. 보일러실
- 4. 거실
- 5. 주방
- 6.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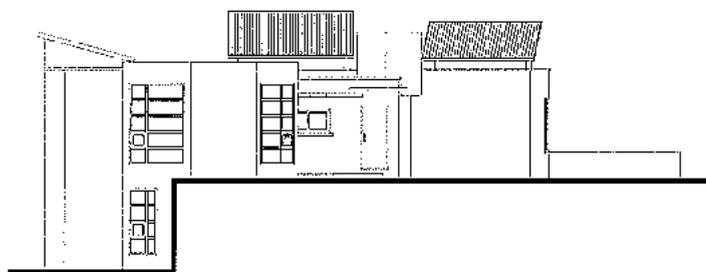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인트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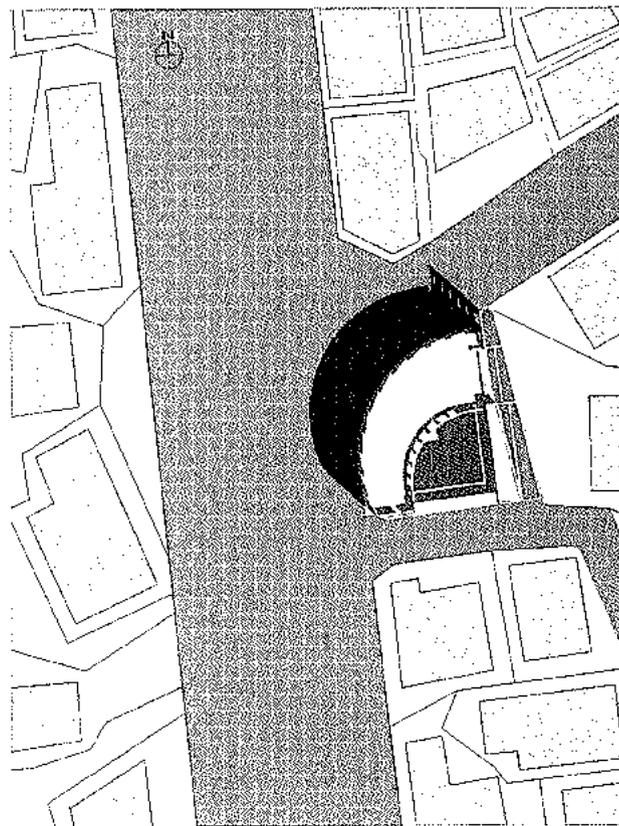
Intrude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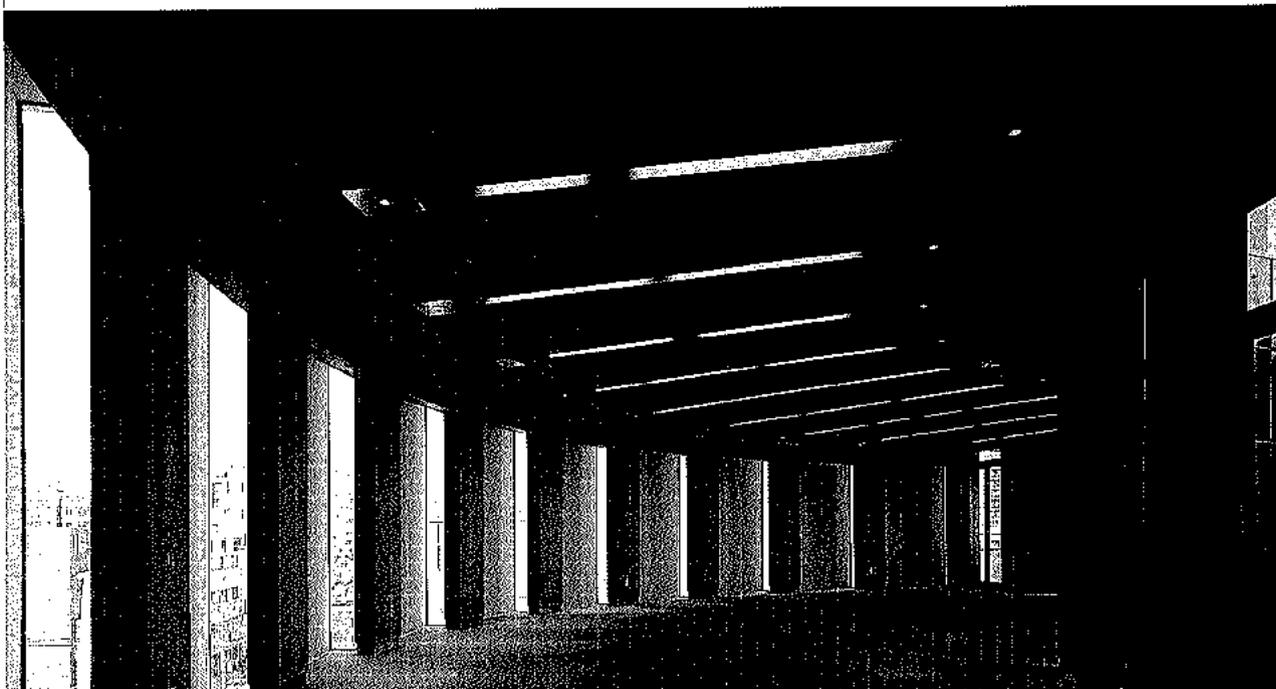
Designed by Kim In-Che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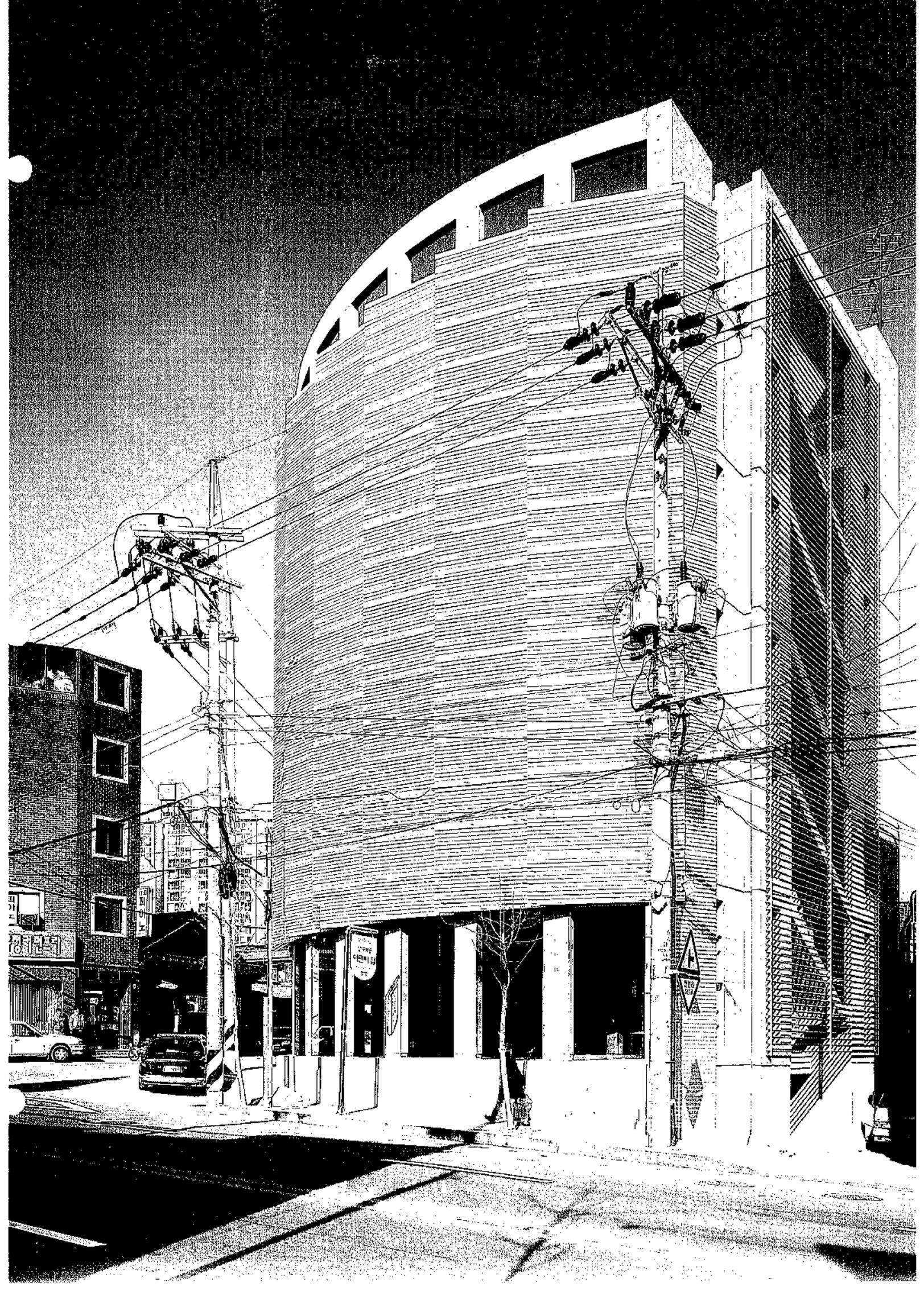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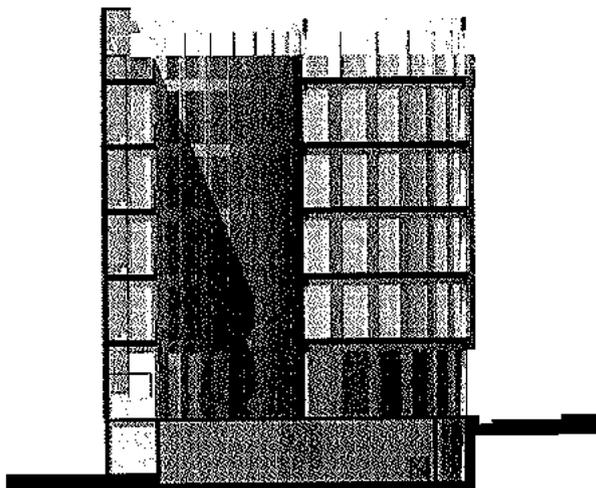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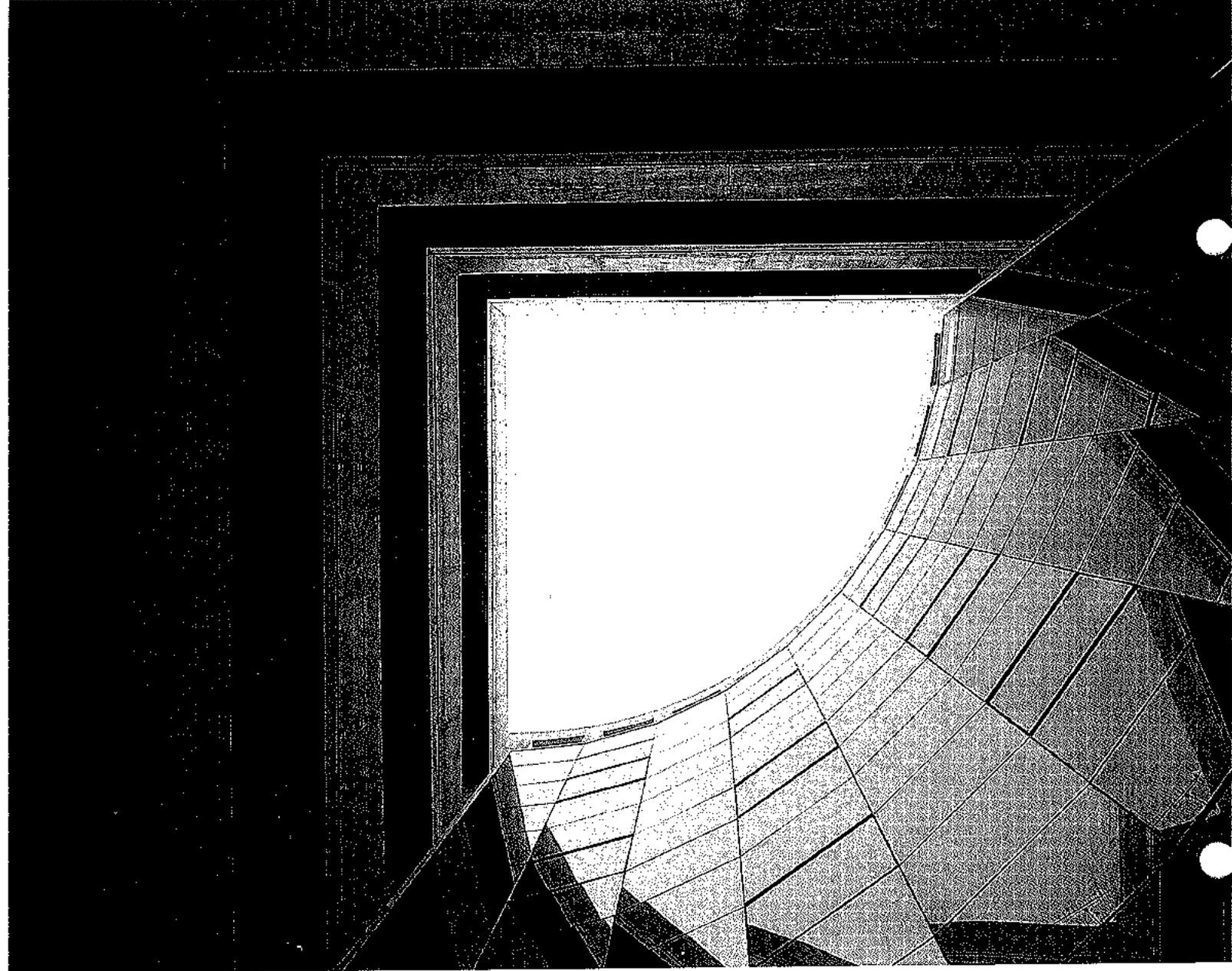
위 치	서울 중랑구 상봉동 25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67 m ²
건축면적	157.79 m ²
연 면 적	958.39 m ²
조경면적	18.86 m ²
건 폐 율	59.1%
용 적 륜	292.5%
주차대수	6대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콘크리트 제물마감, 석유리물갈기, 벽/ 노출콘크리트, 천장/ 노출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아연도 골강판, 스텐레스 파이프
설계담당	원 유 정
구 조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기 계	미래설계
전 기	주)힘인 전기설계
시 공	주)태봉건설
감 리	아르키움
사 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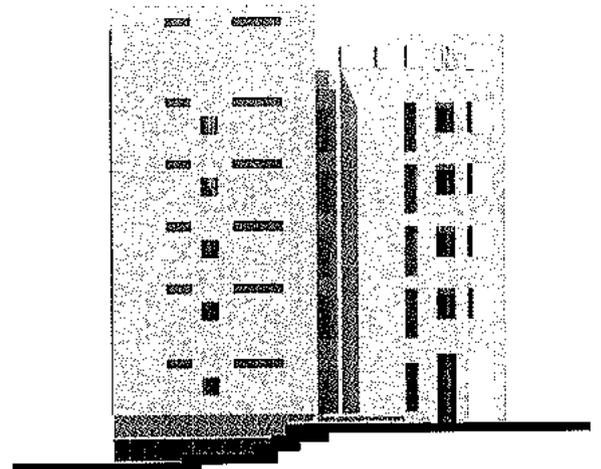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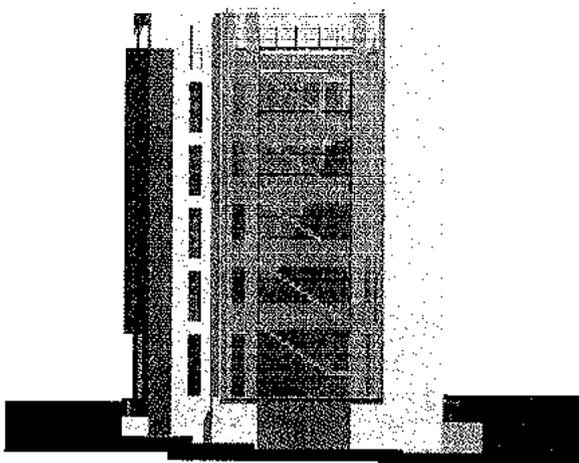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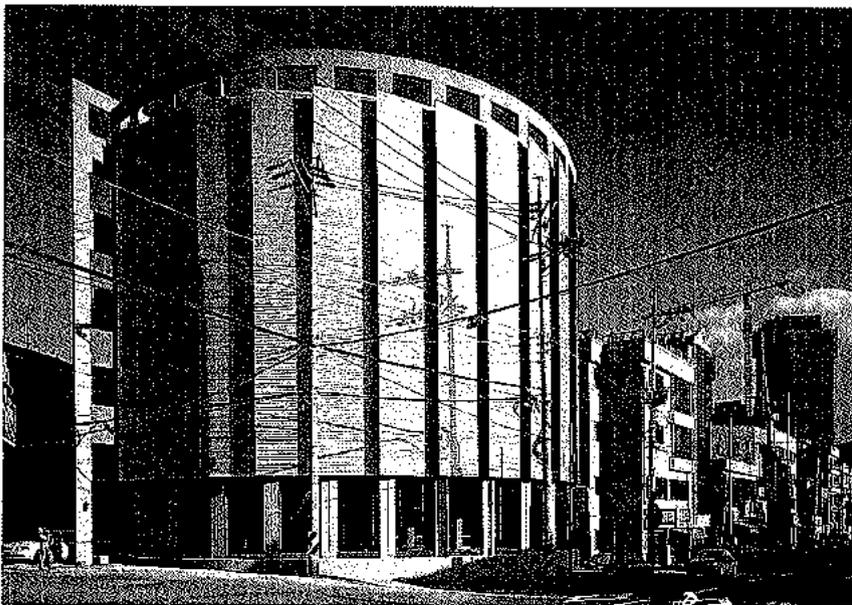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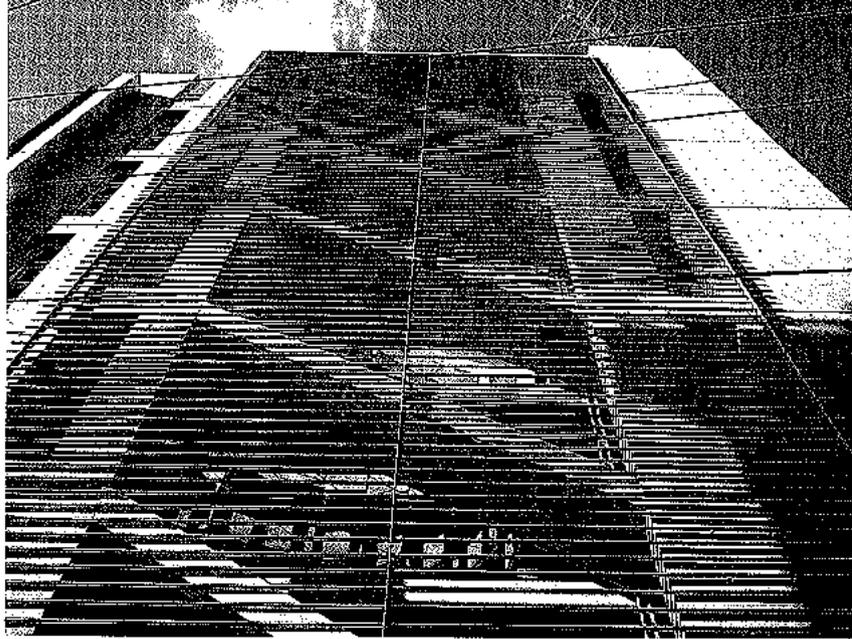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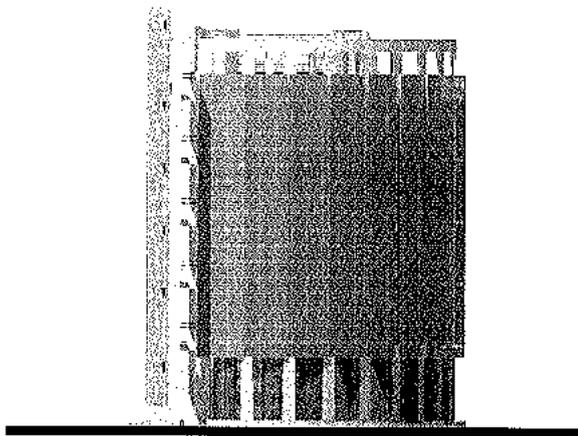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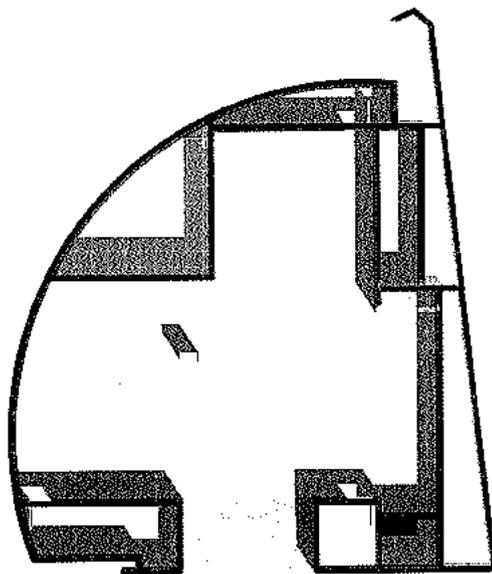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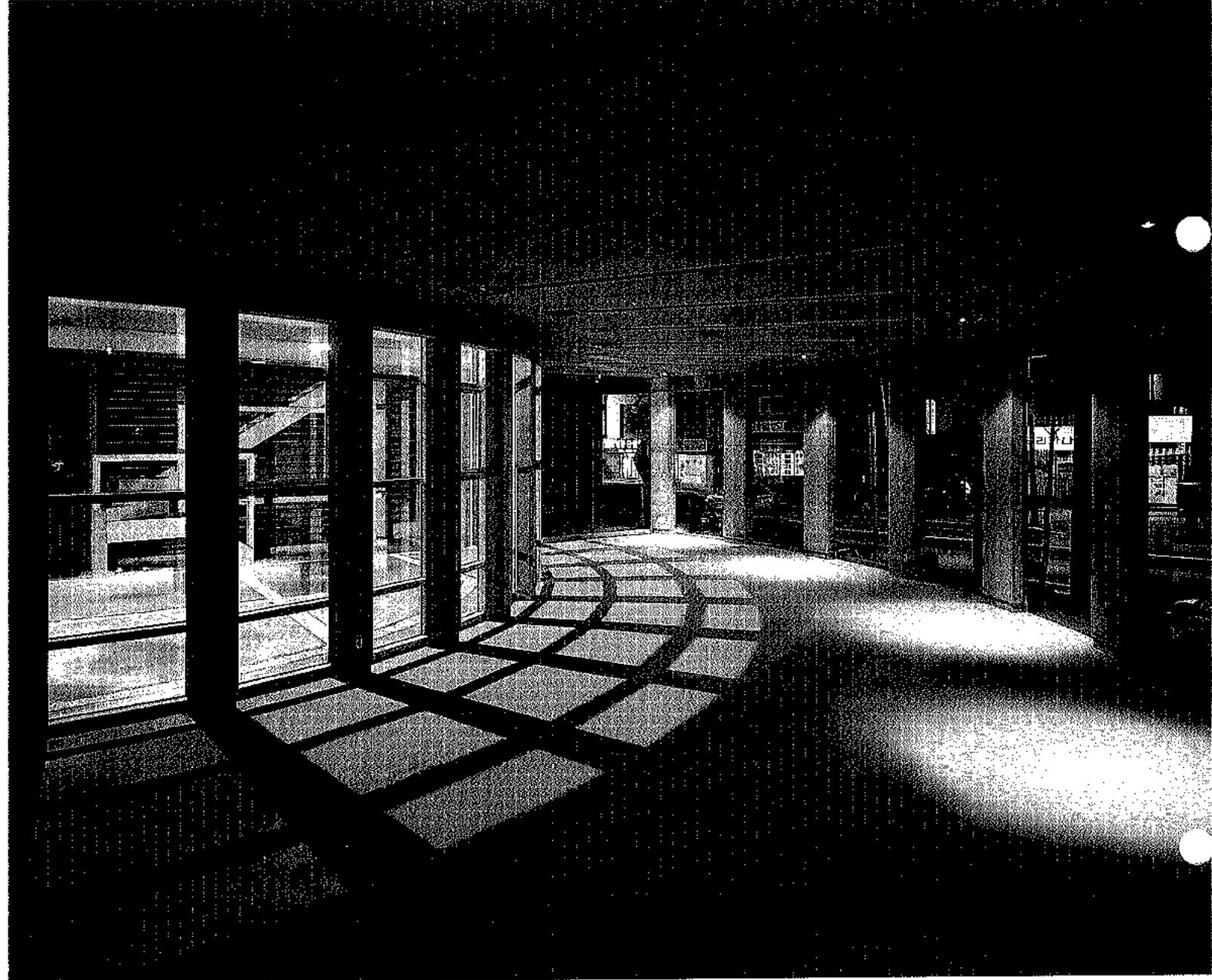
동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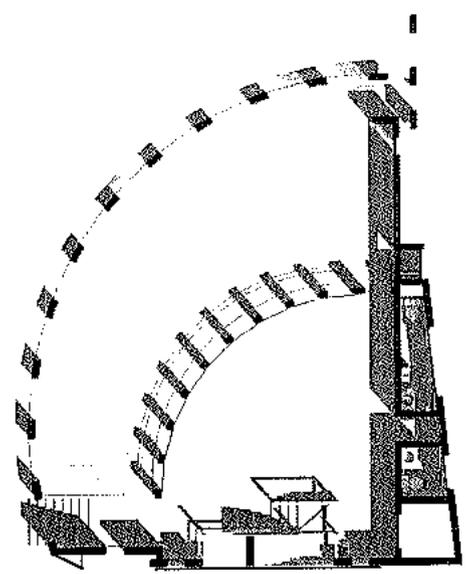
동측 입면도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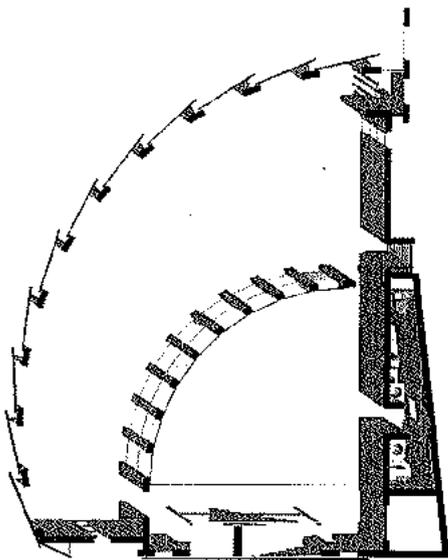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엑스트루드(extruded)의 후속작업이다. 도시와 건축이 풍경으로 연속되는 접점에서 도시를 향해 내밀었던 처음과 다르게 이번은 도시로부터 끌어드리는 자세를 만들었다. 번두리의 거리풍경은 일상의 집다함으로 가득 찬 채 정리된 모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파열하듯 흩어져있는 간판과 허공을 가르고있는 전선들 사이에서 완결된 자세를 갖출 수 없다.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 거리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하는 표정을 만들어야 하였다. 육면체의 거리에 원형의 몸체를 끼워 넣기 위해 형상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누어진 것은 가벼워야 하였다. 덩어리의 무게이기보다 면성의 박판으로 두께를 갖지 않아야 하였다. 골판의 강성이 유지할 수 있는 면의 길이와 폭으로 몸체를 기렸다.

무엇으로 채워질지 모르는 임대용의 근린생활시설 프로그램에서 설계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다. 확정되어있지 않은 기능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바람 막아 건축으로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만 갖추면 되었다. 작은 임대공간의 융통성을 위해 공용의 기능들을 분리시키면 온전한 공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애매한 대지의 형상을 공간으로 일으켜 세워 거리와 접하게 하고 가운데를 비워놓는 그림을 그렸다. 통로와 계단과 화장실로 비워진 곳을 둘러놓아 집 속에서 집을 보는 작은 풍경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내부이지만 외부의 성격인 공용부분은 안과 밖으로 구분되기보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역할이면 충분하였다. ■



기준층 평면도

국회 도서관 / 40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 48

강릉대학교 학술지원정보센터 / 54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 58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겸 보존서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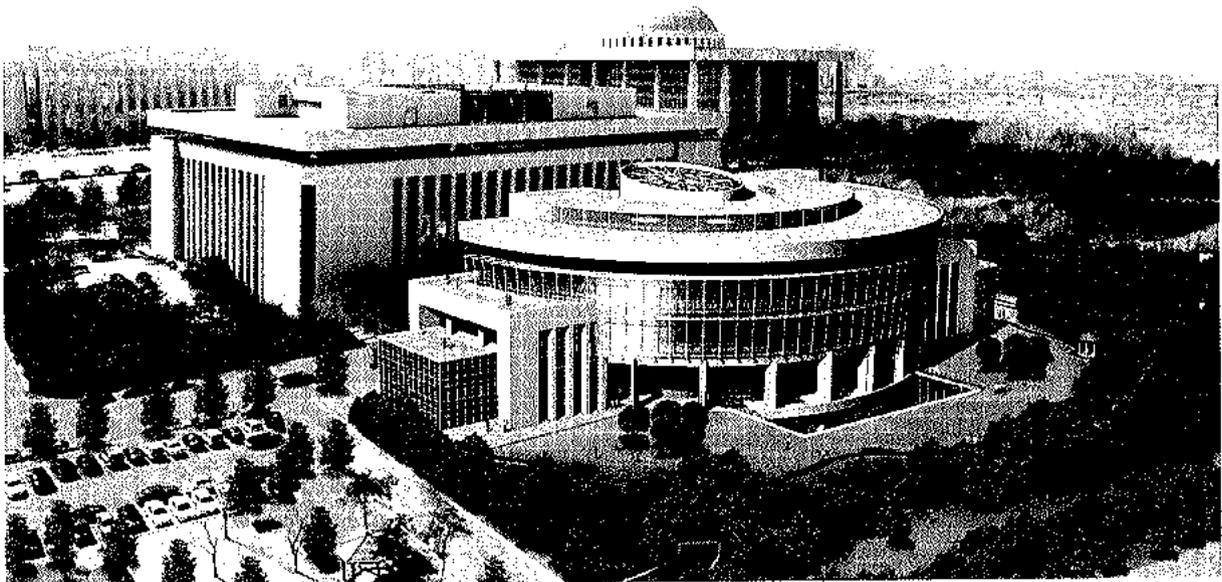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Library(Digital Library &
Preservation St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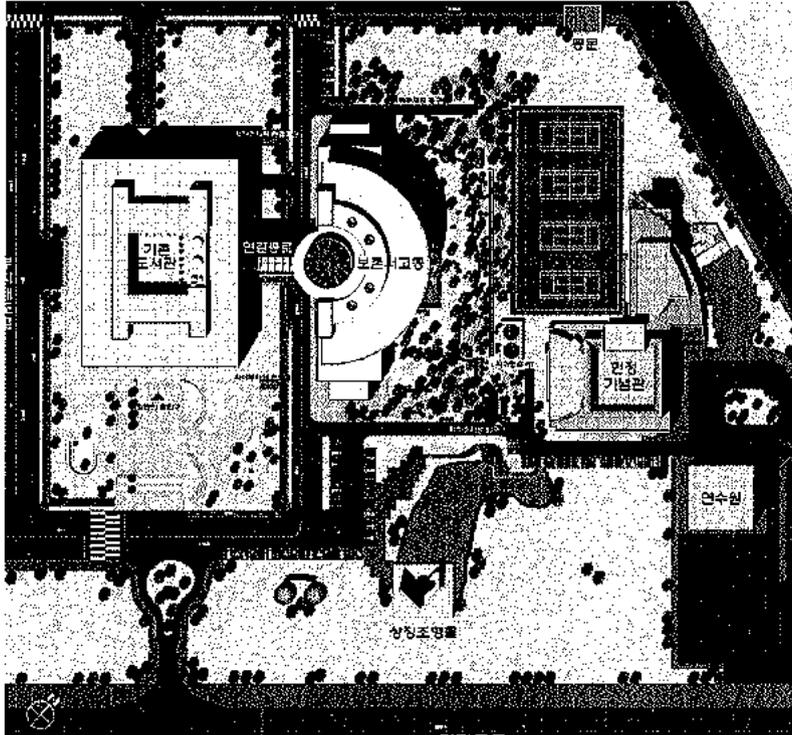
11개 업체가 등록하고, 최종 5개업체가 응모한 이번 프로젝트의 심사결과 (주)종합건축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17일 발표했다. 우수작은 (주)희림건축 안이, 가작에는 (주)원도시건축 안이 선정됐다. 심사는 국회측 인사로 노석갑 사무처장, 류충현 기획조정실장, 서안정 관리국장, 박영희 입법전자정보실장, 류상호 시설실의관 그리고 심우갑(서울대), 장림중(연세대), 김강수(고려대), 정진국(한양대), 이정형(중앙대), 김용성(국민대), 정진원(경기대), 이득구(서울시립대)교수, 황일인 한국건축가협회장이 참여했다.

▶ 당선작 /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이승우 · 윤석우 · 정일훈)

대지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3,877㎡
연면적	32,411㎡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
주차대수	옥내/274대, 옥외/56대(장애인용/18대)
주요설비	바닥, OA Floor/카펫타일, 리왕 각재, 에폭시코팅 벽/수성페인트, 조습패널, 대리 석, 스틸집삼패널, 흡음패널 천장/암면흡음텍스, 열경회수지 타일, 조습패널
외부마감	화강석건식붙이기, 컬러목층유 리, 투명강화유리
설계팀	이창수, 왕장수, 이준우, 강진 호, 윤희진

국회도서관 보존서고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전문디지털 도서관이다. 각종 문헌 및 정보제공센터로





배지도

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내·외 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 및 일반국민들에게 정보과학의 연구개발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자 한 21C 첨단정보센터이다. 건물의 배치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등의 주변건물 및 기존도서관과 조화를 위주로 계획되었다. 지상의 연결통로를 계획하여 기존도서관과 연결을 껴하고 기존 인접시설과 최대한 이격 및 한강변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도서관과 조화를 고려해 균제된 매스의 열주를 두고 전지도서관으로서의 하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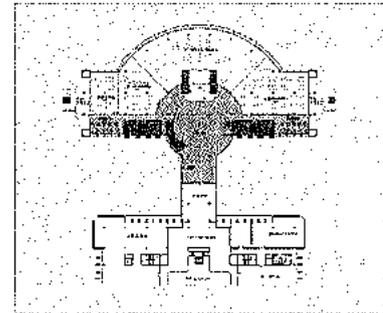
크한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경사진 커튼월로 쾌적한 사무환경은 물론 개방적인 열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벽 시스템은 하절기에 일사를 피하고 동절기에는 예열된 공기를 이용한 공조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되었다. 열람공간으로 이용되는 중앙홀 상부는 아트리움으로 처리하여 자연광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하서고동이 위치하는 지하층은 쾌적한 공간확보를 위해 지하중정을 계획하고 지하주차장의 장래 서고확장을 대비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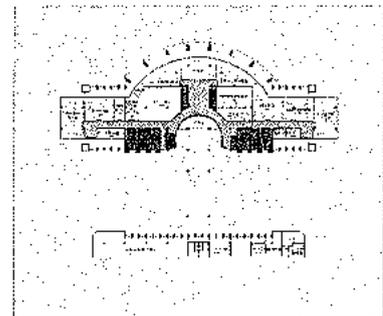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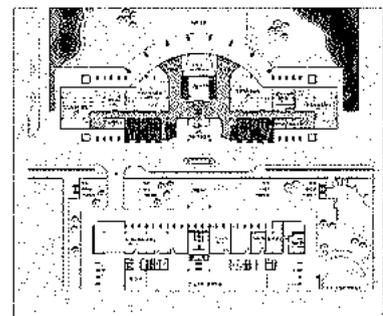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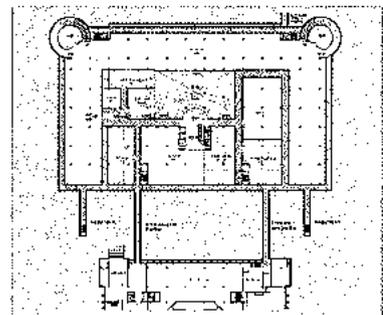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
무소(이영희·정영균)

대지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사당 대지내
건축면적	4,879㎡(1,479평)
연면적	32,656㎡(9,896평)
구조	철근 콘크리트+철골구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최고높이	27.0m(기존도서관-30.4m)
주차대수	215대(지하 206대, 장애자 9대)
외부 마감	스텐레스 스틸 패널, ZINC, 컬러 복층유리
	Design Director: 금두연
설계팀	오혁근, 함은광, 이명희, 윤택용, 김정훈, 김정희

배치계획

차량동선계획-일반차량동선과 화물차
량동선을 분리하고 출구와 최단거리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설치하였으
며, 둔덕을 이용한 차량출입구 계획으

로 외부공간을 쾌적화 한다.

보행동선계획-선근을 이용한 밝고 쾌
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주차 후 본
관 입구(실내)까지의 이동거리를 최소
화하였으며, 선근을 통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입체분리로 보행자의 안전
성을 확보한다.

토지이용계획-연결된 외부공간을 중
심으로 둘러앉은 건물군을 형성하고
국회도서관 본관의 배치축에 대응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외부공간계획-기존 시계탑 공원과 연
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외부공간
을 조성하고 정면 출입구에서 시계탑
공원을 거쳐 한강변 도로로 연결되는
도심의 자연축을 형성하였으며, 국회
도서관 본관과 환형으로 연결되는 외
부정원을 조성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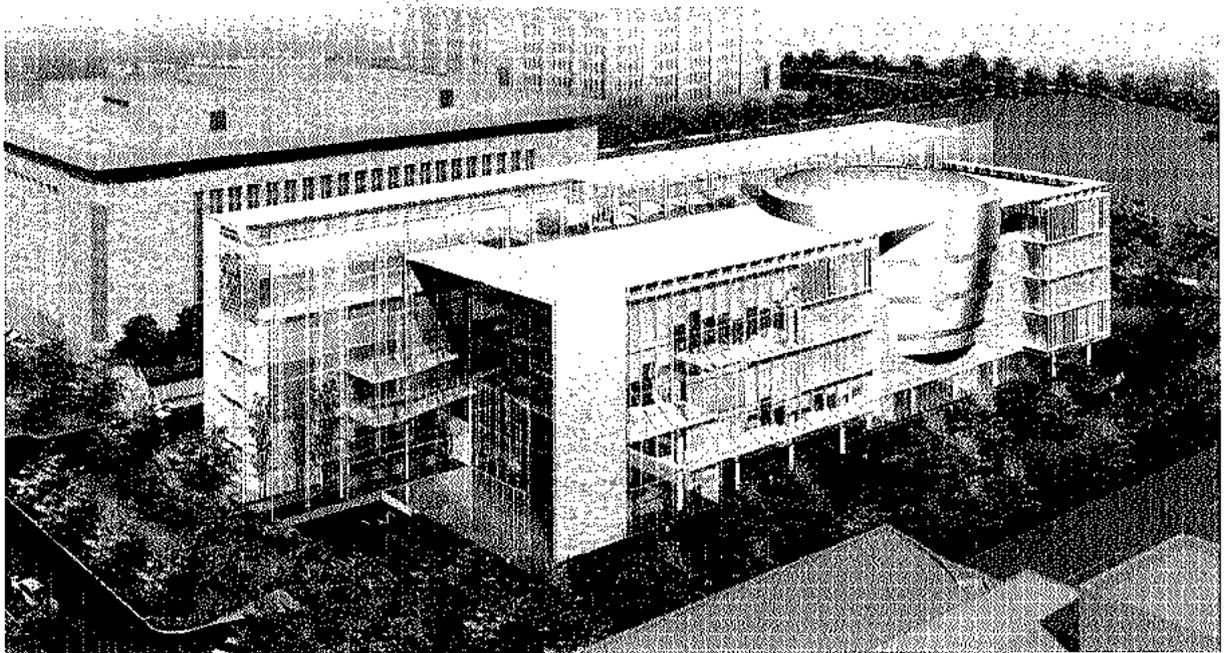
다양한 휴게공간 조성-1층 정원(사색

의 정원)을 두어 수공간과 대나무 숲
으로 안과 밖이 어우러지는 만남과 휴
식의 장을 조성하고, 외부에 발코너를
두어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들의 휴식
및 흡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4층에 휴게실을 두어 휴식과 정보교류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新·久的 유기적 연결-두 건물 사이의
통과도로 밑으로 연결된 선근을 계획
하여 보존서고동 지하 주차장에서 본
관 1층 출입구로 향한 보행동선의 안
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한다.

지상연결 Bridge에 이용자가 정보검
색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한
관련실을 근접배치한다.

장애인 시설 계획-진입부에 Nude
elevator와 전망 램프를 설치하여 장
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연스러운
접근과 사용을 유도하고 화장실 및 정
보검색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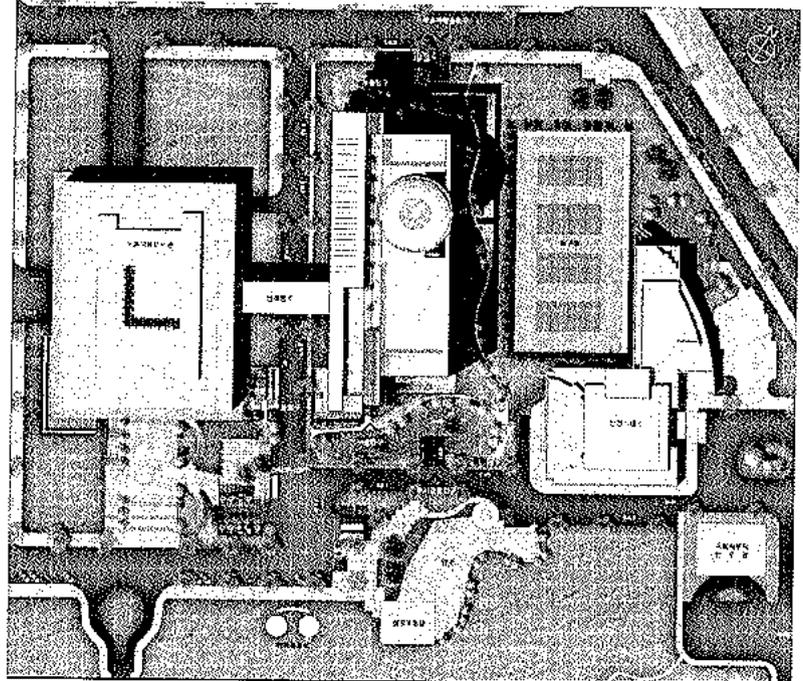


관리운영부문 계획-관리운영부문인
입법정보 지원과, 전자정보제작과, 전
자정보 총괄과, 전산운영 개발과는 아
트리움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링 되어
쾌적한 업무 환경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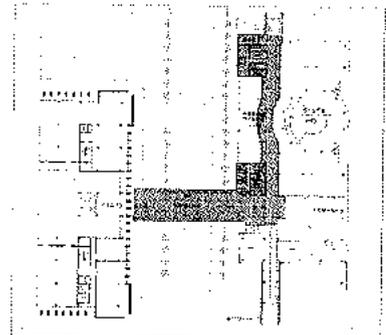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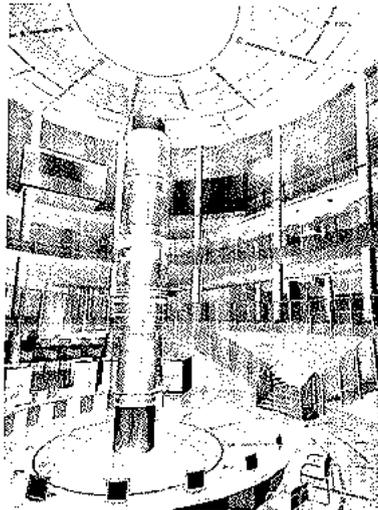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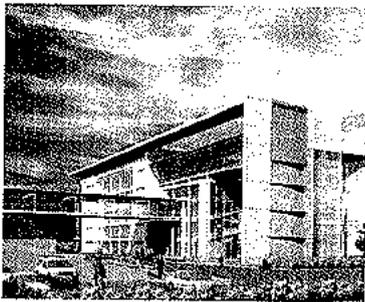
명확한 동선체계구축-직원/서비스 차
량동선과 일반 차량동선 및 주차장을
분리하고, 기존 및 인접 시설이 이와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효율적인 서고 운영-서고에서 도서를
운송하는 자동전달시스템(Book
Conveter)를 설치하고 각 서고의 결
절점(Node)에 자동전달시스템을 설
치하여 도서관 및 이동, 분류의 효율
성을 극대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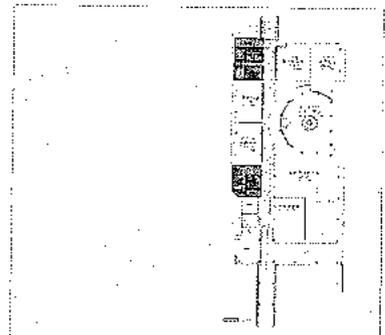
도서보관 안전장치-지하에 보관된 도
서들의 경제적이며 안전한 보관을 위
하여, 이중벽 및 서비스 복도를 설치하
고, 별도의 항온항습장치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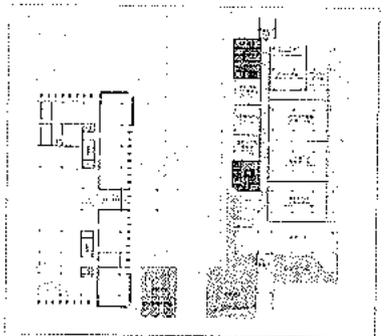
네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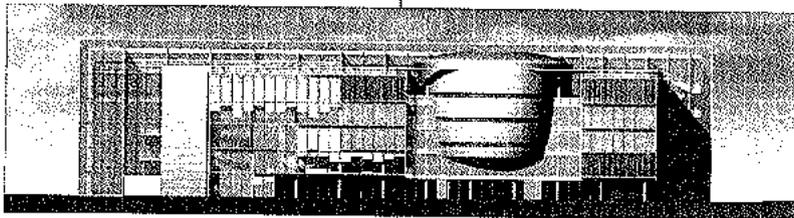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동측입면도



남쪽입면도

▶ 가작 /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
무소(변용·윤승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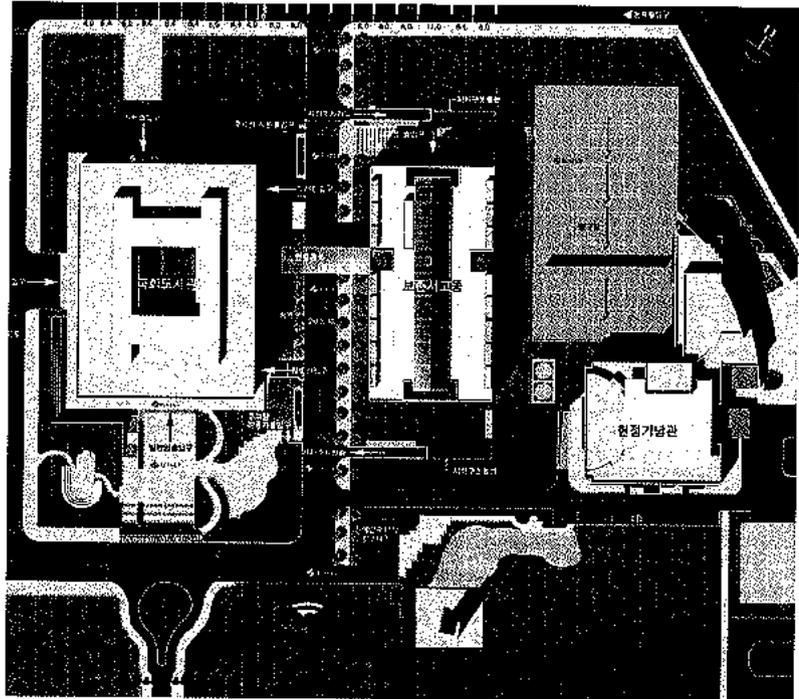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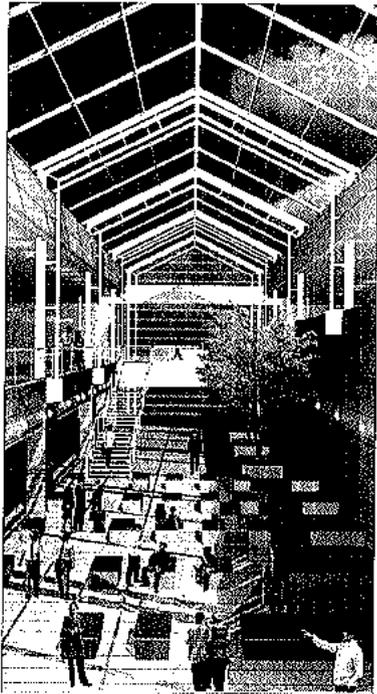
대지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대지 내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면적	30,682.3㎡ (9,281.4평)
규모	지하 3층, 지상 3층
최고높이	21.0m
구조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승강기	승객용(장애인겸용1대 24인승 60m/min 화물겸용1대, 24인승 60m/min) 서적운반용(유압식1대, 적재량 1t, 30m/min)
주차계획	201대(장애인주차 12대)
외부마감	T30화강석 버너마감, T22.3컬 러집합유리, T24컬러복층유리
기계설비	열원설비- 냉방:흡수식 냉온수기 난방:지역난방(열교환기) 기습:증기보일러
전기설비	수변전설비·고효율 아물피스 변압기

-Multi Bank 및 이중모션으로
배전구성
비상발전설비: Gas Turbin 발전기
설계팀 김원중, 임동원, 조현휘, 송훈,
최준석, 유은정, 이동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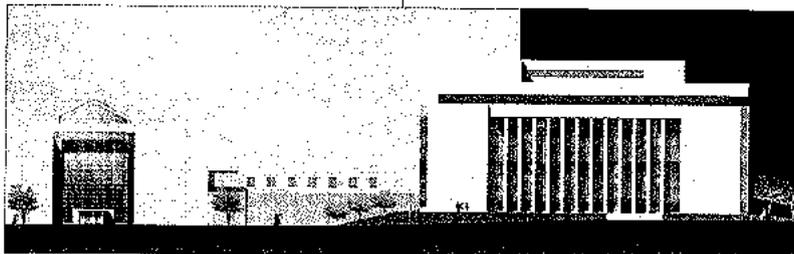
국회는 의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상징
축과 그에 연계된 직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계획안은 그 설정된 환경에 합
리적으로 순응하는 배치로 국회라는
전체의 상징성 및 image에 부합되도
록 모체인 국회도서관과 통합된 집합
체적 질서를 가지게 하였고, 전자도서
관과 보존서고라는 본래의 프로그램에
합당한 구조와 기능을 만드는 것에 주
안점을 두었다.
제시된 3개의 영역군(서고/폐쇄영역,
디지털정보업무 및 직원/중간영역, 디
지탈정보검색/개방영역)들을 각 영역
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으로 적층하고,
별도의 코어 및 국회도서관동과의 연

결통로를 분리 계획하여, 각기 그 영역
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적 기능에 대한
상호간의 간섭이 없도록 하였다.
연속된 흐름을 위한 연결체인 정보의
다리는 새로운 공간(디지털 정보 검색
영역)으로의 진입로 역할과 더불어 도
서관 이용방법 및 홍보, 전시의 기능을
부가하여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정보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로서
계획되었다.
이뜨리움은 개개인의 검색활동에 대비
되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써 투명피
막에 둘러싸여진 열린 공간의 성격을
기진다. 그리고 직접광의 최소화를 위
해 무창으로 계획된 디지털 정보검색
영역에 대해 상부층창에서 벽면반사된
간접광과 함께 최적의 검색 환경이 만
들어지도록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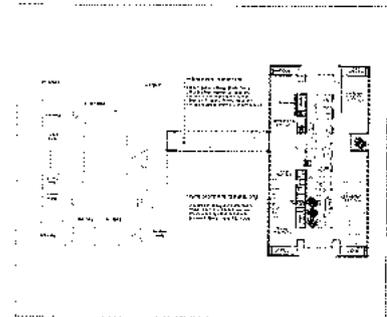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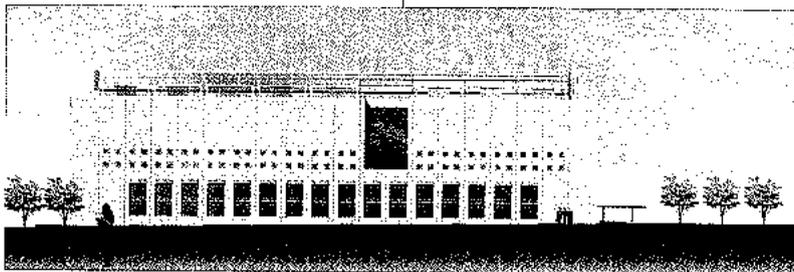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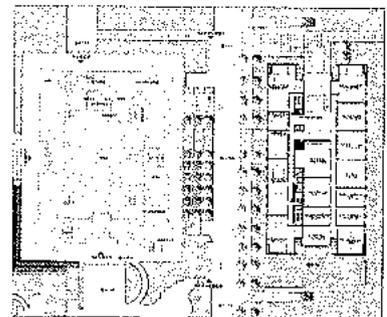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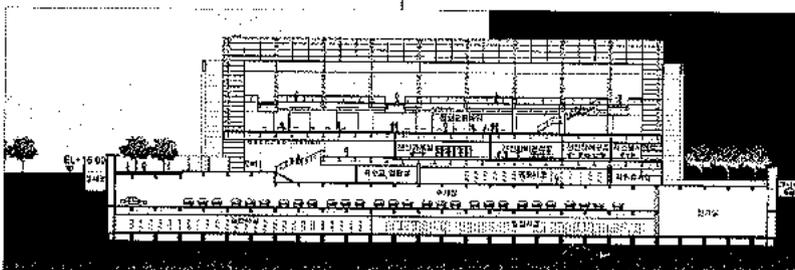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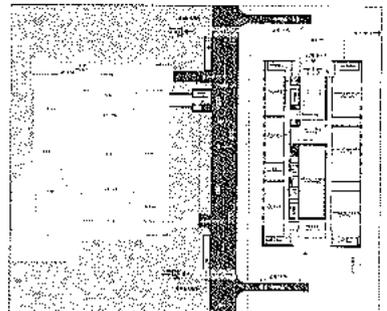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지하1층 평면도

▶ **응모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
무소(노형래)**

건축면적 4,414.18㎡
 연면적 30,292.77㎡
 규모 지하 4층(보존서고동),
 지상 3층(전자도서관)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THK3 금속패널,
 THK24 로이 목층유리
 주차대수 279대(지상72, 지하202, 장애
 인주차6)
 설계팀 고종준, 박종술, 신창식, 주영준,
 신익주, 허용, 이창훈, 허한, 김동
 원, 원종석, 송기황, 권영환

기존 국회도서관과 연계하여 전자도서관 및 보존서고동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며, 기존 도서관의 부속건물로써 디지털화 되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에 대한 전자도서관 기능으로의 확장과 부족한 현 서고와 장래의 서고 등을 확충할 수 있는 보존서고동이 된다.

연계: Atrium

일반인들이 상시 사용가능한 전자도서관은 밝고 투명한 대공간으로 형성된 아트리움을 통해 기존 도서관의 출입구와 메인홀로 부터 진입이 이루어지며, 주 계단을 내려가며 지하 2층까지 아트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도서관의 기능들과 쉽게 연결된다.

부속: Ann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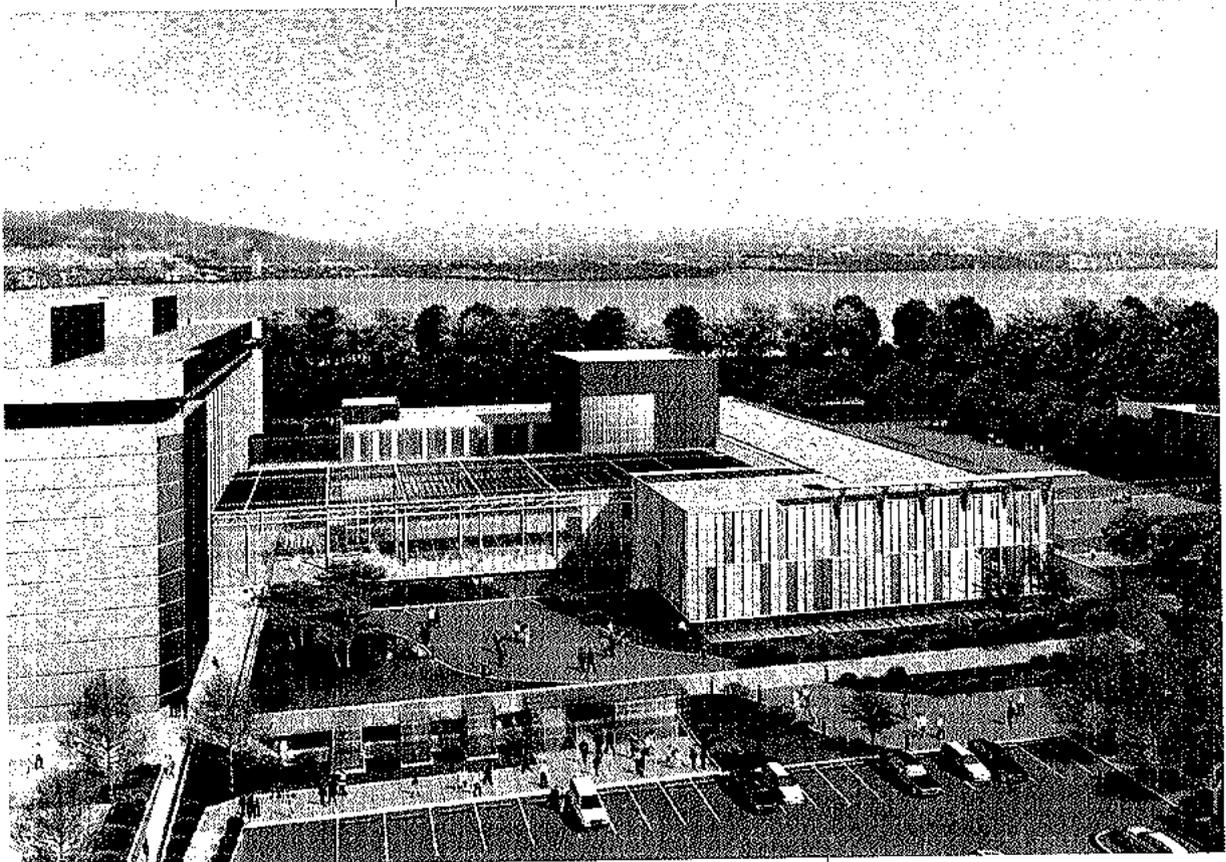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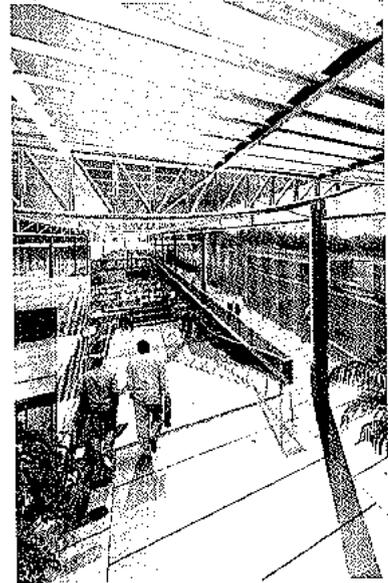
기존 국회도서관의 부속건물로써 맞서지 않는 낮은 건물을 형성하여 수평성을 주조로 안정감과 대지에 어울리는 매스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 도서관의 입면에서 볼 수 있는 수직성을 외피에 반영해 기존 도서관의 context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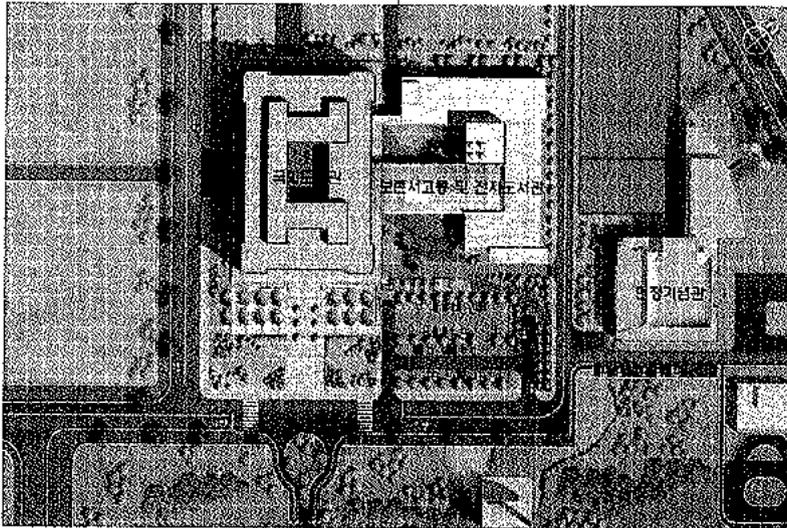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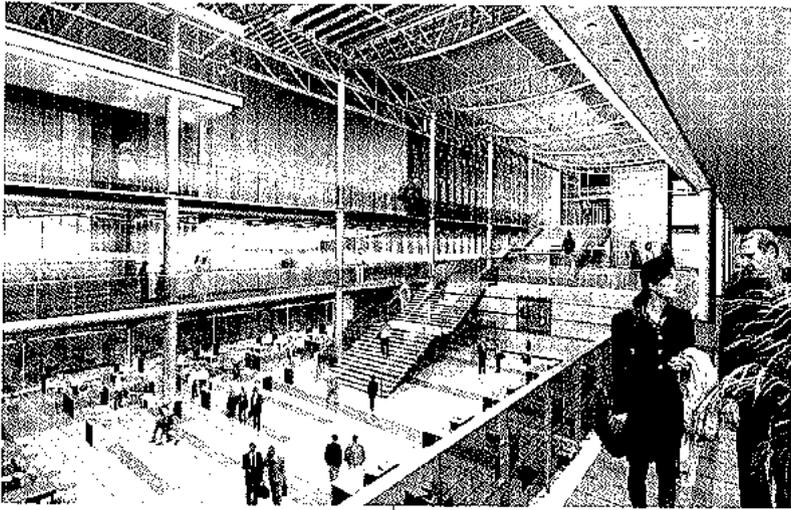
통일: Silence

전체배치와 조경은 기존 도서관과 도서관의 대지를 통합하는 계획으로 통일성을 형성해 정적인 도서관의 분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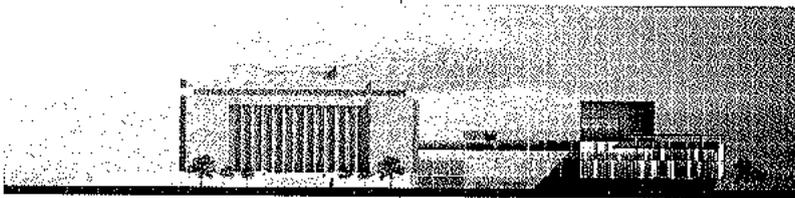
제공하려 하였다.

또한 지하 주차장이외에 녹화된 지상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제공하고,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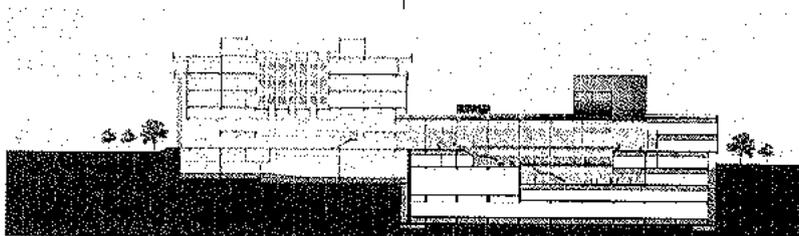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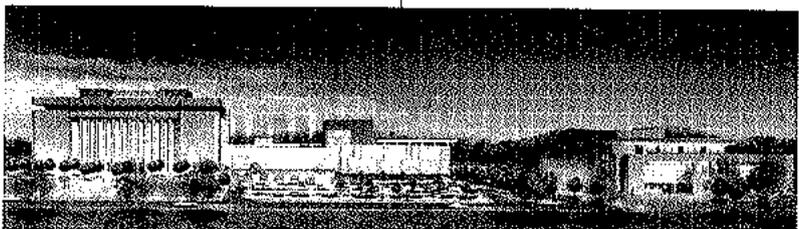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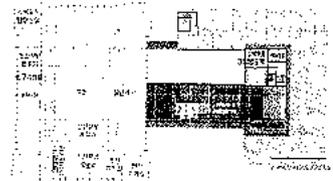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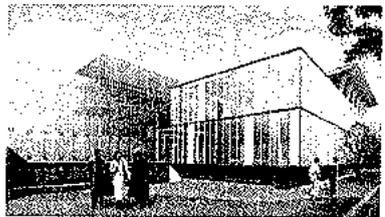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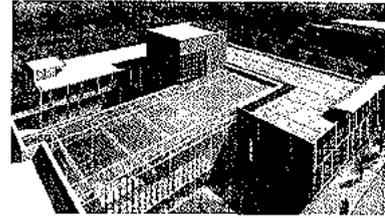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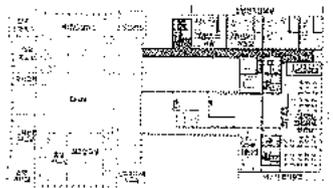
절단면도



야경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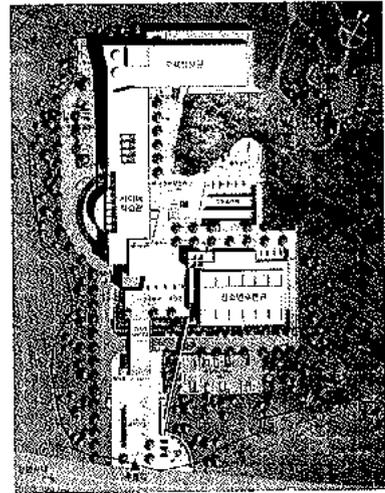
Chungcheongnam-do
Lifetime Education Center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의 평생교육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문화공간과 복지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평생교육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했다. 지난 2월 19일 이지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고은태(중부대), 김기남(서울대 시설서기관), 김진욱(목원대), 박승익(우송대), 박영기(연세대), 박종원(홍익대), 윤학철(대진대), 이왕기(목원대), 이종월(천안도서관장), 이해욱(우송대), 최재필(서울대)씨가 참여한 심사결과 (주)도우건축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

다. 우수작은 (주)부림건축+(주)트우건축 안을, 가작에는 우반건축+예담건축 안을 각각 선정했다. 2004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서용주)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산64번지
지역지구	농림·준농림지역
대지면적	44,050㎡
건축면적	4,614㎡
연면적	13,319㎡
건폐율	10.48%
용적률	25.18%
주차대수	49대
규모	교육정보관 지하-1층, 지상 4층, 사이버학습관-지하 1층, 지상 3층, 청소년수련관-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트러스조
외부 마감	점토벽돌, 화강석, 내후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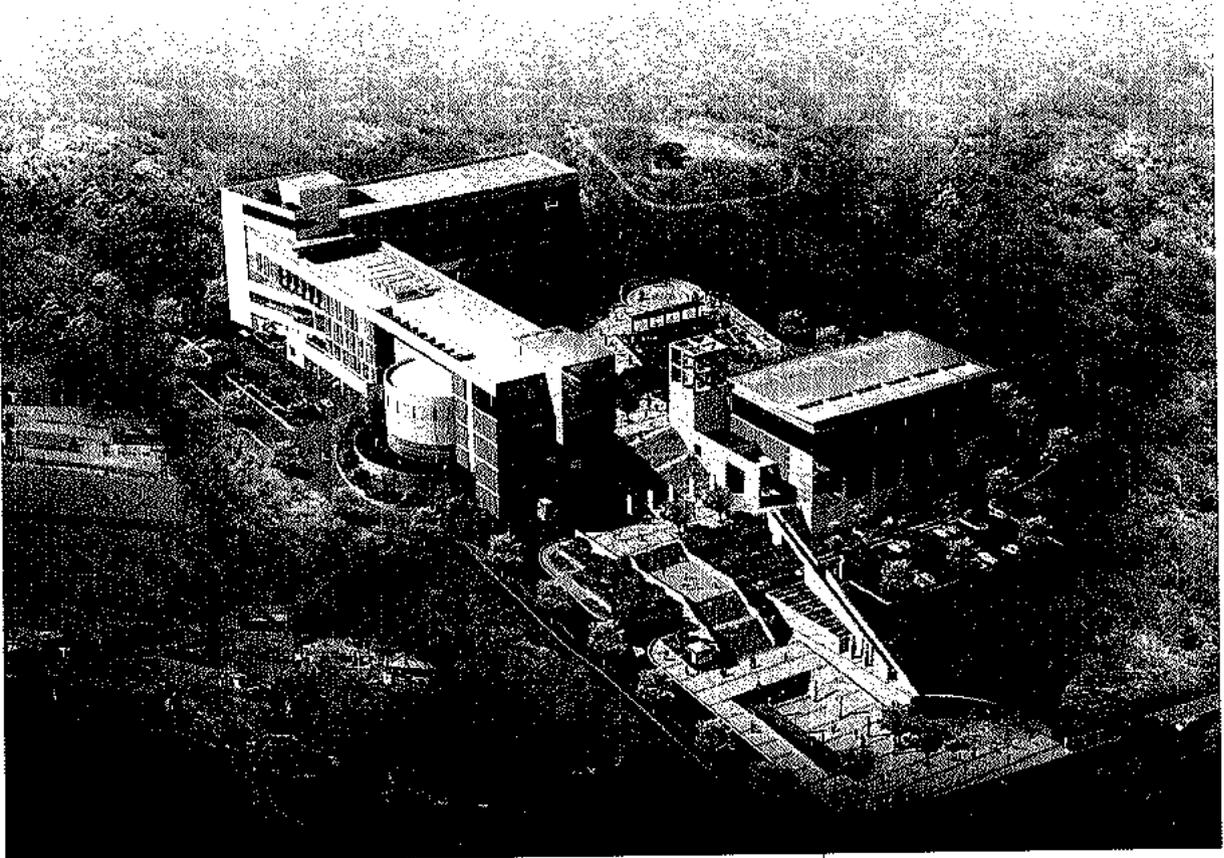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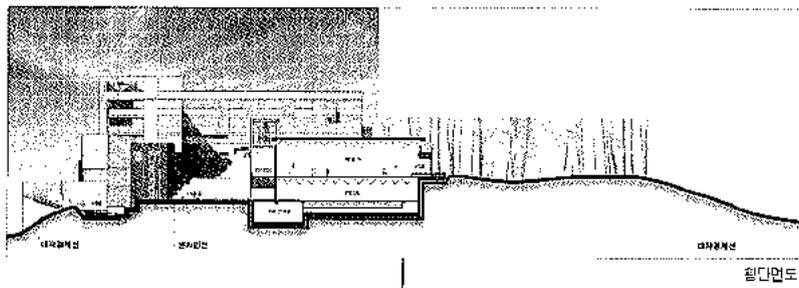
배지도

설계총괄 윤토현
설계팀 이인성, 김등호, 최근호, 김상희, 정혜원, 산동훈, 김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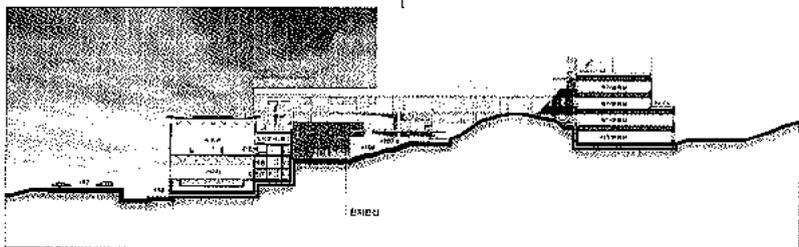
정소성 - 땅에 감싸안음

공허한 현학적 담론들에서 할걸음 벗어나 보면 건축은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유형의 형태와 무형의 행위 사이의





일단면도



중단면도

틈새로서의 공간 즉,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막연히 갖게 된다. 단순한 오브제로서의 아닌 모든 요소들이 통합된 장소로서의 인식방법은 이땅의 중요성에 대한 미심적움을 떨쳐버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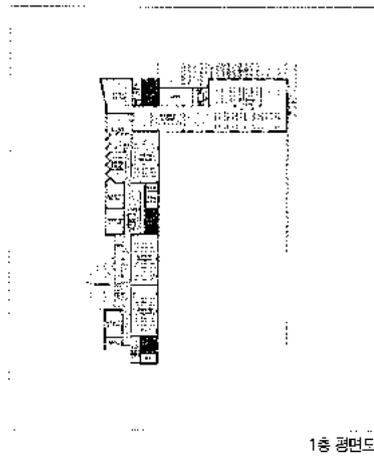
부지는 조그마한 마을을 둘러싼 뒷산으로 경사가 제법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땅이다. 한눈에 딱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아담하게 구비구비 흐르는 땅의 형세는 시시각각 다른 풍경들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땅에 도리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마을이 커질수록 산이 끊어지고 개천이 닳았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땅이 사라져가고 있다.

기존 숲을 보호하고 땅의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뒷산처럼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장소를 만들어낸다.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흐름을 존중하며, 건물과 자연이 서로 물러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곳이길 바라며, 대지전체를 활용하여 남는 곳을 보존하는 것이 아닌, 전체의 산세에서 가용대지를 빌어 조심스럽게 건물을 관입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기존 대지로의 진입로였던 계곡의 기억을 보행축으로 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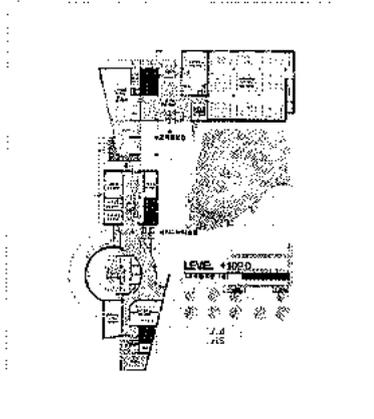
비어있음 - 활동의 주머니로서의 마당

마당은 비어있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광장, 중정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무의미하게 비어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비어있음은 해우이를 전체로 하며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 무수하게 다른 현상들로 만들어낸다. 이 비어있음은 고요함, 명료함, 투명함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공허함이 아니라 시간, 순간, 행위, 상황, 즉 사건으로 가득찬 활동의 주머니로서의 비어있음이자 현상적 가득참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 넓지도 좁지도 않은 자연과 어우러진 외부공간, 그곳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한다. 마을 뒷산에 권위가 아닌 열려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 각자가 원하는 산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땅이 그러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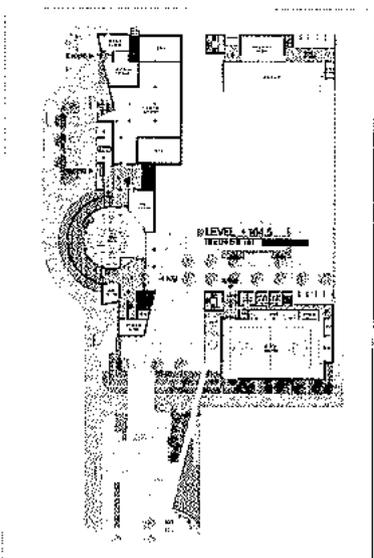
이용자의 빈도 및 성격에 따라 외부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별 공간의 특성과 점목시켜 동적 공간에서 정적 공간으로, 개방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흐름을 유도한다. 기존의 경사를 최대한 유지하며 최소한의 절토를 위해 기존 산세의 흐름과 일치하도록 건물의 방향을 정하고 각 레벨별로 건물의 진입과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조궁호)

건축면적	4,288.23㎡
연면적	14,599.80㎡
건폐율	9.43%
용적률	25.93%
주차대수	89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일부 철골조)
외부미감	회강석 버너구이,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안진영, 이재권, 심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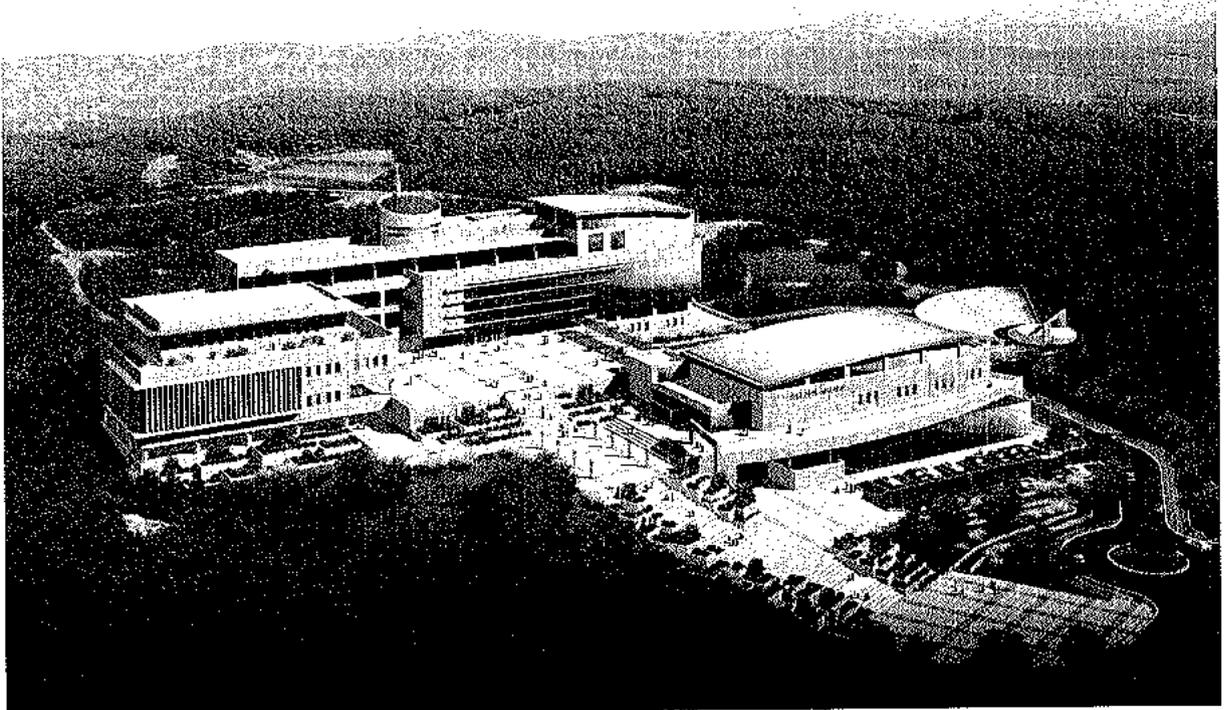
충청남도의 발전과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의 거점과 도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정보통신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 시설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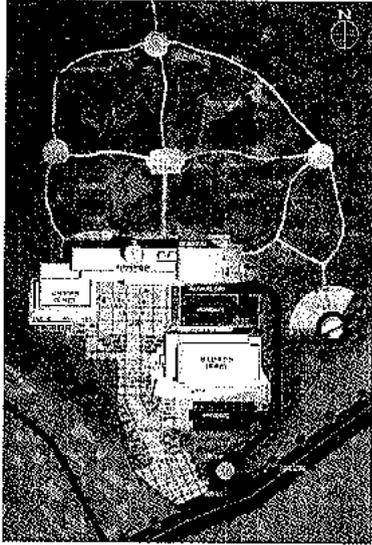
이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체로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시설을 계획하면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대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산64번지로, 천안시 전체로 볼 때 천안 시내와 독립기념관을 잇는 도로선상에 위치한다. 분지안의 이형지형인 경사지로 전체적으로 남쪽으로는 경사를 이루고 있어, 북측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의 조망이 우수하여 향이나 조망 모두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는 대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지와 도로의 접하는 면이 대지면적에 비해 협소하여 차량과 사람의 적절한 동선의 분리와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전술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되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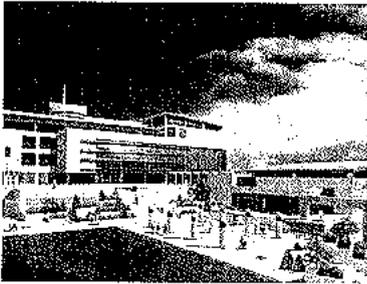
배치에 대한 대안 검토결과 원만한 경사

를 가진 대지 남측이 기용대지로 설정되었다. 건물군을 지세에 순응하도록 배치한 안이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하면서 경사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동선을 고려해 볼 때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지 북측의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절토 및 성토에 따르는 토목비용의 절감이라는 징점까지 갖춘 배치라고 판단되었다. 보차분리는 입구에서 해결하여 차량의 동선을 우회시켜서 보행자 동선은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계획될 수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게 될 시설의 성격을 고려해서 입구에서 주 건물까지 이르는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의 확보를 위한 수직 동선을 계획하여 경사지의 약점인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주 진입 동선은 경사의 상승에 따르는 위계를 부여하고 지세에 순응하는 진입 축에 의해 변화를 갖게하여 진입시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선 상에 테크를 두어 각 시설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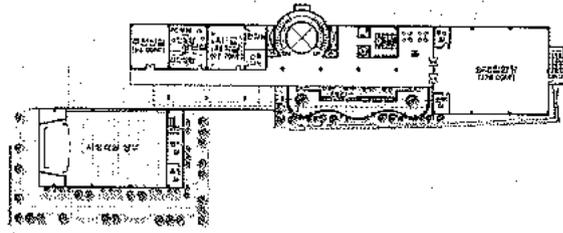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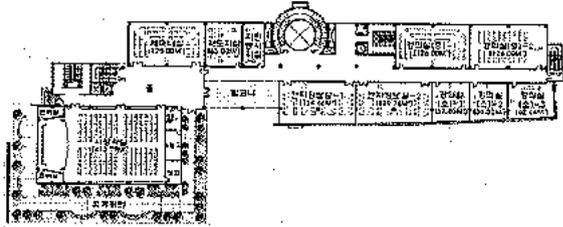
동선분배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진입 동선 축선상의 결절점이 되어 휴식과 조망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매스계획은 거대 단일 매스를 지양하고 분절된 매스의 중첩을 통해 위압감을 가지지 않도록 했고 아울러 입면에 수평, 수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여 입면에서의 변화감을 부여했다. 또한 자연환경을 충분히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코니 등의 매개공간을 두고, 층고가 높은 시설에는 자연채광을 충분히 고려했다. 옥상에는 바이오 탑(Bio Top)을 이용한 옥상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에너지 부하의 감소를 기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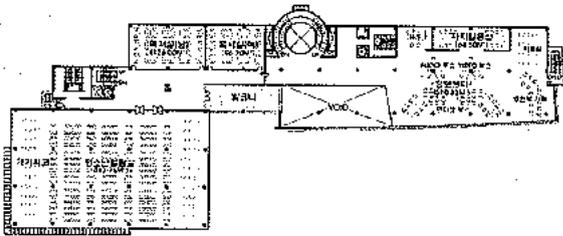
대지 중 건축물이 차지하지 않는 곳은 서바이벌 게임장, 자연체험 공간, 보존 지역 등으로 할애하여 청소년들의 호연지를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는 동시에 주변 자연환경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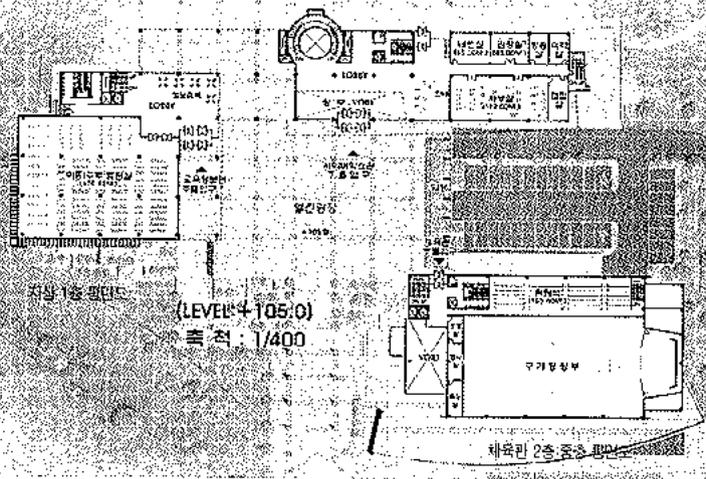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북측면도



남측면도

▶ 가작 /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박영준)+건축사사무소에당(이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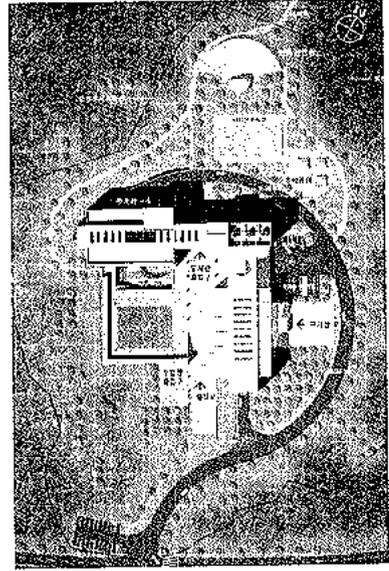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산 64번지 내
지역/지구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주요용도	농림·준농림지역
대지면적	44,050㎡(13,325.12평)
건축면적	4,020.56㎡(1,216.21평)
연면적	13,874.05㎡(4,196.90평)
건폐율	9.13%
용적률	20.32%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내외장	T24 투명복층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골합석 아연도강판
설계담당	김상우, 김정수, 길봉석, 정우영, 이원석, 김상진

- 천안과 목천간 21번 국도변에 위치한 대지는 접근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좋은 곳으로 이곳에 들어설 교육회관은 Land Mark적 건축물이 되길 희망한다. -

최고 30m에 이르는 레벨차를 가지고 있는 대상부지의 지형극복에 대한 필요성과 도심으로부터 동떨어진 부지의 인지도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특수한 대지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지형에 대한 순응과 건물의 인지도 확보라는 상반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능선부분에 건물을 배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도심에서 다소 소외된 듯한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시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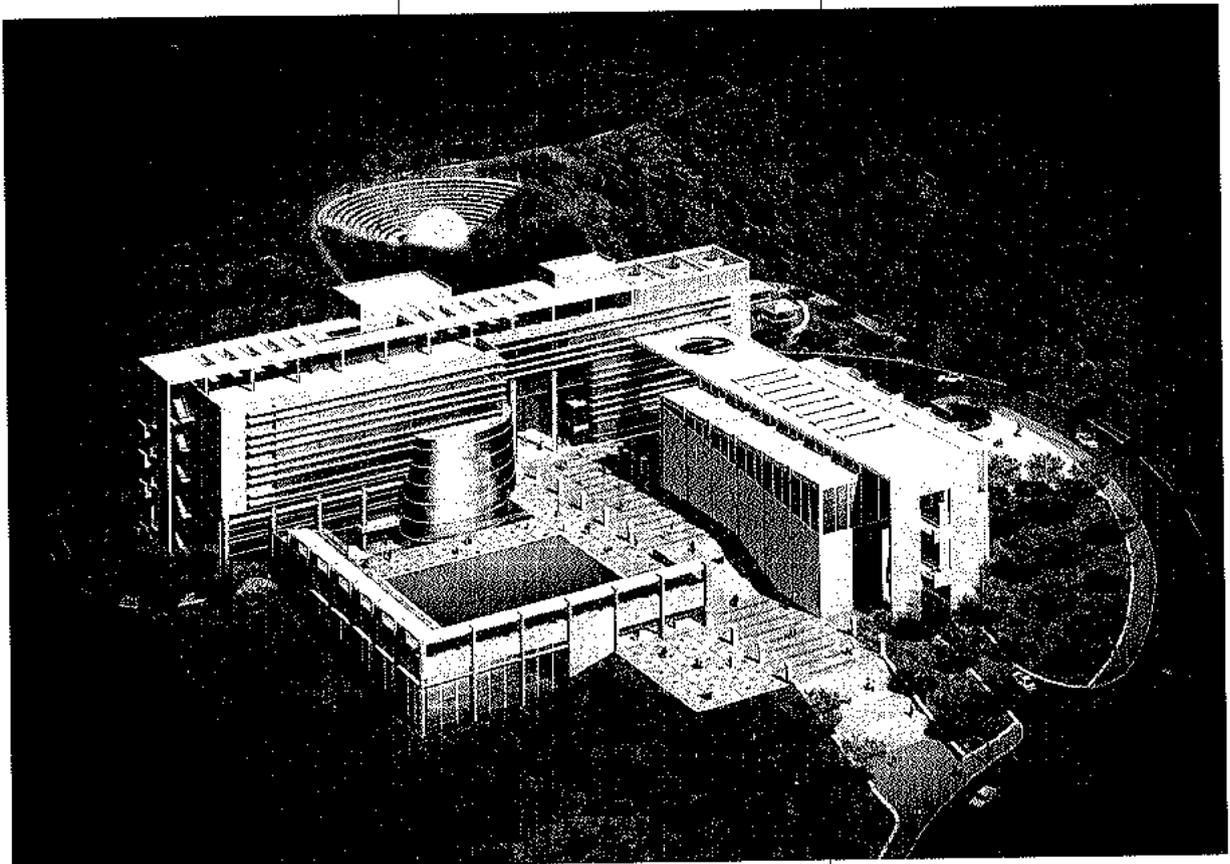
능선부분에 건물을 앉히게 될 경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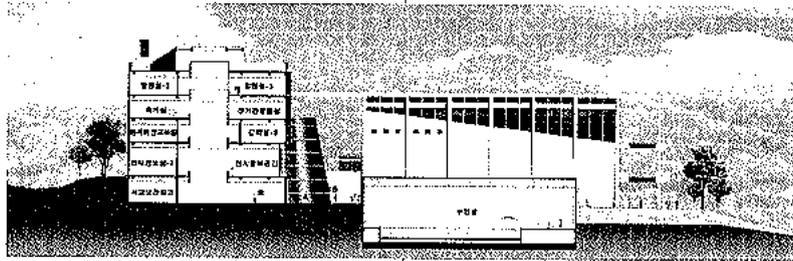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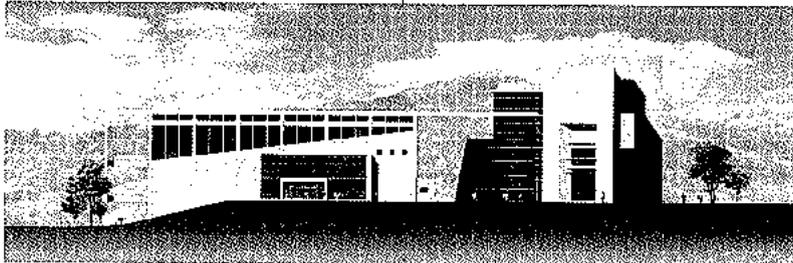
변에서 느끼게 되는 시각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건물을 도서관 및 사이버학습관, 수영장, 체육관 등 3개의 매스로 나누어 세 건물 사이에 위계를 두어 배치하였다.

정적공간인 도서관 및 사이버학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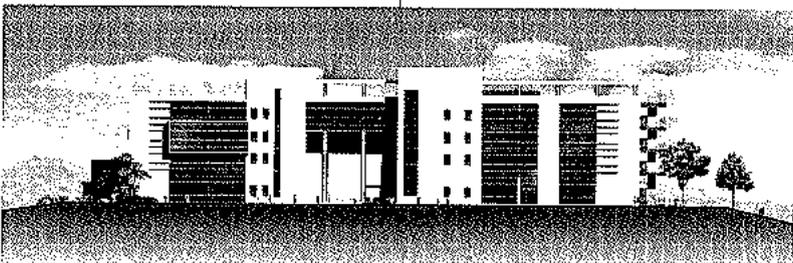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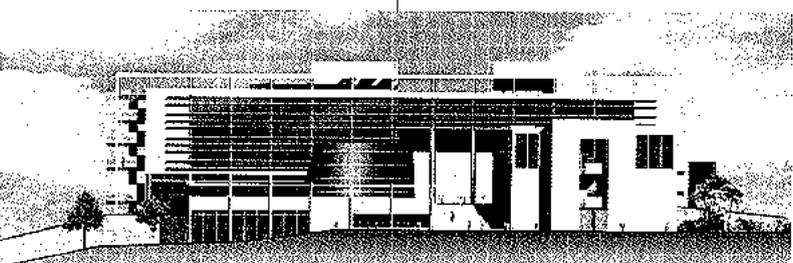
동면도



남면도



서면도



북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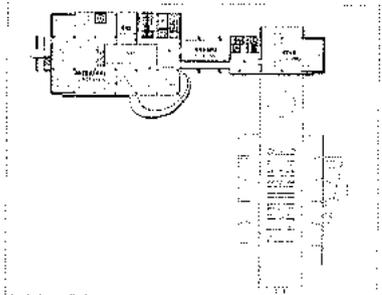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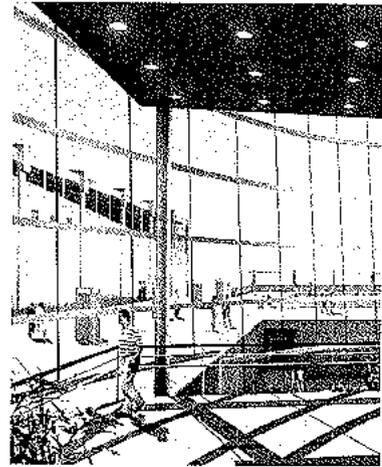
은 도로 소음의 영향이 적은 부지 후면에, 동적공간인 수영장, 체육관은 부지 전면에 배치하였고, 수영장을 지하에 두어 도서관 및 사이버학습관에서의 조망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영장 상부 Deck의 잔디광장은 중앙광장의 성격을 최대한 살리면서 진입동선의 연계 및 레벨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곳으로 이 곳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인공의 마당이면서 외부공간의 상징적인 중심공간이 되는 곳이다.

또한, 분리된 매스사이에는 지하 선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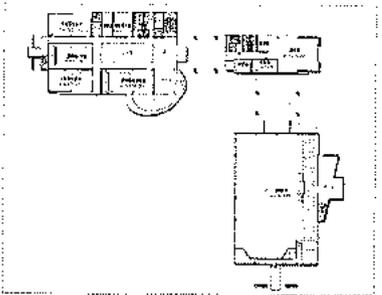
광장, 출입홀 등의 매개공간을 두어 매스간의 공간연계를 도모하였고, 하늘 지붕을 활용하여 시각적 연계가 되도록 하였다.

차량동선은 진입부에서 능선부분까지의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지 외곽에 원형으로 길게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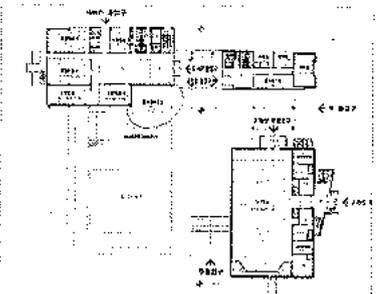
보행자들은 진입부 경사로, 조각공원, 계단, 잔디광장, 필터로 연계되는 동선을 통하여 도서관에 이르는 동안 건축적 산책을 통하여 공간체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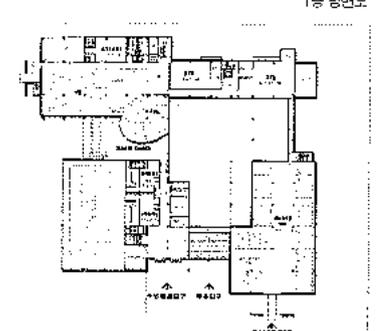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강릉대학교 학술정보지원센터

Library & Information
Supporting Center of
Kangneung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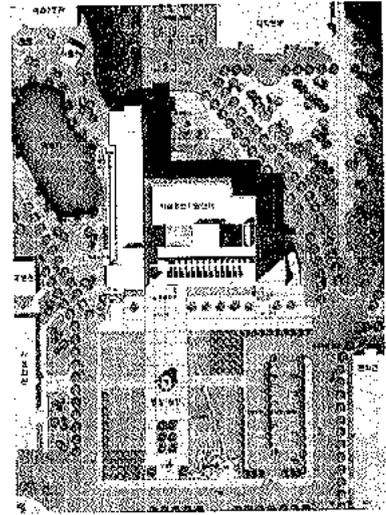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로 설립 55년째를 맞이하는 국립 강릉대의 장단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대학 및 지역사회에 첨단 학술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개최되었고, 지난 3월 9일 15개업체가 참여하여 4월 9일 2중 8개업체가 작품을 접수하여 동월 16일 각계 전문가 8명의 심사 끝에 당선작을 결정하고 지난 4월 18일 발표됐다. 심우갑 서울대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상준(연세대), 여영호(고려대), 이강업(한양대), 박찬규(충남대), 김형우(홍

익대), 최찬환(시립대) 교수 및 전주모(강릉대 시설과장) 등이 심사를 맡았다.

▶ 당선작 / (주)심우동인건축사사무소(한상묵·이석렬)+박성환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외 36필지
지역지구	학교시설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전산센터, 박물관)
대지면적	624,021㎡
건축면적	4,522.9㎡
연면적	17,352.7㎡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최고높이	26.4m
외부 마감	T30 화강석+T18 컬러복층유리
실계림	김용환, 박석철, 김영일, 안형원, 정희성, 이해령, 이승희

이 계획은 강릉대의 중심위치에 자리잡



비치 두

은 현 기존 도서관의 확장과 더불어 전산센터 및 관련 교육시설과 일부 박물관 공간을 포함한 복합 학술정보지원센터 개념이었다.

기존 도서관 부지주변으로 계획범위가 제한되었고, 증축과 리노베이션이 복합되어 신축보다 오히려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지만 복합 기능에 따른 공간의 효



올적인 동선계획과 평면분할 그리고 캠퍼스의 중심건물로서의 조화와 상징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으며, 동시에 도로로 단순히 분할된 전면 녹지를 정돈된 하나의 중심광장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터를 제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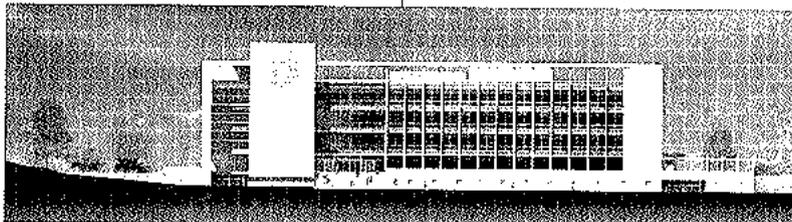
진입축에서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조망되던 기존의 환경에서 건물의 볼륨이 커지면서 배후공간 등이 시각적으로는 닫힌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캠퍼스 전체에서 열림과 닫힘의 개념이 적절히 인베되어 전통건축의 마당처럼 다음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겠고, 이 건물의 정면 측면에서도 이 개념에 의한 공간의 상호 관입을 통하여 전체적인 건물의 이미지를 형성화하였다.

건물 남측의 수변공간인 연못(해랑지) 주변은 기존보다 좀더 활성화된 친수 공간을 형성하고자 건물의 후정과 본 건물과 피로티와 매스상 크게 트인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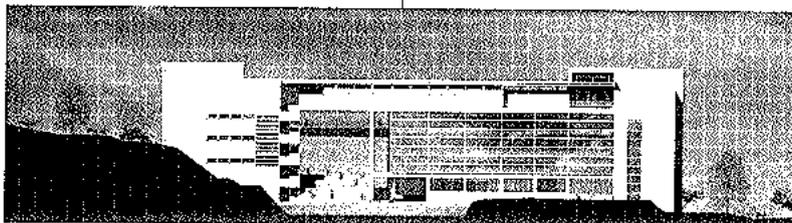
간을 통하여 시각적으로나 접근 측면에서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하였다.

신구건물은 이뜨리움을 통해 이격하여 채광과 환기를 최대한 도입하고, 도서관 자유열람실은 주야간 사용시간대 분리사용을 고려하여 주요 서가열람동선과 존을 분리하였고, 대학박물관은 이 건물과 저층부 매스를 분리하여 관리 및 수장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상층부 전시공간은 매스를 연계하여 이용자동선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전산센터 및 강의공간은 전면 대지 레벨에서 직접 진입토록하여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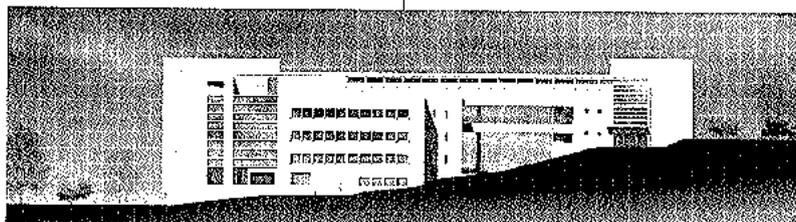
비교적 짧은 현상기간으로 미흡한 점도 있으나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대학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고 정보와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발전시키는 터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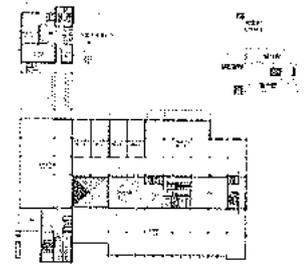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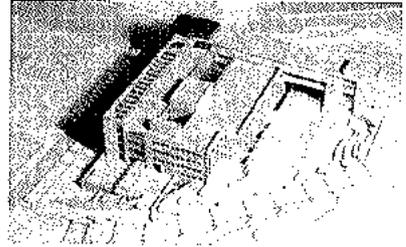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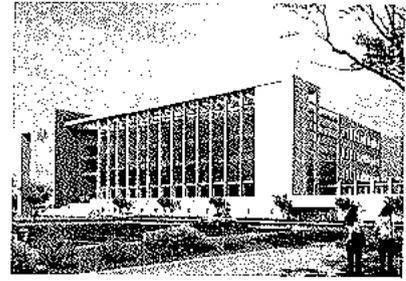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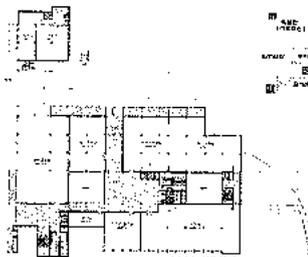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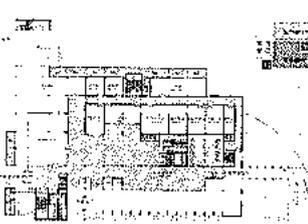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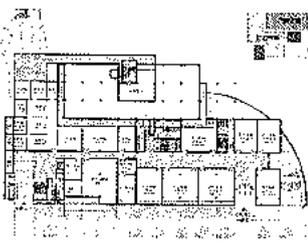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업&이 종합건축사 사무소(이근창 · 조익수 · 이관표)**

위치	강원도 강릉시 지번동 123번지 강릉대학교 부지 내
지역 · 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 시설 결정 지구
주요용도	교육 연구 시설
건축면적	4,189.92㎡
연면적	17,357.31㎡
주차대수	15대 (장애인 주차 2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외부 마감	화강석 THK 18mm 컬러 북층 유리
설계담당	문영환, 박병록, 심재균, 박의근

기존의 강릉 대학교는 평지보다 경사가 많아 가지형 도로체계를 따라 건물군이 형성되어 있어 산만한 형태군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지는 진입축선

의 전면에 기존 도서관과 연계하여 선정되어 있다.

장소적 특성에 따라 신축 대학도서관은 기존 건물군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심성과 상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MAIN 공동구의 간섭여부와, 기존 경관의 유지, 신축시 기존도서관의 운영성 등이 주요 과제였다.

배치계획

진입축의 상징축과 남북의 자연축을 선정하여 기존 공동구 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며 신축에 대한 해람지 및 좌, 우, 후면의 View를 고려하였다.

기존 건물의 운영성과, 채광, 통풍을 고려하여 적정 Span의 Atrium을 구성하였고, 또한 기존의 산만한 건물군 형태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응집성 있는 형태를 구상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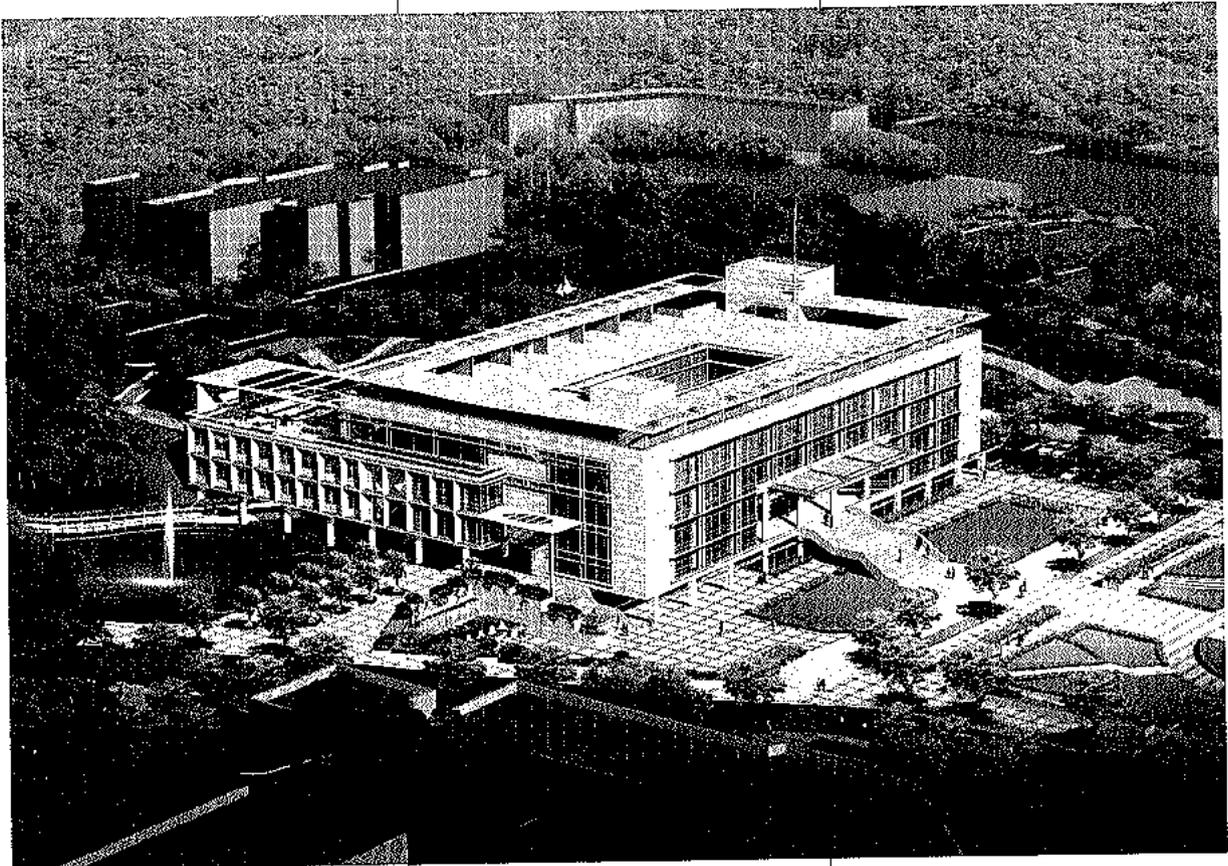
기존도서관의 동선유형과 시설별 이용자 유형 및 기존건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연계 및 분리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남측 해람지 측면에 학생의 주동선과 휴게공간이 선정되었다.

북측의 주차 서비스 부분에 도서 및 박물관 화물 반입 Core를 형성하여 서비스반입 및 직원의 관리동선으로 활용하였다.

입면계획

계획대지는 사면의 정면성이 필요한 부지이고 학문의 강직성을 표현하기 위해 화강석의 격자 프레임을 강릉의 투명한 대기와 동해의 푸름, 학문의 개방성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단순함과 형태의 비례를 통해 개방성과 대학시설의 중심성 및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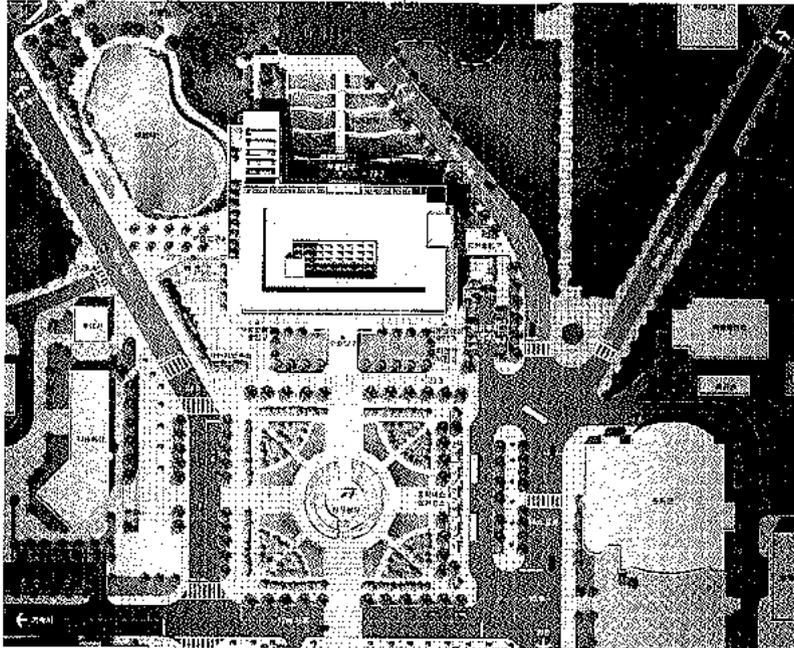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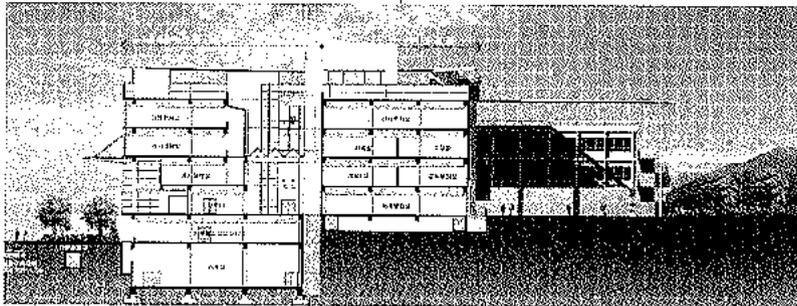
규모는 기존 건물의 층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 건물의 운영성을 위해 신축건물을 기존건물과 이격시켜 공사

중에도 도서관 운영의 불가피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신축건물은 기존 건물의 구조체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고려 되었다.



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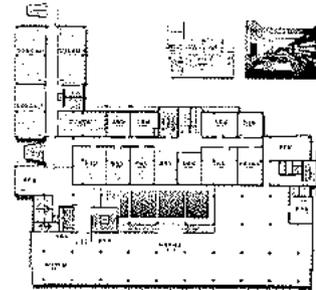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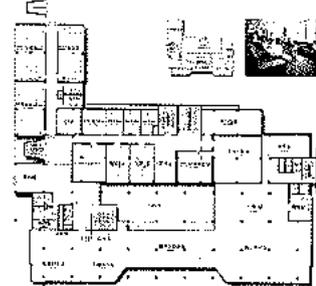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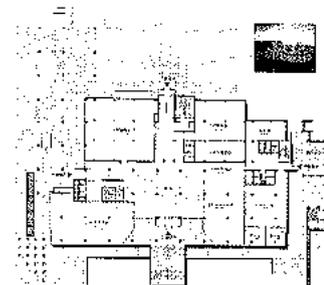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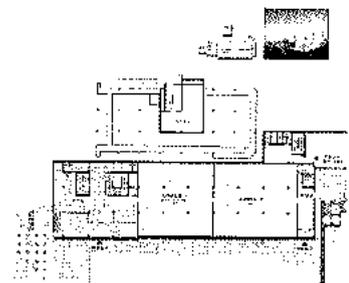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Domestic Science Center
of the Ulsan University

현재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생활과학대학, 교육대학원 및 사회교육원의 정체성을 각각 확립해 교육과 사회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실시되어 지난 3월 31일 마감했다.

심사는 지난 4월 3일 울산대학교 본관에서 있었으며, 울산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건축분야 5명과 학교관계자 4명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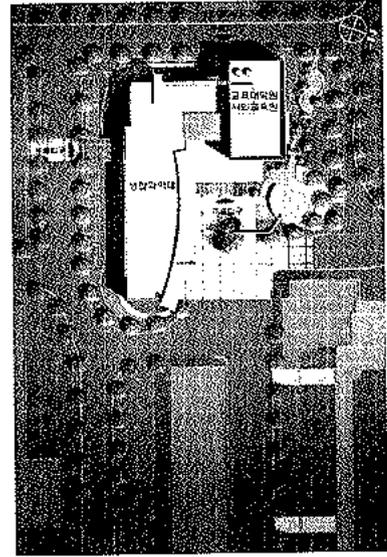
이 설계경기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지난 4월 13일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안을 당선작으로 (주)범건축(박영건)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당선작에는 설계권이 참가업체에는 제

작지원비가 지급되었다.

▶ 당선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구내
건축면적	1,986.25㎡
연면적	9,912.69㎡
규모	지상 5층(생활과학대), 지상 7층(교육대학원/사회교육원)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 마감	THK30 화강석 버너구이, THK24 복층유리
주차대수	34대(장애인지차 3대)
설계팀	고종준, 박종술, 신창식, 주영준, 신익주, 허웅, 이창훈, 허한, 김동원, 원종석, 송기황, 권영환

대지는 울산대학교 내에 위치하며 많은 건축적/건축적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학내에 위치하고 주변 건물군(조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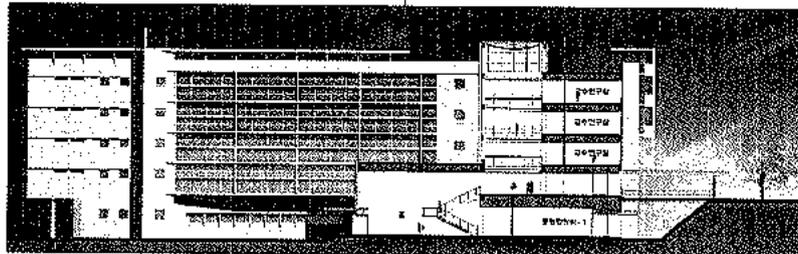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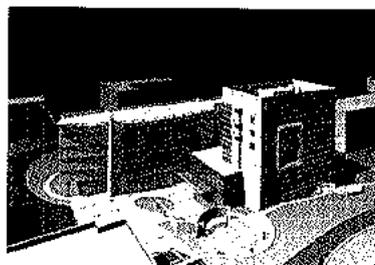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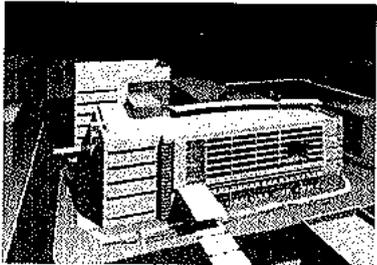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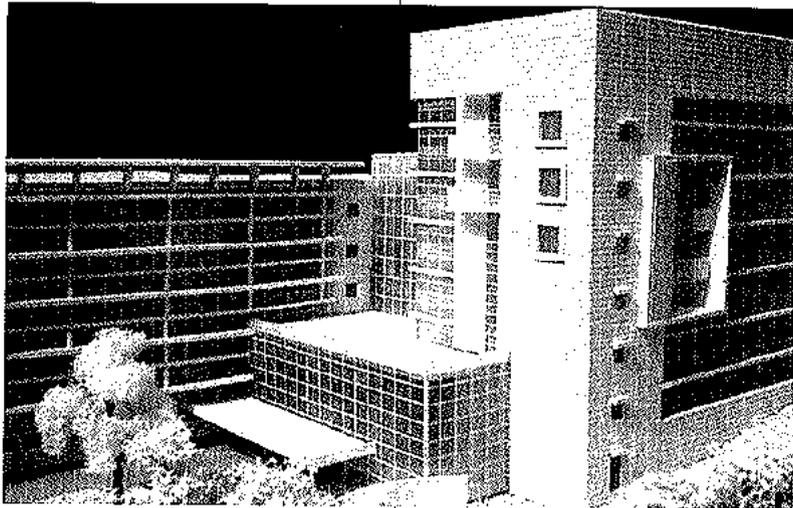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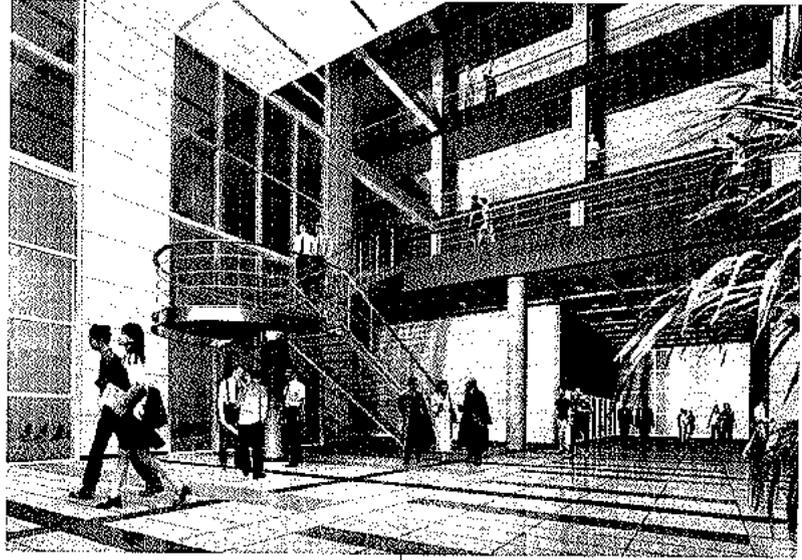
관, 경영관, 본관)의 중심에 있으며, 학내 내부 주순환 도로 및 중앙광장 인접해 있다.

마스터플랜 및 다양한 주변 건물 군과의 복합적 Context를 수용하려는 방식으로 이 계획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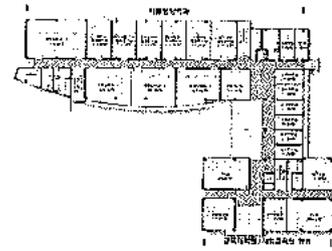
다양한 주변의 Context는 대지에 중앙광장으로 향한 작은 소광장을 형성하며, 강한 수평성으로 주변 건물군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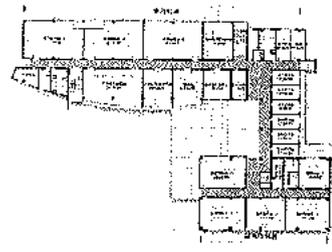
축을 수용하고, 높은(7층) 매스로 중심을 형성해 다양한 주변 건물군들의 축과 방향성을 적절히 조절하려 하였다. 생활과학관은 학부/대학원 과정과 동시에 외부의 일반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이 두 개의 매스로 프로그램(학부 과정과 일반인교육과정)을 해석하고, 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공용공간을 레벨차를 이용해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한 저층부를 구성하여, 대지에서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측 도로는 녹화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전면 광장은 산책로, 휴게시설과 작은 공연장을 계획해 레벨차를 녹화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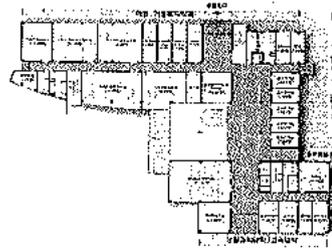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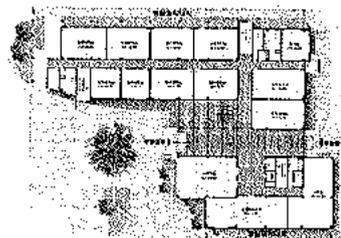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범건축사사무소(박영건·김관석)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산 29번지
건축면적	2,216.06㎡ (670.36평)
면적적	9,909.69㎡ (2,998.67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최고높이	31.75m
외부 마감	붉은벽돌, 노출콘크리트, 수성 페인트
설계팀	천성호, 김상연, 이흥신, 신정훈, 유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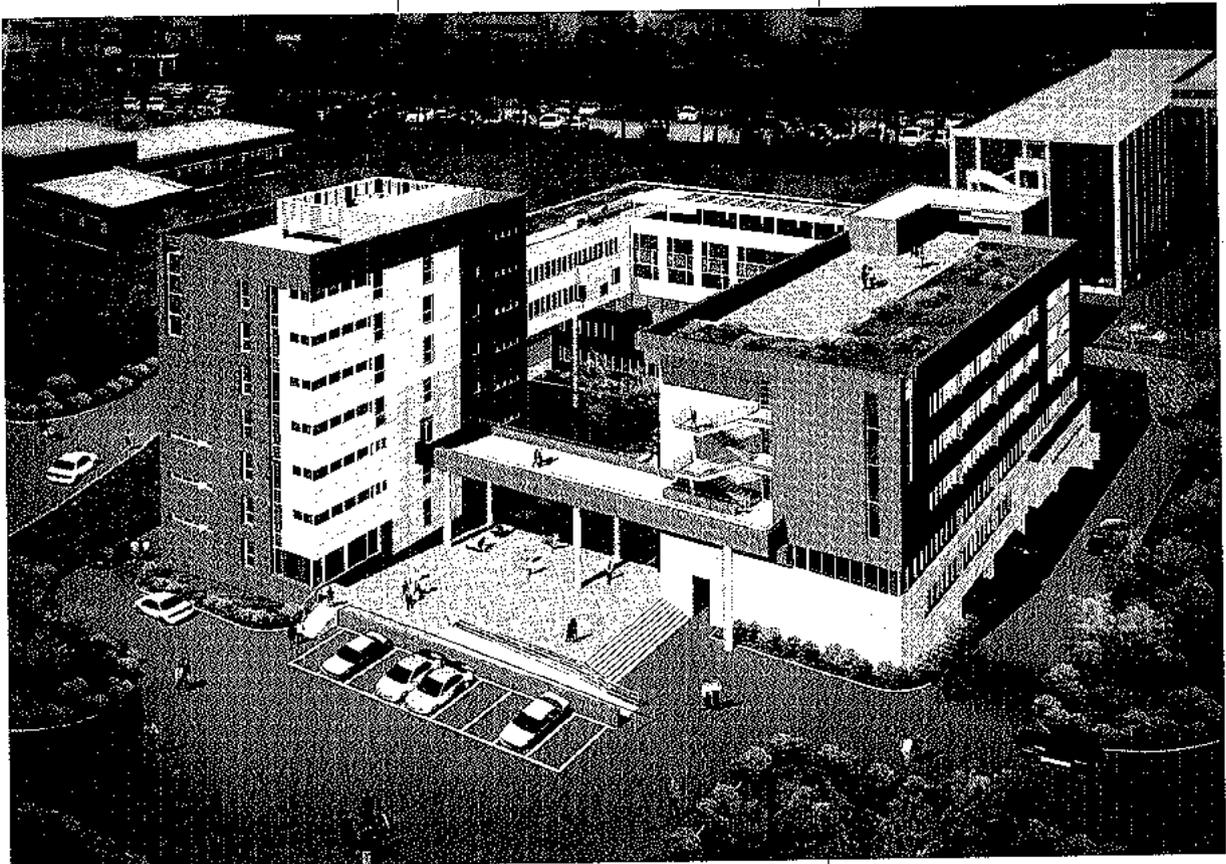
내부성을 가진 외부공간,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 여기에 학생들이 모이고, 토론하는 배움의 공간을 구성한다. 그리 넓지도 않으며 좁지도 않고, 열려있으나 한계가 지어지고, 외부의 자연을 건축적 틀을 통해 받아들이는 이 공간은 지면에서 살짝 들어올려진 바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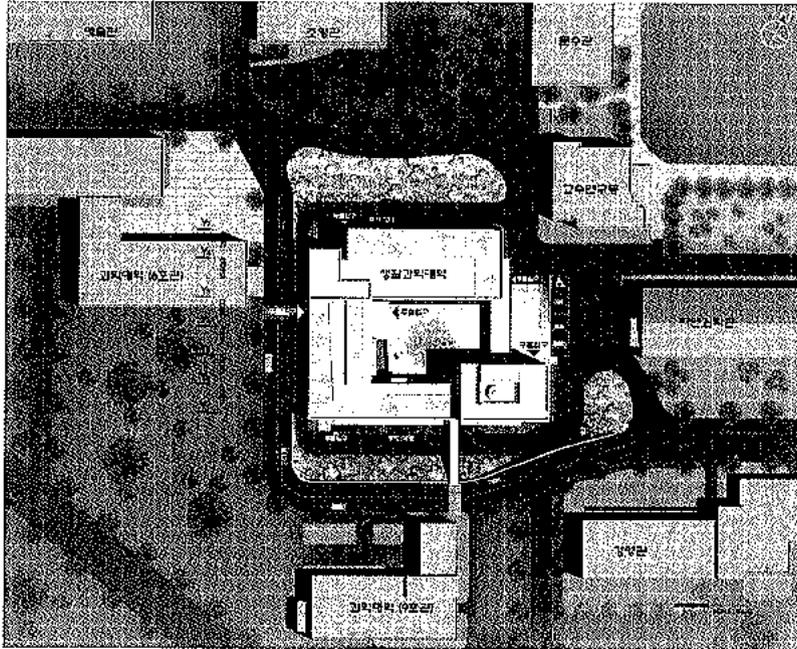
위에 대지레벨과 대지를 둘러싼 캠퍼스 순환도로 레벨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사회교육원동과 생활과학관동을 이으며, 학생들의 주 진입 방향에 대해 입구성을 부여하는 브릿지는 동축을, 그리고 두 건물동에 관입되어 부유하는 백색의 교수연구동 매수는 남축을 한정하여 외부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밝은 중정의 내부성을 더욱 강조한다.

평면계획은 주어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충실하면서 교육환경에 적합한 모듈을 사용하고, 각과 맛 기능별 독립성을 갖는 층별 조닝을 하고, 교수실은 환경적, 시각적 쾌적함을 갖게 하기 위해, 4, 5층 남향에 배치한다. 투명한 내부 홀을 통해 2층 서측 출입구와 중정의 주 출입구가 캠퍼스 동선의 흐름에 대한 연결성과 시각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대지 동축에 위치한 브릿지는 중정 내에서 학생들의 동선과 사회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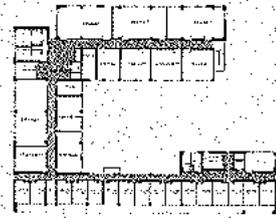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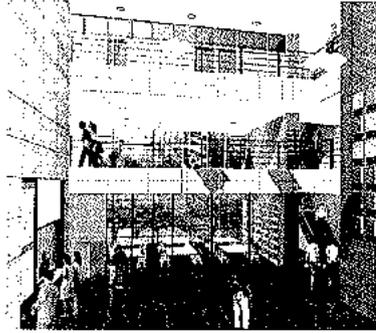
육원생들의 동선을 구분시켜 준다. 건물의 표피를 형성하는 적벽돌은 대학 캠퍼스 전체의 맥락에 따른 결정이며, 백색의 표피는 대지 북축에 위치한 조형관(백색건물)에서 인용되어 사회 교육원동의 내부 표피를 구성하면서 교수연구동을 통하여 매스로 변형되어져 생활과학동의 붉은 표피내부로 관입되면서 매스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또한 대학 캠퍼스 전체에서 생활과학관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7층 매스의 수직성은 동축으로는 브릿지, 남축으로는 교수연구동의 수평성과 조화를 이루며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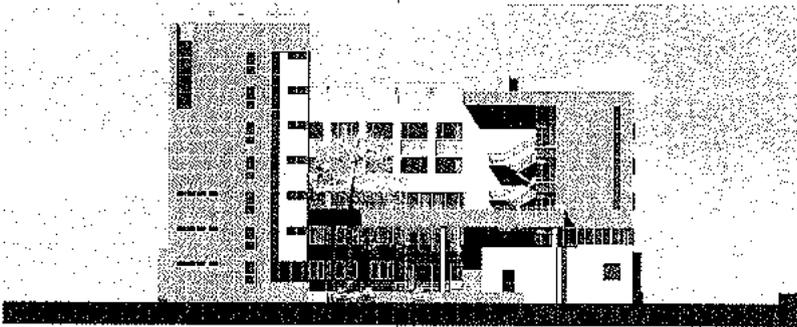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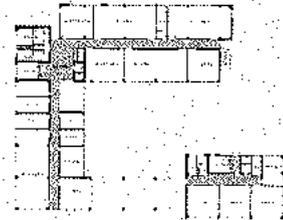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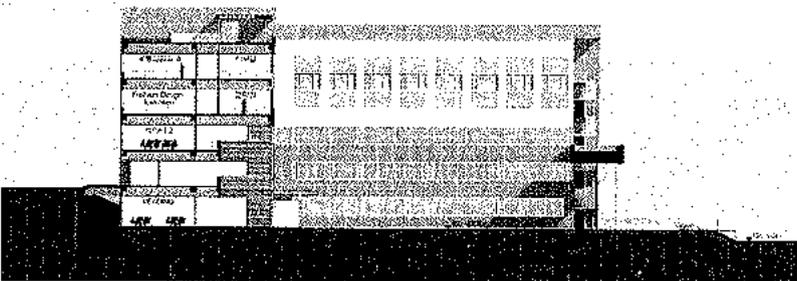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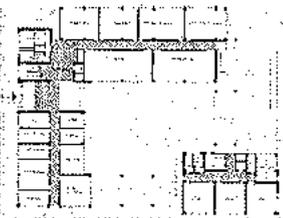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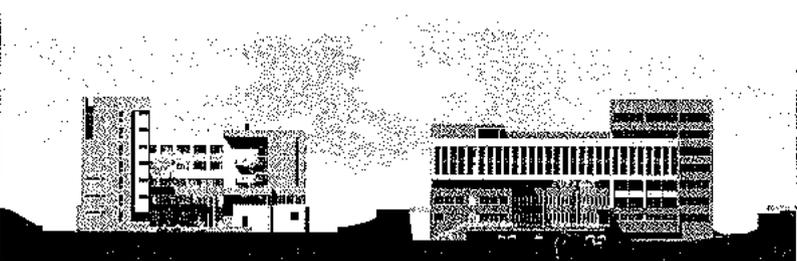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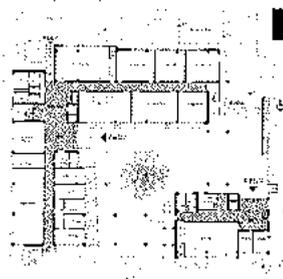
꺾기면도



2층 평면도



입면도



1층 평면도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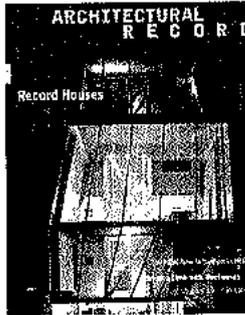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2001년 4월

최신 주택
들을 특집
으로 다루
고 있는 본
호에서는
Kazuyo
Sejima,
Shige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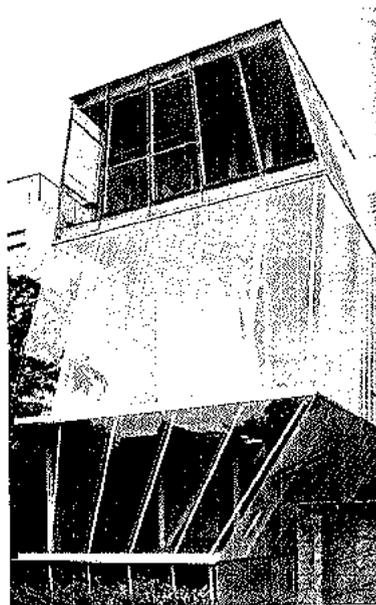
Ban, Rick Joy, Julie Snow 등의 작품
이 소개되어 있다.

■ 건물 타입별 연구 796 - 주택

매년 재료, 구성, 형태에서 독창적인
주택 작품들을 선택, 소개하는 본 코너
에서는 7개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 Kazuyo Sejima & Associates의 일본 도쿄 작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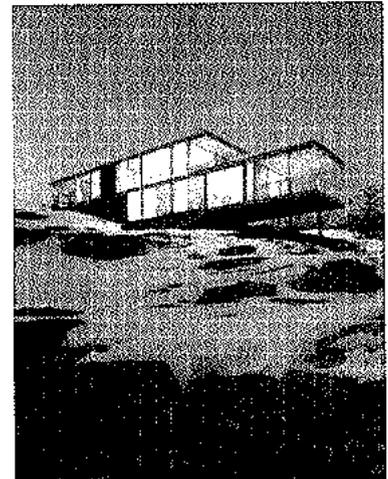
도쿄의 높은 지가와 까다로운 법규로
인해 많은 주택들은 매우 작은 건축 면
적을 갖게 되며 외부 조건에 의해 전체
형태가 정해지게 된다. 36㎡의 작은
건축 면적을 가져 '작은 주택'이라 명
명된 Sejima의 근작은 내부 기능에



Kazuyo Sejima & Associates의 일본 도쿄 작은 주택

따라 그 형태가 조직된 경우다. 총 4개
인 각 층은 이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벽 없이 계단실을 통해 공간을
구분했으며, 그 크기는 부여된 프로그
램에 맞게 각각 조절되어 비정형적인
전체 형태를 낳았다. 각각 다른 각도와
재료로 이루어진 면들은 이러한 형태
적 특성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실내의 기능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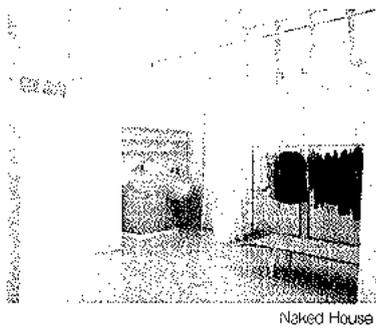
▶ Julie Snow Architects의 캐나다
New Brunswick Koehler 주택
해변가 암반 벼랑에 자리잡은 이 주택
은 Snow의 이전 작품과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을 취하
고 있다. Mies의 판스워스 주택을 2층
쌓아놓은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지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동시에 부
유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Julie Snow Architects의 캐나다 New Brunswick Koehler 주택

▶ Shigeru Ban Architects의 일본
사이타마 가와고에 Naked House
논 옆에 위치한 이 주택은 장방형의 단
일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직
부엌 시설과 화장실만이 설치되어 있
다. 개개의 방은 바퀴가 달린 이동장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내부 공간 어
디에나 배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간
을 구분하는 파티션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주택의 개념을 가장 급진적으로
해체시킨 사례이지만 우리가 주택에
기능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Naked House

그 외에 ▶Architectural Research Office의 미국 콜로라도 주택, ▶Atelier Hitoshi Abe의 일본 미야기 Yomiuri 숙소, ▶Rick Joy Architect의 미국 아리조나 Tubac Tyler 저택, ▶Wesley Wei Architects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택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 Hamptons 주택 프로젝트

뉴욕주 롱아일랜드 Hamptons의 "Houses at Sagaponac" 주택 프로젝트는 개발업자 Coco Brown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34명의 미국 건축가들이 단독 주택 설계에 참여하여 21세기형 주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Richard Meier에 의해 선택된 초대 작가에는 Stan Allen, Steven Holl, Reiser and Umemoto, Williams and Tsien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독립 구조 주택, 지하 주택, 패널 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형식 실험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Meier와의 인터뷰가 함께 실려있다.

■ 저서 소개

▶Joseph Rykwert의 The Seduction of Place: The City in the 21st Century, ▶Site Specific: The Work of Weiss/Manfredi Architects, ▶Eileen Gray에 대한 두 저서, ▶도시별 건축 기행 안내서 시리즈 신작 Mexico City: A Guide to Recent Architecture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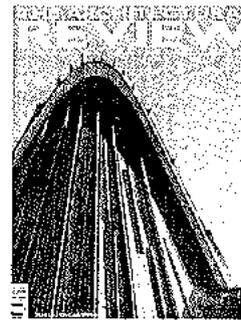
■ 기타

▶Daniel Libeskind의 미국 덴버 미술관 계획에 대한 간략한 소개, ▶설계 사무소의 위험 부담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안, ▶건축과 패션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비평,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현재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대한 보고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Eastern Docklands 재개발로 들어선 단독 주택 단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나무 주택들에 대한 소개, ▶Frank Lloyd Wright의 Unity Temple 보수, ▶새로운 건축 재료와 그 사용례들이 제시된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의 Immaterial/Ultramaterial 전시회 소식, ▶올 Pritzker Prize 수상자로 Herzog & de Meuron이 선정되었다는 소식 등이 게재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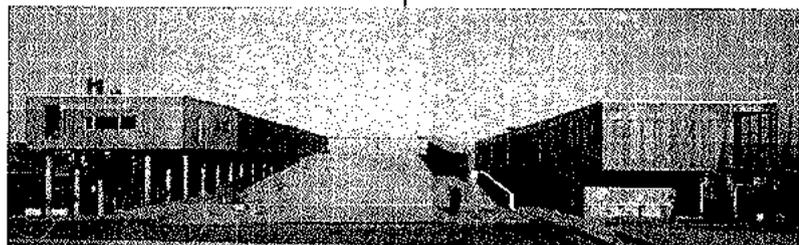
이 번호는 도시의 공공 공간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다. 도시 중심부 재개발, 선창가 등의 공원화계획 그리고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계획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게 소개되었다. 중국 베이징의 Forbidden City가 서양 건축가의 시각에서 분석되었다.



■ 근작소개

▶Mathias Klotz의 칠레 산티아고 고등학교

남미 아메리카 모더니즘의 주류를 이루며 남미의 지형 추상과 자연성은 단순한 기하학의 차용과 과감한 재료의 사용의 결과로 그의 작품에서 자주 논의된다.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산책"도 그의 작품 저변에 깔려있다. 지붕은 다섯 번째 입면으로서 항상 표현적 요소가 된다. 접근이 가능하며 하늘로 향하여 명상을 위한 장소를 형성한다. 대지는 사각형으로 길이방향으로 경사가 저있다. Klotz는 이 경사를 건물의 중요한 부분으로 끌어들었다. 교실과 사무실로 구성된 두 개의 직육면체 매스는 대지의 가장자리에 마주보고 놓여서 경사진 중심마당을 형성한



Mathias Klotz의 칠레 산티아고 고등학교

다. 전통 파티오 형식의 근대적 변형으로서 외부의 마당은 원경의 산과 하늘로 향하며 기능적으로는 학교의 운동장 역할을 한다.

▶ Bolles-Wilson의 네델란드 Hengelo 도시 재개발

Hengelo는 독일 접경지역의 작은 도시로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19세기 이래로 산업도시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에 의해 도시가 파괴된 후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 중심의 약화등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로 하게되었다. 변화의 계기는 시장과 철도역사이의 공장이 문을 닫게되고 공지가 발생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었다. 도시중심부 재개발에 대한 컴퍼티션이 열리고 Bolles-Wilson이 당선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차공간을 지하공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7.8m 구조그리드를 중앙 광장 지하에 적용하였다. 주차모듈에 의해 건물의 모든 형태가 좌우되었던 60년대 건축스타일과는 달리 Bolles-Wilson은 그 리드와 어긋나게 지상부 건물의 형태를 잡아나갔다. 그 결과는 Plan Libre의 20세기 후반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모든 지하의 구조체계가 철도역과 광장을 연결하는 아케이드에 일치시킨 것이며, 그 밖의 건물은 어긋나거나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Bolles Wilson의 네델란드 Hengelo 도시 재개발

기존 광장의 남서측 방향에 새로운 소규모 광장이 만들어 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백화점, 주상복합 건물을 계획하였다. 원거리에서 인지성을 높이고 강한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직적 요소로서 현대적 의미의 종탑이 신광장과 구광장의 접합부에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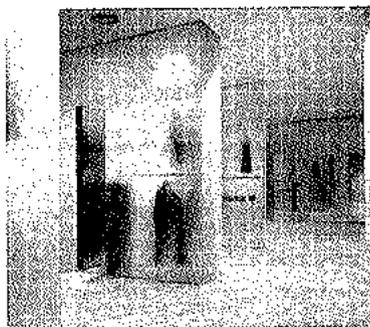
▶ Hubert-Jan Henket Architecten의 네델란드 Utrecht 박물관 개보수

▶ Carme Pinos의 스페인 Torrevieja 워터프론트 산책로 ▶ Patel Taylor의 런던 Dockland, Urban Square 등 도시의 퍼블릭 스페이스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Johnson Chou의 토론토, 패션샵 미니멀적 구성과 공간 연출로 특징지워지는 중국계 디자이너 Johnson Chou는 그의 작품이 전통중국 정원 구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예술적 영향은 러시아 구성주의로서, 한지에 의해 회전하는 물체나 무중력상태로 떠있는 상태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에서 나타난다. 토론토의 쇼핑센터의 중심에 위치한 이 의류점은 삼각형 평면을 가진다. 반투명 유리 파티션에 의해 형성되는 알코브에는 거울이 한지로 부착되어 때로는 천장을 반사하는 테이블로 변형된다.

그 밖에 ▶ Hanning Larsen의 덴마크 Zealand, 예술가의 스튜디오겸 주말주택 ▶ Tomas Carranza의 스페인 Cadiz, 법률사무실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Johnson Chou의 토론토, 패션샵

a+u

2001년 4월호

이번 호에서는 스페인의 건축가 후안 나바로 발 데 베 그 (Juan Navaro Baldeweg)의 건축작품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건축 공간안에서의 빛의 연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건축가는 남부유럽의 강렬한 태양광을 건축공간안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화화와 조각을 먼저 공부한 이 건축가의 회화작품과 함께 9개의 완성된 건축물, 2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건축가 자신과 아만다 사히터 (Amanda Schachter)의 에세이 등이 소개되었다.

■ 특집: 후안 나바로 발데베그

발데베그는 1939년 스페인태생으로 산페르난도 미술학교에서 화화와 조각을 공부한 후 마드리드 고등건축학교 (ETSAM)에서 건축을 공부하였다.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모교의 종신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의 예일, 하버드대학 등의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이다. 그의 주된 건축의 주제는 빛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빛에 대한 관심은 이번 특집에 게재된 그의 에세이에도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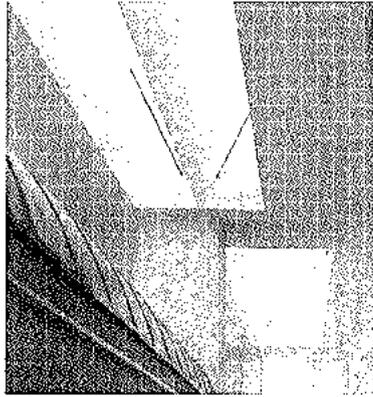
▶ 에세이: 빛속에서 보는 빛 - 후안 나바로 발데비그

발데비그는 남부유럽의 강한 햇빛과 그에 대응해 온 건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건축물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게 된 빛은 실내에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아울러 외부 공간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발데비그는 마티스의 '붉은 실내(Red Studio)'를 예로 들면서 이를 설명한다. 온통 붉은 색으로 칠해진 실내의 모습은 그 보색인 녹색으로 물든 정원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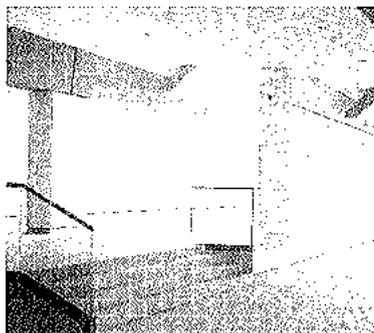
▶작품

소개된 작품과 빛을 들이는 수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빛의 집(House of the Rain, 1982)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었고 세구라강(Segura River)의 수력학박물관·문화센터(1988)와 살라만카(Salamanca)의 회의·전시홀에서는 광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으로 처리된 돔 구조물은 중앙부에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들이는 개구부가 있는 반면 돔의 주변부는 반사된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고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울워스(Woolworth) 뮤직센터의 도서관과 증축부분에서는 거대한 V자형의 천장이 빛을 밑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빌리아누에바 데 라 캐나다(Villanueva de la Canada)의 문화센터에서는 이것이 V자형의 보로 변형되어 빛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박물관·연구센터에서는 다시 한번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엑스투레마두라(Extremadura) 자치주청사에서 사용된 치양시스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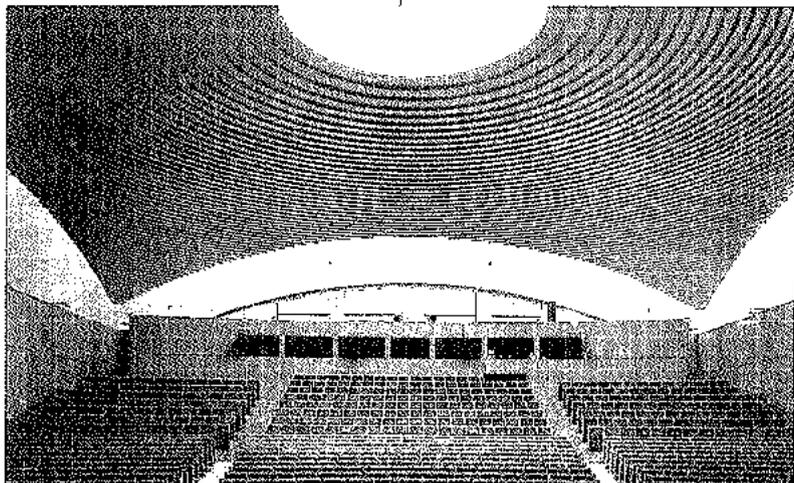


빌리아누에바 데 라 캐나다(Villanueva de la Canada)의 문화센터

라스팔마스(Las Palmas)대학 경제·경영학부, 법학부건물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마흔(Mahon) 재판소에서 사용된 수직 루버가 달린 긴 천장은 엑스투레마두라자치주청사 건물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그의 건물에는 여러 가지 표정의 빛이 공간에 침투해 오고 있다. 반사광은 반사광대로 직사광은 직사광대로 발데비그가 각자 의미를 부여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알타미라(Altamira) 박물관·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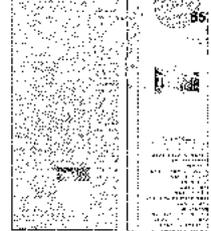
돔의 주변부는 반사된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고 있다.

건축문화

2001년 6월호

建築文化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라이트 아키텍처(Light Architecture)'를 다루고 있다. 제목대로라면 가벼운 건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가벼움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각각 가벼움(lightness), 판잣집(barrack)감각, 캘리포니아감각, '무버블(movable)/포터블(portable)'이라는 4가지 시점으로 대상작품을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특집을 마련하면서 진지함을 잃지 않았던 기존의 건축문화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하나 현대건축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벼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 특집: 라이트 아키텍처

▶라이트니스(가벼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의 파장과 가장 어울리는 '가벼운' 건축들이다. '가벼운 건축'이라고 했을 때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건축의 형태들이 여기에 분류되었다. 세장하고 날렵한 철골구조물들은 목구조물보다 더 가벼운 느낌을 주고 주로 백색으로 채색된 구조체들은 그나마의 시각적 무거움마저 한껏 날려보내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은 세지마 키즈요



외타케 키즈요(瀬部和盛)의 빛의 풍경(東村모건복지센터)

(妹島和世)의 'hhstyle.com', 와타베 카즈오(渡部和生)의 '빛의 풍경(東村 博)보건복지센터' 등 9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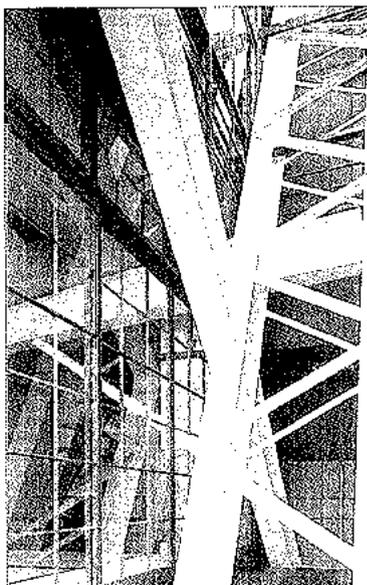
▶판잣집 감각: 가설건물이 주는 가벼움에 대한 감각. 이것은 가식이나 격식을 벗어난, 과잉의 것을 배제함에 의해 느껴지는 가벼움을 말한다. 라이트네스에서 보여지는 간결하고 잘 정돈된 구조체에서 느껴지는 가벼움과는 대조적으로 구조체 자체는 가설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육중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섞여있다. 그러나 가설건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담없는 구축행위에서 오는 그 가벼움. 즉 심리적 부담감에서의 가벼움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후께다 쿠니히코(更田邦彦)의 2명의 '아비타戶祭', 야하기 키즈로(宮本佳明)의 '젠카이 하우스' 등 6개 작품이 소개되었다.

▶캘리포니아 감각: 언뜻 이해가 잘 안가는 제목으로 여러 작품이 묶였지만 '캘리포니아 감각'이란 대중적인 합리성을 가지면서 밝고 한가로운 분위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 경솔하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즐거운 건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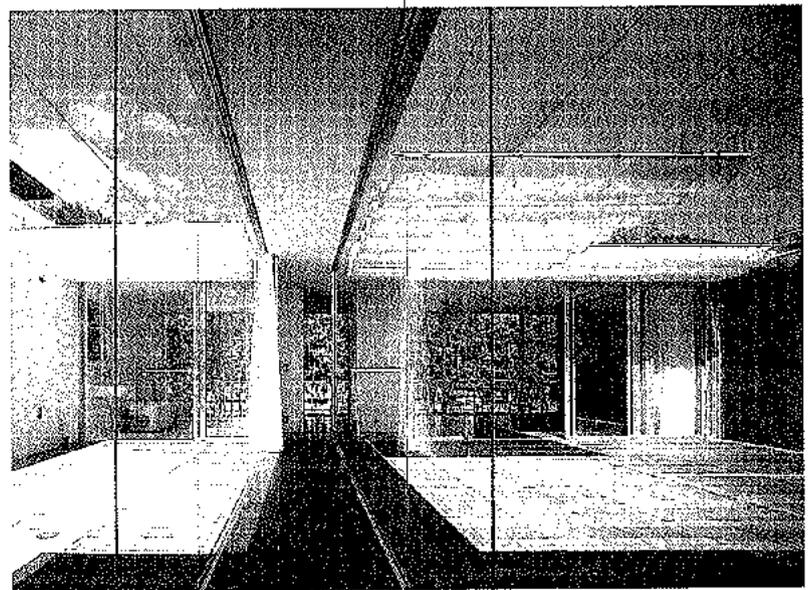
느껴지는 가벼움, 그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감각인 것이다. 주변 환경으로 열린 일본형 현대도시주택을 표방한 테쓰카 타카하루(手塚貴晴)와 테쓰카 유이(手塚由比)의 '하찌오우지(八王子)의 집'에서는 캘리포니아지방에서 보여지는 자연으로 열린 개방감마저 느껴진다. 이밖에도 공업제품의 조합에 의한 거대한 환경장치인 키타야마 코(北山恒)와 아키텍처 워크샵의 'PLANE+HOUSE' 등이 소개되었다.

▶무버블/포터블: 건축물의 가벼움이 커져간다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개념 등의 하나가 이동 가능한 건축물일 것이다. 텐트를 변형시킨듯한 건축물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쓰무라(津村)의 'FINAL HOME COAT & HOME ROOM'은 함께 소개된 텐트를 연상시키는 건축물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스즈키 토시히코(鈴木敏彦)의 '알루미늄의 다실'은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보여진다. 운반 가능한 크기의 부품으로 분해되는 이 다실은 알루미늄 골조와 천으로 된 외피로 일본 전통 다실의 공간감을 새롭게 해석해 내고 있다.

▶건축의 '가벼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도 보이는 위의 분류들은 논단과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카테고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말미암아 힘이 실리고 있다. 미나미 야스히로, 마키 노리오, 타나카 준, 사토오 코이치 등의 에세이가 게재되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알버트 프레이(Albert Frey)가 'Light Architecture in California'라는 제목으로 미국 서부에서 활동한 그의 작품들과 함께 소개되었다.



야하기 키즈로(宮本佳明)의 '젠카이 하우스'



테쓰카 유이(手塚由比)의 '하찌오우지(八王子)의 집'

신건축

2001년 5월호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대부분 회색의 콘크리트와 철재를 사용한 건축의 특징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



킬 정도로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소개되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부분 목재였던 얼마전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소개된 작품들은 타니구치(谷口)건축설계연구소의 '동경국립박물관 법룡사(法隆寺)보물실', 특집으로 꾸며진 하라 히로시(原廣司)의 '동경대학 구장(駒場)2지구 캠퍼스'의 건물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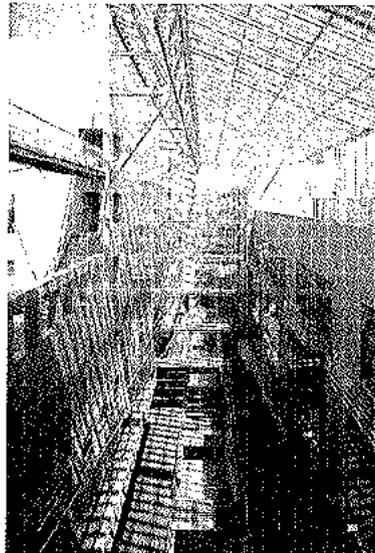
▶타니구치 건축연구소의 '동경국립박물관 법룡사 보물실'은 일본 전통건축의 구성을 현대건축에 표현하려 시도한 작품들 중의 하나로 평가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국가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축에 여전히 자국의 민족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물결의 움직임이 미세한 알은 연못, 그 연못을 향해 열려진 'ㄱ'자로 깎여진 포치와



타니구치 건축연구소의 '동경국립박물관 법룡사 보물실'

박물관 로비 공간은 동양의 목조건축물에서 보여지는 깊은 처마선에 의한 공간을 확대시켜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유리벽면으로 개방시킨 로비의 외벽 앞에 만들어진 철제 격자의 이중벽은 목조창틀에서 느껴지는 반투명성을 연상시키고, 세장한 원기둥은 일본 전통건축의 날렵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도 하다. 50년대 이후 일본의 모더니스트들이 실험해 온 주제, 즉 모더니즘의 간결한 조형어휘와 전통건축의 어휘를 융합시킨 형태를 나타내 보인 작품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라 히로시의 '동경대학 구장2지구 캠퍼스'의 기본 구상은 동경대학 캠퍼



하라 히로시의 '동경대학 구장2지구 캠퍼스'

스 계획실과 동경대학 시설부에서 이루어졌다. 갈수록 늘어가는 캠퍼스 시설들의 원만한 수용을 위해 '3극 구조'라는 종합적인 캠퍼스의 재구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캠퍼스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동경대는 그 구체적인 건물의 설계를 교토역 청사

등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은 바 있는 하라 히로시에게 맡겼다. 동경대의 이러한 캠퍼스 계획은 본 호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져 간단한 소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B동에서 F동까지가 연결된 거대한 매스는 교토역 청사를 연상케 한다. 이 긴 매스는 중앙에 아트리움을 두고 양분되고 있는데, 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집약된 캠퍼스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다.

▶쿠마 켄고(隈研吾)의 타카사시 주차장은 거대한 건물이 주변 경관에 미



쿠마 켄고(隈研吾)의 타카사시 주차장

치는 영향에 대해 건축가가 주목한 건축물이다. 쿠마 켄고는 거대한 주차장 건물은 건축의 영역임과 동시에 토목의 영역에도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건물의 길이가 150여m에 이르고 수 개층에 놓여진 주차공간을 지나는 차로의 길이가 수 km에 이르는 이 건물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말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는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이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주목했다. 주차장이라는 건물은 단순한 기능적인 공간의 배치를 끝낸 후에는 단조로이 반복되는 입면의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물 중에 하나이며, 이 입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건축가는 지적하고 있다. 철재와 유리의 루버로 이루어진 이 건물의 입면은 주차장 건물에 어느 정도의 기념비성마저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2)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선암사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 연재 목 차 〉

1. 병산서원
2. 소재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독락당
9. 영선암



산사의 아침

조계산의 두 고찰

조계산은 해발 850m밖에 안되지만 백두대간의 여느 명산 못지 않은 넉넉한 깊이가 느껴진다. 그 감각은 지리산이 있는 이웃 삼진강 너머보다 주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계산 정상을 좌우로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순천시 승주면과 송광면, 보성면에 걸쳐 있는데, 그 고을들이 모두 특유의 생명력 있는 땅 내을 나는 곳이어서 더 광활한 느낌이 든다.

조계산은 두 대찰을 앞뒤로 품고 있다. 서쪽으로는 송광사가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선암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 두 고찰은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다. 송광사는 화엄경에 나오는 여러 부처의 불전 및 보살전들이 위계를 갖고 준비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사찰 도시 같은 느낌을 준다. 또 삼보사찰

의 하나로써 명성이 드높아 평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항상 입구 주차장에는 대형 관광버스가 줄대어 서 있고 그 앞으로는 상가가 준비하다. 그런데 선암사는 산에 파묻혀 수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선승들처럼 아주 조용하고 명상적인 느낌으로 발길을 끄는 곳이다. 그리고 송광사가 승보 사찰로서의 불교사적 의의와 화려함에 의해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오는 곳이라면, 선암사는 특별히 그곳 분위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반복해 찾는 곳이다.

승선교

산사에 오르는 길은 그 자체가 수행과정처럼 느껴진다. 특히 선암사 입구로부터 경내까지의 길은 길고 맑은 계곡과 함께 하여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기 알맞은 분위기다. 철따라 변하는 숲내음과 맑은 공기에 저절로 마음이 씻겨질 것 같다. 입구로부터 경내까지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산사의 의미를 복돋우는 여러 표식이 나타난다. 길을 가다 조계산 등산로 간판이 세워져 있는 광장과 붉은 벽돌 기둥에 철제로 된 옛 대문을 지나면 길 좌우로 조계산 선암사, 선교양종 대본산(曹溪山 仙岩寺, 禪敎兩宗 大本山)이라고 쓴 표지 입석과 부도 밭이 나오고, 더 가면 목장승이 길 양옆에 세워져 있다. 그 목장승에는 호법선신, 방생정계(護法善神, 放生淨界)라고 쓰여 있어서, 마을 어귀에 세워진 것들과 달리 불교 의미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그곳을 지나면 물줄기와 교차되게 승선교가 걸쳐 있는데, 그 멋으로서 선암사는 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승선교는 선녀가 오르는 다리라는 뜻의 이름이다. 그러나 승선교는 그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조형적 아름다움에 의해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계에 들어서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 멋에 취해 걸다 보면 지금까지 아무리 고달픈 길을 걸어온 나그네의 무거운 걸음걸이라도 일시에 기뻐해줄 듯 하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본바탕과 상관없이 선량해질 듯 하다. 사람들은 그 승선교를 마주하면 침묵에 빠지게 된다. 간결하고 담백함이 뽐는 힘이 마음에 미치기 때문이다.

승선교의 조성 원리는 단순한 것이다. 다른 홍예교와 마찬가지로 아치돌을 기하학적인 반원을 이루며 가지런히 쌓은 후, 그 위를 거칠게 다듬은 돌로 성벽처럼 쌓아 지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균형에 의해 특별한 생명력을 얻었다. 돌의 물성과 시각보정이 된듯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한 기하학적 완결성, 크기와 두터움이 잘 어우러졌다. 거기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조형성은 계곡의 자연 상태의 너럭바위들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그 인위의 손길을 더 귀히 느껴지게 한다. 계곡 물이 불어 그 다리 밑 뿌리까지 차 흐르면, 물에 비친 실루엣과 함께 완전한 하나의 원을 이루는데, 그 위로 난 길의 완만한 곡선과 완급의 조화를 이루며 멋이 더해진다.

그러나 것처럼 명품의 백자 달 항아리 같은 맵시와 후박한 멋을 지닌 최대의 보물도 이 시대의 화를 다 면하지는 못하였다. 지금도 무삼코 그냥 지나치다 보면 멀쩡한 듯 싶지만, 해체 복원한다고 손을 대었을 때 아치선은 밀그러지고 좌우로도 뒤틀려 균형이 손상되고 말았다. 뒤에서 보면 자동차가 다니도록 길을 넓히려 석축을 밀쳐 쌓아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생명체가 죽어서 생동감 있는 표정이 사라지듯이 조형물이 균형을 잃으면 다시 돌무더기의 느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고찰의 편안함

흔히 선암사를 한국 최고의 고찰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이곳의 건립 연대가 월등히 오래되었거나 보물로

지정된 건물이 많아서가 아니다. 이 곳 창건기에는 529년 아도화상이 건립했다고 되어 있으나 많은 사찰들이 건립 연대를 올리기 위해 불교 역사 초기 유명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선암사의 주요 건물들도 모두 임진왜란 후에 중건된 것들로서 그리 오래된 편이 아니다. 그런데도 선암사가 한국의 최고 고찰로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근래 전국의 여타 사찰들이 한해가 다르게 속세적 느낌으로 변해가는 것과 다르게 이곳은 옛 사찰의 느낌을 변함없이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찰의 느낌을 좋아한다. 그것을 현대문명과 다른 흔하지 않기에 생기는 심리로 여길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옛 것 자체에서 풍겨나는 특유한 좋은 감각이 있다. 첫째로 그것은 오래 전 뒤여진 터와 건물이 세월을 머금고 으로서 생기게 된 물성의 힘이다. 우리는 간혹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석탑과 부도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부재에서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리고 고찰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현대문명과 달리 불편함이 느껴질 만큼의 자연스러움과 여백적 감각이 함께 하는 느낌이다. 현재로부터 옛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의 원시적 체취와 만남으로 해서 생기는 청정한 느낌이다. 사람들이 산사에 갈 때는 대개 그 느낌을 기대하고 간다. 사실 사찰의 참 멋은 형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수도 도량으로서의 맑은 기운인 것이다. 또 그것이 사람들이 고찰에서 연상하는 이미지이다.

나이가 그 편안함은 수행 공간으로서 종교적 힘을 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번듯한 불전이 보여져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지나치면서 느껴지는 감각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곳 선암사는 것처럼 경내를 거닐며 경건한 분위기가 조용히 마음에 쌓일 수 있는 곳이다. 각자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세인들이 삶터에서 나와 잠시일망정 해방되어 심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자비로운 부처님 마음 한 자락과 스치는 것이리라.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일상의 공부 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찰이 구원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암사는 수행자 뿐 아니라, 미물 같은 모든 생명체의 숨결이 함께 숨쉬고 있다. 불사의 인위의 손길에 의해 자연의 생명력이 파손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불상이 모셔져 있는 불전 어디엔가 수많은 곤충이 깃들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방영한 일이 있는데, 마물 이상의 생명의 귀함을 받는 존재들로 보였다.

터를 감싸는 산자락과 경내를 가로지르는 길

전국 사찰들은 경내의 넓이와 건물의 수에 따른 규모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어우러짐으로 사람들에게 각

각의 특별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 느낌을 구분지어 보면, 내소사, 개암사, 개심사는 양지녘 돌담에 기댄 채 봄벌을 찍고 있는 듯 한 분위기다. 그에 비해 부석사, 범어사 등은 대웅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교리적 상징 체계로 꾸며 놓아서 무겁고 격박있게 느껴진다. 또 불국사는 격식에 더 나아가 모든 경내에 조형미가 넘쳐 나도록 잘 꾸며 놓 것이 오히려 차분한 눈 멧의 여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화엄사, 금산사, 범주사 등은 의도적으로 장대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꾸민 태가 나 보인다. 그에 비해 선암사는 편안하면서도 깊고 경건한 기운이 함께 느껴진다.

선암사의 진입은 어느 절보다도 호호미 길게 느껴진다. 입구로부터 경내까지는 승선교 너머로도 강선루, 천왕문, 불이문 등 과정을 차례로 지나고 기쁘기 어려운 자연스런 길의 흐름을 따라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천왕문 입구까지 간직되었던 자유스러움은 휘돌아진 길에서 직각으로 꺾여 나 있는 일주문 계단을 들어서면서 갑자기 엄숙해진다. 그리고 그 엄숙함은 도식적 질서로 이루어진 대웅전 앞마당에 이르러 고조된다. 하지만 선암사 경내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은 거기로서 다이다. 대웅전 영역은 대청으로 서 있는 석탑과 주불전의 웅대함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은 규율에서 벗어난 듯 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은 전체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총체성 안에서 느껴진다. 것처럼 자율적 총체성 안에서 개별적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이 사찰의 덕목이다. 도식적 질서와 자유로움이 조화되어 있어서, 선암사의 가람 배치는 축과 위계 그리고 탑과 불당의

관계 등 기존 사찰의 분류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일주문에서부터 응진전까지를 직선으로 간다면 꽤 먼 거리이지만, 각 영역이 인위적인 축선 상의 거리로 구속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찾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걷는 거리의 피곤함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응진전은 원통전이 앉은 축대를 따라서도 갈 수 있지만 뒤로 돌아 별도의 길로도 갈 수 있으며, 독립된 미당을 갖고 있어서 별개 암자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 외의 시설들도 자율적인 개별 영역을 갖게 되어 있어, 전체 안에서 다양한 장소성과 건축적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그 독특한 분위기가 경내를 가로지르는 길로부터 생겨난다. 대웅전 뒤편 지형치가 큰 축대 위에 놓여진 길로 접어들면 마치 경내를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치 마을길을 거닐듯 경내의 여백적 분위기를 지나면서 바람결과 푸른 하늘을 한가롭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저만치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세를 그윽히 느낄 수 있다. 대웅전과 요사체의 뒷맵시가 멀리 보이는 산자락과 함께 어우러져 보인다. 어떤 때는 경내를 걸으며 감쌈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경내를 둘러싼 산자락이 더 뚜렷이 보였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몇 채의 다른 건물들과 만나지만 무심하게 있는 듯 보인다. 경내 일곽에는 키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른 전나무, 오랜 세월로 기품이 베인 매화나무, 그리고 각종 화초 등이 자연 지형을 따라 적절히 놓여 있는 건물과 합해지면서 다양한 시선과 분위기를 이루어 내고 있다. 또 한편에 일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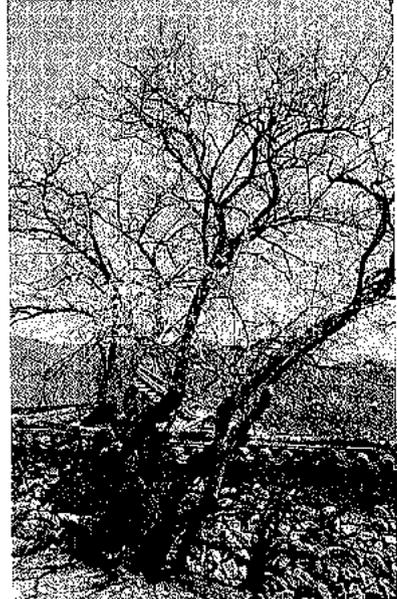
2



3



4



5

한적한 채소밭이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만가의 동네 길이라면 애초부터 집들 파의 일체성을 의식하지 않아도 무방할 터일 것이다. 그러나 선암사는 자유스럽게 흩어진 듯 해도 마치 끈이 엮여진 듯, 경내 어디서나 그 품을 느낄 수 있고, 아무리 발버둥치며 달아나려 해도 그 도법의 힘을 벗어날 수 없을 듯 하다. 그것은 이곳을 들어올 때 이미 각자의 마음에 생긴 관념의 끈인지도 모른다. 그 기운이 없다면 그냥 흩어짐 자체일 뿐일 것이다. 선암사는 흩어지지 않게 감싸이는 기운이 있기에, 그 안의 자유로움도 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예기치 않게 접하게 되는 장면들

사람들은 건축적 감각이 인위로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축은 지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느낌은 대지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산지 사찰은 건물이 놓이는 지형 및 주변 사물이 갖는 형태와 크기, 빛과 그늘 인위와 자연의 융합 등에 의해 표출되는 복합적인 느낌이 작용한다. 그런 관계로 예기치 않게 발견되는 심미감이 있다. 미학자 하르트만은 건축예술의 전경과 후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전경은 실제 지어지는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양상이며, 후경은 그 외 요소로 인한 정서의 생겨남이다. 그리고 건축의 예기치 않은 멋이란 바로 건축예술의 후경작용과 관계 있다 할 것이다.

선암사에는 예기치 않게 마주치는 좋은 장면이 많다. 원통전에서는 건물 내부가 아닌 축대와 건물 사이가

이루어 내는 공간감이 짜릿하다. 원통전의 출입은 팔상전과 불조전 사이 골목길처럼 된 공간을 들어가다 계단을 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불상이 모셔진 건물 내부까지 연속되며 엄청난 깊이감이 생겨난다. 마치 고딕성당 내부의 신랑에서 열주로 생긴 공간적 깊이감과 같다. 또 무우전처럼 암자처럼 독립된 영역으로 된 경내의 건물에서는 평온한 외부 이미지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지는 예기치 않은 장면과 만나게 된다. 경내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개별된 뜰에서 느껴지는 폐쇄성의 상반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무우전 모서리 문으로 들어가면 어스름한 부엌간이 있고 그 어둠 너머로 빛이 비추는 뜰이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데, 밖에서 보면 평범하게만 느껴지던 그곳이 안에서는 별천지처럼 자기 세계가 펼쳐진다.

전통건축에서 부엌 공간은 참 소중하고 질박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바탕에 어둠이 있어 빛이 소중히 감지되는 느낌 또한 좋은 곳이다. 사찰일망정 부엌은 속인들 삶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폐합된 형식의 뜰은 자연스러운 경내와 달리 정제된 감각을 일깨운다. 그런데 그 뜰의 느낌은 외부로부터 접근 경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과정 공간은 헛간 일수도 있고 수행 공간 일수도 있다. 뜰을 가운데로 들어설 때는 그 영역을 중심으로 예측한 대로의 경관이 펼쳐진다. 하지만 무우전처럼 모서리로 비스듬히 들어가서 안을 인식하게 되는 장면은 예기치 않은 느낌이 커지는데, 경내 다른 건물들도 대개가 무우전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것처럼 선암사는 경내의 여백적 자유로움과 정제된 공간 사이에서의 긴장과 이완의 드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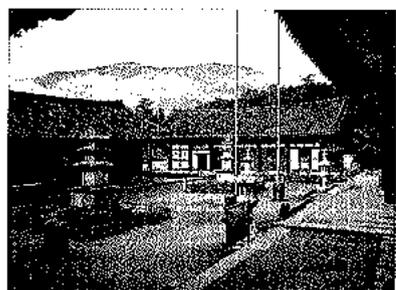
1. 입구문으로부터 뽕종루 루히르 치는 집입길
2. 음주문을 모시는 커닝길
3. 선암사 경내 입구의 후돌이진 길
4. 경내에서 나가며 보이는 승선교의 모습
5. 선암사 대회
6. 승선교위로 치는 길
7. 승선교
8. 강선부 루히르 연속되는 길
9. 대웅전과 우측 요사채 사이의 길
10. 두식적 절사길 갖춘 대웅전 광역



8



9



10

리마가 펼쳐지기에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곳이다.

정제된 공간이 주는 고요한 감각은 사람들이 한국전통건축에서 좋아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옛 사람들은 자연보다 인위를 더 소중히 생각했을 법하다. 정제된 공간은 질서로부터 오는 힘과 같은 감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과 대비됨으로서 강조되어 느껴지는 감각이다. 그리고 정제됨은 마치 추상화처럼 자연의 힘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그 때의 인위는 현재처럼 자연 파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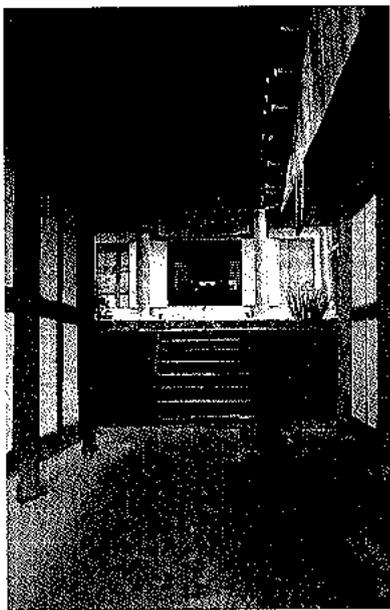
산사의 새벽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새벽은 인간이 새로이 정결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다. 인간 삶에 잠시나마 그런 순간이 있음으로서 세파 속에서 다시 맑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새벽 어둠을 사르며 시작되는 산사는 그런 새벽의 느낌을 가장 선명히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사찰에서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도량식을 한다. 도량식이란 사찰에서 기상을 알리는 것인데, 당직 스님이 대웅전 앞마당 탑을 돌며 목탁을 치며 깨운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 도량식에 깬 다른 스님들이 범종루에 올라 불전사물을 쳐서 세상 모든 존재를 깨운다. 그 새벽 산사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각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아침 예불을 올린다. 맑은 날 산사 마당에서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밤하늘의 쏟아질 듯한 별을 볼 수 있다. 아직도 동이 틀 때까지는 짧지 않다. 그렇지만 산사의 어둠

속에서 동트임의 기다림은 마음을 성결케 한다.

선암사의 예불 의식은 다른 곳보다 더 길고 격식 있게 느껴진다. 전에는 매일 그 이른 시각에 맞춰 일어나는 스님들의 계율에 매인 생활이 고달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은 스님들에게 그 시간이 기다려질 듯이 생각되었다. 대웅전에서 독경을 되뇌며 예불을 올리고 계신 스님들의 마음이 등불처럼 환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예불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이 될 것이다. 전에는 절에 와서 깨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수행만도 기쁨일 것 같았다. 그렇게 마음을 비운 채 불상 앞에 나아가 불경을 읽고 부처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닦여지는 수행 일거라고 생각됐다. 스님들의 도심 분규 때는 도대체 뭐뎀에 수도를 할까 의문도 들었는데, 이런 때 수행자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좋다. 그 수행자들이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그 생활의 선택 자체가 힘든 결단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스스로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5시경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열 지어 나왔다. 도시인에게는 이른 시각이지만 여름 새벽 산사는 벌써 적당한 활력이 생겼다. 벌써 주변이 사뭇 밝아 오고 있다. 대웅전 예불을 마친 스님들 중에는 또 다시 팔상전 원통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 사찰에 석가모니 부처를 모시는 대웅전 말고도 다른 상정의 불상을 모시는 많은 전각이 지어지는 것을 낭비처럼 여긴 적도 있었으나,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이름의 부처님들은 다른 시간에 사는 중생을 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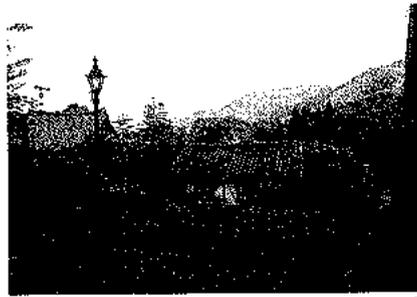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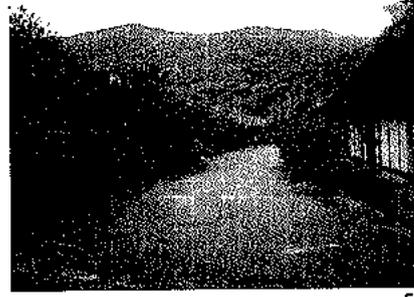
2



3



4



5

하기 위함이고, 보살들은 부처님의 여러 다른 인격을 독립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의미 말이다. 그것은 인간의 변화무쌍한 마음이 필요로 하는 각각의 상일 것이다. 스님들이 대웅전에서 새벽 예불을 끝내고, 여러 다른 보살상 앞에 나가 다시 또 예불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 전각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스님들 마음 안에도 만가지 마음이 일 것이고, 각각의 마음에 맞는 뚜렷이 의지할 대상에 나아가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상좌 스님 한 분만은 대웅전에 그대로 앉아, 크게 목탁을 두드리며 울림이 있는 묵직한 목소리로 독송하셨다. 그 성심이 담긴 음성이 힘차고 편안히 들렸다. 이곳 저곳을 산책하며 발걸음을 옮기면 저 멀리서 나직이 새로운 느낌으로 들렸다. 산사에 오면 스님들만큼 넉넉히 사시는 분들도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대웅전 말고도 여러 전각이 있고, 따로 공부와 살림 공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사를 둘러싼 생명의 기운이 살아 있다. 그래서 수행에 적합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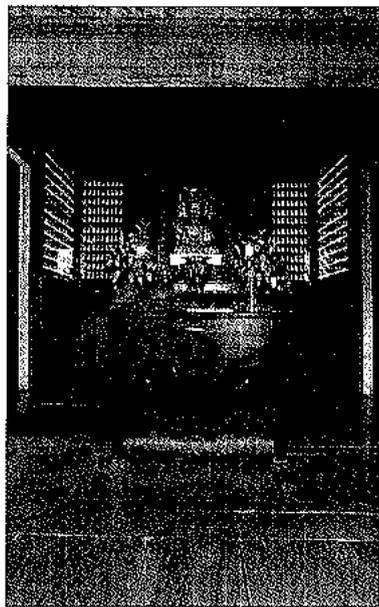
산사는 수행자가 주인이어야 한다. 답사나 관광이니 하며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엄숙한 공간이다. 스스로 그토록 준엄한 삶을 선택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래는 불상마저 주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부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모두 깨달음에 도달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수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실 것이다. 새벽 예불 때 형상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마음과는 만날 수 있고, 사물보다 더 큰 실체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문객은 새벽 산사에서 절의 실제 사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정신은 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꽃이 끊이지 않는 경내

일반인들이 선암사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사랑과 자긍심 또한 지극하다. 그런데 한번은 수선암에서 수행하시는 비구니 스님에게 선암사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물어 본 일이 있었다. 그 때 스님 대답이 꽃이 끊이지 않는 점이라고 했다. 봄은 꽃망울을 터뜨리기전 땅과 대기의 기운으로부터 느껴온다. 아직 산천은 앙상한 상태에서 사람 마음 안에서도 뭔가 달아오르는 기분이 찾아들 때, 그리고 귀한 생명력을 지닌 무엇인가와 마주치고 싶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매화이다. 그 매화의 참 멋은 겨울의 모진 추위의 느낌이 채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데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광양의 매화마을처럼 조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뿌리 내린 땅과 함께 오랜 고락을 함께하며 피어나는 느낌이어야 제격일텐데, 선암사에는 그 수령이 무려 6백년이나 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가 있어서 그 참 멋을 느낄 수 있다.

선암사 매화를 이곳 사람들은 줄여서 선매화라고 부른다. 그 선매화가 경내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고 나면 이어서 겹벚꽃, 영산홍, 자산홍, 철쭉, 홍도화, 작약, 난초, 밥태기꽃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꽃을 피운다. 그리고 4월 중순이 지나면 꽃의 향연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겹벚꽃이 시방에 흐드러지게 피어서, 선정에 드는 고요한 이곳이지만 잠시 들뜨게 한다. 그러다 여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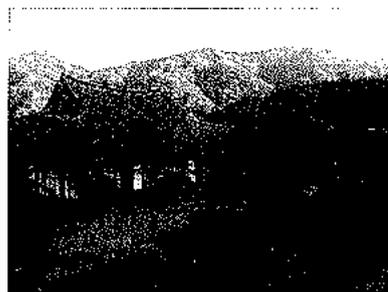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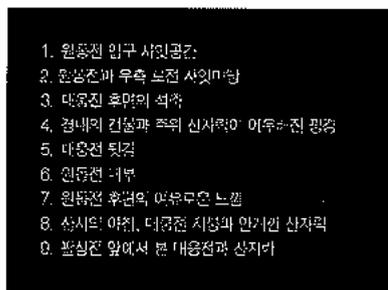
6



7



8



9

1. 원동전 입구 사잇광경
2. 원동전과 우측 보살 사잇마당
3. 대웅전 후방의 석각
4. 경내의 건물과 주위 신사역이 이루어진 풍경
5. 대웅전 뒷경
6. 원동전 내부
7. 원동전 후방의 여유로운 느낌
8. 성사의 야경, 대웅전 지붕과 안가간 산자락
9. 팔십전 앞에서 본 대웅전과 상지라

로 접어들면, 이까진 석축위에 수국, 목수국, 백일홍이 오래도록 피며, 또 가을에는 국화와 상상화(잎과 꽃이 서로 다른 계절에 나오는데 잎은 봄에 꽃은 가을에 핀다)가 있고 단풍이 있다. 그리고 겨울은 설화가 피어 사람들의 마음에 훈훈한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선암사에서 꽃은 장식적인 멋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 각각의 꽃이 필 때마다 선암사 경내는 건축물이 갖는 고정된 이미지를 넘어 생명력 있는 산사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청정한 공기가 서걱거리는 차밭

경내를 지나온 조용한 발길은 중국에 사찰 뒤편의 차밭에 닿는다. 넓고 평온한 차밭은 언제나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한 싱그러움을 발하여 이 곳을 한층 명상적인 분위기로 느끼게 한다. 그 맑음은 태초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어서 수행에 의해 해탈에 이른 상태로 되어짐직하다. 그래서 방문객에게는 수행과 속세의 괴리감마저 없게 느껴졌다. 여기의 차나무는 이 곳에 자생하여 생을 보내고 있는 진정한 주인이다. 자연생 차나무는 자기 줄기의 3배나 깊이 뿌리를 내려 뻗는다. 그리고 표피의 거름기가 아닌 그 깊숙한 땅의 지기로 자라는데, 그 차나무도 마치 수행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차는 예로부터 맑음을 상징하여 수행자들이 즐겨 마시던 기호품이다. 차도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세를 바르게 하여 귀한 마음으로 마시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경내에 이웃하여 맑음의 상징인 자연

의 자생 차가 자라고 있는 것이 사찰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이 경내를 벗어나면서 만나는 차밭의 청정함이 있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맑은 마음으로 속세로 돌아갈 수 있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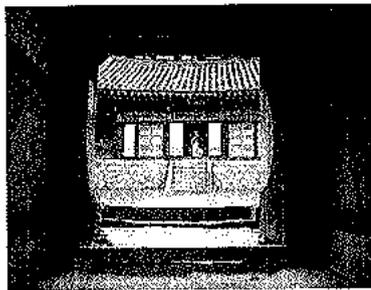
최근의 변화

요새 사찰마다 박물관 건립이 유행하고 있다. 통도사, 수덕사 등 소위 유명 사찰일수록 거창하게 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박물관 건물들이 기존 사찰의 불전 등 주요 건물보다 규모를 훨씬 더 크게 되어서, 경건한 수행 공간에 위압감을 주며 전통적으로 느껴 온 분위기와 다르게 되기 쉽다. 그리고 이대로의 추세라면 향후에는 박물관에 의한 새로운 사찰 형식이 확률적으로 정립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도량의 경건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그동안 일반적인 사찰 배치 구도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을 차례로 지나 초월 세계를 상징하는 법당 영역에 이르며 경건함이 쌓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불전 앞에 서면 저 멀리 보이는 자신들이 떠나온 속계를 마치 돌아가지 않을 먼 세계처럼 바라보이는 편안한 시야가 열려 있었다. 그런데 큰 사찰물이 들어서 앞을 가로막으며 그 편안한 시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원래 사찰에는 미술적 가치를 의식하기 앞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정성스레 만든 의례용품과 대덕 고승들의 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빚어진 것이 유리가 소중하게 간직돼 왔고, 끝내는 속인들이 탐내는 미술적 가치도 알만하여 마치 시골 아낙네가 이불장에 흔레 반지 보관하듯 간직해 왔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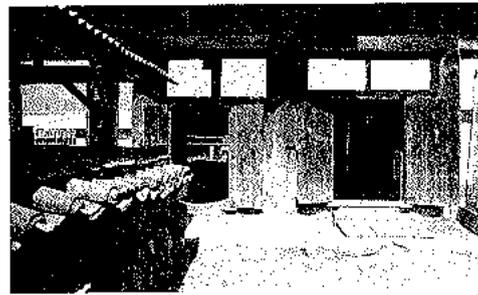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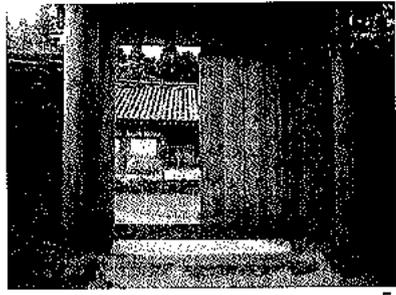
2



3



4



5



선암사의 봄(유화 70b, 김석환)

런데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보관해 온 유물들을 근래에는 관광객에게 홍보하듯 박물관을 크게 지어 전시하려는 추세이다.

그래도 선암사는 타 사찰들의 변화에 이렇듯 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모습을 지켜 왔었다. 그런데 최근 입구에 새로 성보박물관이 지어지고 나서 선암사를 들어오면서 느끼던, 오랜 세월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그 조용한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 곳에 그 건물을 짓기로 한 것은 몇년전 소중한 탕화를 도둑 맞고 나서라고 한다. 그래도 선암사에선 새로 지은 박물관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장대하지 않고 경내 다른 건물을 가리우지 않아서 다행이다. 입구의 느낌은 달라졌지만, 경내로 접어들어 보이는 박물관 자분은 경내 다른 건물보다 낮고 볼륨이 적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이 곳 선암사 만큼은 더 깊은 다른 멋이 담겨 있기에 그래서 충분할 수 있다. ㉮

산사의 새벽

새벽별 초롱이 푸르고
아직 어둠은 두터운데
목탁의 청음
정적을 가른다.

갓 수계한 비구니
근한 잠자리
떨치기 아쉬울 때

긴 여운의 범종 소리
어명을 부르러
깊은숨을 토하면

육신의 번뇌
무거운 마음 가다듬고
충충히 성긴 걸음
법당에 다다른다.



1. 아까인 석학위에 피 수족
2. 양주전 대문은 들어서며 - 깨는 안디단
3. 음진전 양벽의 안기당
4. 선선당 왼쪽 축입문
5. 무우전 대문에서 느끼는 인마당
6. 무우전 천기와 마당
7. 무우전 뒷뜰로 출입하는 부엌간
8. 무우전 뒷뜰과 기화전
9. 선암사 지붕



7



8



9

건축행정 과연 옳게 가고 있는가?

Examining Today's Architecture Administration

전영철 / 참건축사사무소
by Jeon Young-Cheol

건국 이래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는 건설이 가지는 종합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어느 한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양시켜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철강, 시멘트, 유리, 목재, 알루미늄 등과 같은 건설과 직접 관련된 업종은 물론이고 새집을 지으므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각종 전기, 전자제품, 가구류, 섬유류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각종 유통 및 음식점, 서비스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심리감 등을 복합요소로 생각해보면 건설이 가지는 국민의 경제 체감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정책가나 공무원들의 의식은 그런 중요성만큼 예민하고 심도 깊은 정책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가나 공무원들의 건축에 대한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추진되는 행정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들은 아마도 건축사들이 국가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업무에 종사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그런 착각이 없다면 어찌 건축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건축물대장 등의 전산자료를 버젓이 공짜로 시킨단 말인가? 허가신청에 필요한 각종도서들은 기존형식의 도서든 전산처리된 도서든 하나만 내면 될 것을 어찌 두가지 다 제출하라고 할 수 있던 말인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현장조사 업무를 허가 수수료 몇 천원, 몇 만원에 시키겠다고 법을 만들고, 잘못 조사하면 공무원에 준한 형법에 고발하겠다는 발상을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잘못된 건물의 90% 이상이 무자격 시공자들에 의한 작품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건만,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 소형 건축물의 적법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한 소형건설업 면허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거창한 명제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삼는 정치논리는 이제 버려야 할때가 아닌가 말하고 싶다. 200평 주택이면 8~12세대가 입주하는데 4인 가족으로 보더라도 32명~48명

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이런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공간을 어느 누구라도 지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 안전 불감증은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건축인식 부족의 일면이 아닌가 싶다.

둘째, 업종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지 못한 일괄 행정에 대한 모순과 피해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크게 부르짖은 내용 중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확립이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수호를 위한 폐해방지의 대명사와 같이 보도를 휘두른 것이 카르텔 방지작업이었고, 우리 건축사협회가 제시하던 표준 설계감리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타깃이 되어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러한 조치는, 행정가들의 아론대라하면 건축사는 준 공무원이고, 건축관련법을 대신 집행하며 올바른 건축문화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던 것만 일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건축사끼리 무한 가격 경쟁을 하여 값싸게 할 수 있는 건축사만 하라는 이중 잣대로 비취질 수밖에 없는 바, 오히려 충실한 업무수행과 부실방지를 위한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면 건축사끼리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축행정의 부실은 대형사고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보았는지 정책가들에게 정중히 묻고 싶다.

허가의 배급제라 일컫는 공장 총량제는 과연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상통하는 것인지도, 수도권역이라는 테두리로 일괄 규제되고 있는 수도권역이 아닌 지역과 접경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불이익 등도 일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되짚고 싶다.

셋째, 법안이나 행정 지침의 시행시기 및 발표시기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침체된 건설경기는 2000년 2/4분기에 최저점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대형은행이 부실로 무너지고 주식은 사상 최악이었고 채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2000년 상반기 아니었던가? 본래 재산은 은행, 주식, 부동산으로 3등분하라는 것이 정설이었으니 당연히 몽치돈들의 방향은 부동산으로 몰려야 했었지만 이 시점에 건축 행정가들은 기가 막힌 두 가지 발표를 하였는데, 하나는 준 농림지 개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용적

률을 대폭 낮추겠다는, 새로운 택지 개발은 물론 기존 택지마저도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환경 및 복지 우선 정책의 발표였다. 주식시장과 은행권을 살려야 한다는 더 높은 문들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고사시키는 기가막힌 발표였고 적절한 시기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즉흥적이며 선심쓰는 듯한 행정가들의 판단과 발표를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년 10월초에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판교, 화성 등의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 특히 판교의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만호 주택 건설로 인해 건설관련 인건비가 2배로 뛰고 베드타운으로 전략한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제반 문제점을 채 해결시키지도 못한 지금 어찌 그렇게 신도시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지....

준농림지의 아파트 신축과 도시 주거지역 개발은 모두 막아 놓고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부처간 합의도 못 본, 생색내기 발표로만 보이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인지....

진실로 국가 대계를 세우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실천되는 모습이 요구된다 하면 행정부와 정치권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떠든다고 하겠지만, 그 잘못된 속사정들도 이제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진실의 틀로 바꿔야하는 의무감을 가져야함과 역사의 판단은 사실과 결과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듯 하다.

이밖에 집단 민원에 대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주민의견 수렴규정 강화와, 사실적으로는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보여지는 서울시의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발상 등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업무 책임과 집단 민원을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음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의약 분업 실패를 두고 여당, 정부수반, 보건복지부, 시민단체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 모든 건축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가와 공무원들에게 이 말만은 꼭 되짚어 주고 싶다.

“건축행정은 의약행정만큼 국민전체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인한 민심이완은 정부의 무능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피해 대상자는 바로 우리 모두의 부모 형제 자매인 국민일 것이라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District Plan on the Architectural Design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교수
by Choi Chan-Hwan

1.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2. 계획적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3.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계획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설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필자주)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의 제안과 건축사의 역할

기존 도시관리의 수단과 도시환경에 대한 고려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와 개별적인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오면서 가로의 문제나 도시환경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시의 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규제만으로는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적 수단으로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였던 상세계획과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였던 도시설계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가 탄생된 배경은 공통적으로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980년 1월 4일 건축법 제8조의2항에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법에 명시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도시설계의 시작이다. 경제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의 도시의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의 건축법으로 앞으로의 도시의 발전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계획·발전·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된 상세계획은 건축법에 도입되었던 도시설계 제도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과 변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제도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도심 환경 정비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유용한 계획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였다. 단지 도시설계가 민간 위주의 사업진행시 많이 시행되었다는 것과 상세계획이 대부분 공공의 주도로 역세권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시행상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권 등의 제한을 두는 등 규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이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있고, 기존의 각종 규제에 별도의 새로운 규제가 부가된 셈이 되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렴이 없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사업자·학계에서 용역기간과 용역비로 인하여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린 기본적 사항들, 즉 주민들의 의견, 요구사항 그리고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주민 참여

현행 도시계획법 제20조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었고,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의 경우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로 법령에서 정한 공람절차(도시설계의 경우 30일간, 상세계획의 경우 14일간)만으로 진행을 하였다. 불충분한 주민참여와 의견반영의 문제점 등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기존의 제도들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주민참여제도와 건축사의 역할·보수기준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등이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주민제안도 가능하다.

이 점은 분명 건축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계획수립과 설계가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위 필지 중심으로 계획, 설계되었으나 지구단위로 영역을 넓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건축과 도시를 포괄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필지에서 보다는 공공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주민제안의 경우 전문가의 참여에 있어서 건축사든지 도시계획기술사 등은 이에 걸맞은 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의 경우는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로 인하여 '건축사업 무임보수기준'이 폐지되었다.

현행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이외에는 전무하다. 현재 도시계획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작성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건축설계와 지구단위계획

사전조사적 성격을 띤 지구단위계획

기존의 건축물을 신축시 건물의 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왔다. 건축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된 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조사 이외에 예비조사를 따로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성 검토의 내용과 절차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신축을 하기 위해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였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나왔었고 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은 제도에 많은 건축사들이 실효성을 지적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나만의 소유개념에서 내 주변의 문제와 도시의 공공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환경에 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면서 도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은 만들어졌으며 계획단계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였던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도로써 이것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주민참

여를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용역수행자 그리고 공공이 삼위일체가 되어야하고, 부가적 규제에서 벗어나 인센티브와 보너스제공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건대 입구 의류상가의 경우 기존의 도시설계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현재 이 건대 입구 상가의 경우는 상업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축과 개축, 대수선을 통한 환경개선의 측면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부담해야 할 비용 등과 같이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등)과 상권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여,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문제점을 분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공공, 즉 서울시의 비용에 대한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고, 상가 개선을 위한 비용은 개인에게 저이자로 융자하는 등 사책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제도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증진과 복리향상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에 의한 규제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건축물의 최대이익 추구하고 그 실현이 반드시 최대한의 공익증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행위제한, 또는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개발규제가 공익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 내용 그리고 불편을 가져온다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계획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 재건축의 경우

중전의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 300% ~ 350%의 용적률을 허용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는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리모델링에 관한 연

구 및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리모델링이 하나의 해결점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나. 인센티브 적용의 문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으로 내놓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시행되기 전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분명 인센티브는 일정부분 용적률이 기존의 용적률보다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용적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허용용적률이 250%이고, 대지면적이 100㎡인 대지를 예로 들어보자. 공공시설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였다면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허용용적률 × (1 + 공공시설 제공면적/당초 대지면적)을 적용하여 275%가 적용되어야 하나, 10%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대지면적은 100㎡이 아닌 90㎡이 되어 오히려 247.5%의 용적률이 나온다. 즉 250%의 당초 허용용적률보다 적은 용적률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공개공지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인센티브의 제도가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건축물의 허가 상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인센티브의 규정이 보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공지의 경우도 미리 용적률의 상한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인센티브의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용적률의 상한과 맞물려 인센티브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사업자가 과연 공개공지를 적용을 할지가 의문이 든다.

다. 경미한 변경의 적용 문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상의 하위개념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인만큼 이 경우는 분명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 경미한 변경 또한 도시 계획절차를 적용 받게 된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도시 계획절차를 완화해 주므로 이 범위가 너무 적게 설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인 운용이 곤란할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단순한 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규제와 같이 인식되어질 수 있다.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용해 나

갈 때 하나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유연성을 가지고 법을 운용해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절차 및 운용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 계획수립기간의 문제

많은 건축사들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종래의 도시설계제도와 비교하였을 경우는 계획 수립기간이 길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구역과 그 구역의 주변지역을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의 측면을 우선시 한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두고 싶다. 계획구역 밖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 공공성의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심의절차의 문제

심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지만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게 되어 유사절차가 중복되고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건축위원회의 자문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구역 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다. 또한 중복심의가 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 한하여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운용의 문제

지금까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운영된 사례를 보면 그 실효성보다는 개발규제로 인한 불편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현상의 파악이나 깊은 연구검토도 없이 소유권이 다른 필지를 통합하여 공동개발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현성 없는 규제가 되고 이를 완화, 개선, 조정하는데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지구단위계획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를 합리적으로 포용해야 하는데 자칫 경직되게 운영하게 되면 필지별 개발행위나 건축물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고 개발시기와 내용 등과 같은 여러 어려운

절차를 합의해야 하는 등 간단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이 소유권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은 항상 상호 쉽게 조정되어야 하며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의 수립, 결정, 변경 등이 도시계획 사항이어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걸리며 경직되게 운영됨에 비해 건축계획은 매우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양자의 상호 원만한 조정과 타협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건축계획에서는 비교적 구체적(MICRO)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도시적 관점(MACRO)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 개념적이고 당위성과 타당성에서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원칙적 기본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정, 변경 등은 건축계획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입안·수립절차의 문제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 개발행위인 건축에 비해 공공성이 훨씬 크며, 규제의 기반은 공공성 증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수립이 민간 개발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공공이 계획을 입안·수립해야 할 것을 민간개발사업에 의뢰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책임인 공공성 확보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지는 반면 민간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민간개발사업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게되면 민간개발자는 상당한 절차와 기간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문제는 사업자체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해진다는 점에서 모함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개발여부와 규모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공이 수립하고 민간개발에 선행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하는 식의 민간개발이 공공성격의 지구단위계획을 부가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운용상의 문제 요소도 많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고충과 민원유발의 소지가 있으며 자칫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잘못 인식하게 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전가

의 보도(傳家の寶刀)처럼 남용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계획법 안의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의 완성된 제도로서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도시관리의 수단이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단순한 하나의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 도시를 만들어 갔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쯤 돌아켜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법이 갖는 법적 책임과 권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아니나 하나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적으로 통합을 하였던 도시계획법의 경우 법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짚어 보고자 한다.

도시계획법은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과 같은 토지행정법의 분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행정법은 공법에 속한다. 즉 공공성·사회성의 원리를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은 지켜야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건축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건축허가 후 건물을 신축시 건축물이 원래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아니면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의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도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처벌규정 중의 하나이다.

도시계획법에서 우려하는 점은 도시계획법이 계획법적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같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도시계획법 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도 2000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라는 명목 하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항이 주거 건축 등에 한해서는 5번 이하에서만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횟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불법건축물의 양산이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도시계획법이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이 법

을 집행할 시 적절한 처벌 규정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건축법의 경우는 91년 전문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법의 체계를 갖추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법의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미완성 체계의 법이다. 이제 어느 정도 법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도시계획법(가칭)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또 역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제2종으로 세분화되어 적용되어질 것이라고 한다. 다음 개정시에는 도시계획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처벌규정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법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허가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한다.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를 관리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공무원의 책임이 뒤따르는 법의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과 같이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이행강제금의 규정이 완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론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전개해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 계획의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 도시의 관리에 대하여 일정 부분 소홀히 하였다.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하나의 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축관련 법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아닌 기존 도시의 관리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9)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 연 재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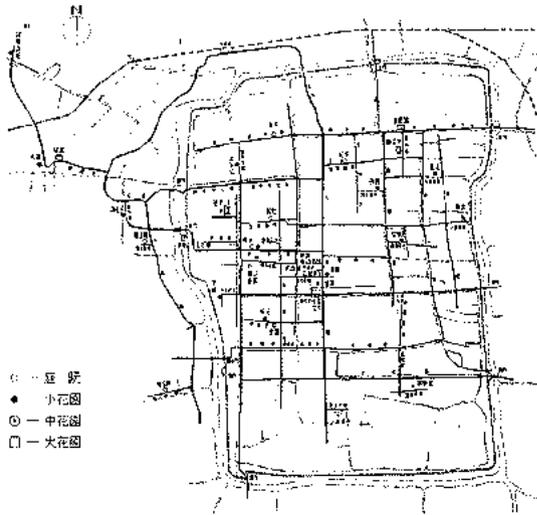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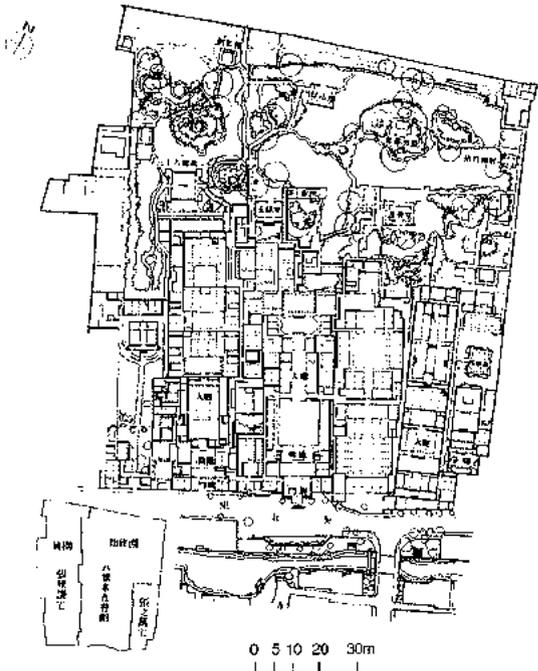
9.1 졸정원의 역사변천

졸정원은 소주 4대 명원¹⁾ 가운데 하나로 서 강남원림의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는 소주 옛 성곽내의 동북쪽 루문(樓門) 안쪽 동북가(東北街)에 있으며(그림) 현재 원림의 전체 면적은 40,000평방미터에 달한다. 명대 정덕 4년(正德四年: 1509년)에 어사(御史) 왕헌신(王獻臣)이 관료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서진 시대 반악(潘岳)²⁾이 은거했던 것처럼 자신도 낙향하여 별서원림을 만들고 반악의 〈한거부(閑居賦)〉 가운데 "관원륙소, 차역졸자지위정야(…灌園澗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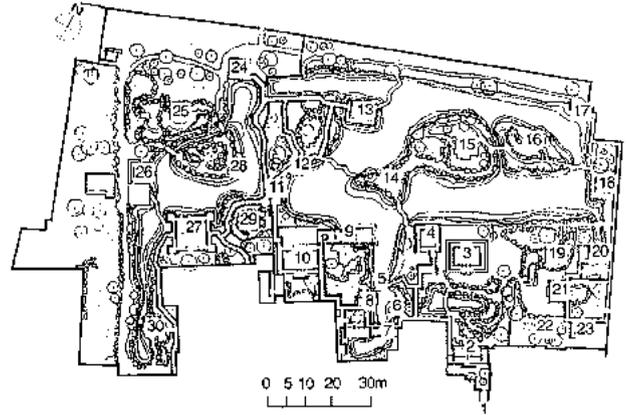
1) 현명정, 사지립, 유원, 졸정원을 일컬어 소주 4대명원이라고 한다.
2) 반악(247-300년): 서진 시기 해남성 중요연 서림으로 지는 안인(安仁)이다.



(그림1)소주의 주요 고전원림 위치도



(그림2) a. 졸정원. 보원과 주택의 전체 배치도



- | | | | |
|-----------|----------|---------|----------|
| 1.왕림의 입구문 | 10.옥란당 | 19.숙기정 | 28.여수동리현 |
| 2.요문 | 11.발유동헌 | 20.배당훈호 | 29.외랑정 |
| 3.원랑당 | 12.유음곡루 | 21.영동관 | 30.탑영정 |
| 4.기옥헌 | 13.건신루 | 22.기보집 | |
| 5.소비홀 | 14.하종사변정 | 23.청우헌 | |
| 6.송송정 | 15.실향운물성 | 24.도영루 | |
| 7.소창방 | 16.석산정 | 25.부위각 | |
| 8.죽전정 | 17.녹의정 | 26.유소각 | |
| 9.황주 | 18.오죽유거 | 27.원양정 | |

(그림2) b. 졸정원 중부의 서부의 배치도

을 때, 졸정원의 서부와 중부는 충왕(忠王) 이수성(李秀成)⁴⁾ 저택의 후화원(後花園)이 되었고 동부의 귀전원거(歸田園居)는 황폐해졌다. 태평천국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서부가 장이겸(張履謙)의 보원(補園)에 귀속되었고 중부의 졸정원은 팔기봉직회관(八旗奉直會館)의 소유가 되기도 했다. 현재 전체 원림은 여전히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부(拙政園 부분)와 서부(悅補園 부분)는 과거 사대부 주택의 후원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부(원래 歸田園居 부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다시 보수⁵⁾되었음에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그림2)

9.2 중부 졸정원의 공간구성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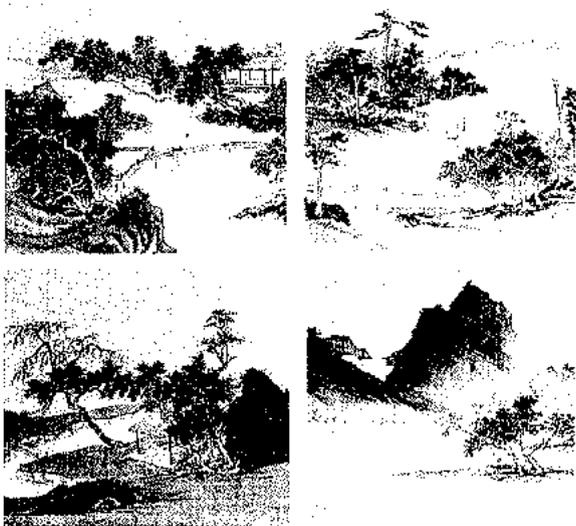
중부의 졸정원은 전체 원림의 주체이자 정수가 모여 있는 곳으로 면적은 13000평방미터에 달하며 수면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원래 이곳은 물이 고인 울퉁불퉁한 저지대의 지형이었다. 원림을 처음 조영할 때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준실을 한 뒤 호수를 만들고 주변에 나무를 심었다. 명대 문인 문징명(文徵明)의 <왕씨졸정원기>, <졸정원도>, 제영(題詠) 등의 기록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건물들이 매우 희소하고 나무가 울창하며 굴곡진 호수로 이루어져 거의 자연풍경에 가까웠다.^(그림3)

남쪽에 있는 좁고 긴 원림의 입구⁶⁾를 지나 요문(腰門: 그림2의 2)에 들어서면 황색 돌을 이용하여 만든 가산이 하나 있는데 병풍처럼 가로막아 원림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그림4) 여기서 가산 뒤로 더

此亦拙者之爲政也)³⁾에서 의미를 취하여 졸정원이란 이름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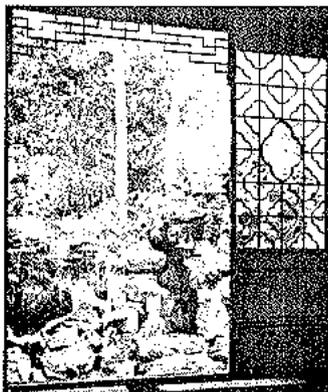
이곳은 원래 대흥사(大弘寺)의 터로서 왕헌신이 그 일부를 점거하여 원림을 조영하기 시작했으며 30여년간 자신에 의해 직접 경영된 이후, 400여년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동부, 중부, 서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태평천국에 의해 소주가 점거되었

3) “~번에 물주고 체소를 풀어 파는 것. 어 역시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4) 이수성(1823-1864년): 청대 말 사람으로 태평천국의 유명한 장수이며 충왕에 봉해졌다. 동시인간에 중국 반 통이 남경을 공격할 때 포로가 되어 처형되었다.
 5) 이 구역은 1959년에 중건되었는데 도시민의 휴식과 유람, 문화활동을 위하여 넓은 잔디밭을 조성하였으며 그 사이에 다실과 정자를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원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6) (그림2)을 참조해 보면 졸정원은 사대부 주택의 후원으로 문경, 교정, 다정을 지나는 정식의 진입로와는 별도로 당시 일반인들 위해 가끔 개방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대외에서부터 원림으로 직접 통하는 독립된 문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경대의 문장명이 그린 <중정원도>, 절박한 전원풍경의 원림이었음을 보여준다.

들어가면 작은 호수가 하나 나오는데 그 위에 걸쳐 있는 다리를 지나거나 호수 주위의 회랑을 따라 가다보면 갑자기 탁 트인 공간 사이로 주요 경관지역이 눈 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중국고전원림의 조영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간의 대비와 개폐수법을 활용한 경우이다.



(그림4) 요운에서 바라본 가산의 모습

가산 뒤의 작은 호수 북쪽에는 중부의 주요 건축물인 원향당(遠香堂: 그림2의 3)이 있는데 사방으로 막힘이 없어 건물 안에서 한 폭의 두루마리 그림처럼 주변 원림의 경관을 조망해 볼 수 있다(그림5). 이 건물의 북쪽에 있는 월대(月臺)는 수면과 접하고 있어 그 위에 올라서서 수면을 사이에 두고 호수 가운데 조성된 두 개의 섬을 조망해보면 눈과 마음이 모두 즐겁다. 더욱이 여름철 연꽃이 수면에 만발하면 경관은 더욱 아름답다. 그러므로 송대의 저명한 이학자(理學者) 주둔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 가운데 “향원익청(香遠益清)”의 구절에서 원향당이라고 하는



(그림5) 원향당 주변의 거울 풍경

당호를 취했다. 또한 이 건물은 서쪽 섬 위에 세워진 설향운울정과 수면을 사이에 두고 대경(對景)을 이루는 동시에 원림 중부의 남북 중축선을 형성한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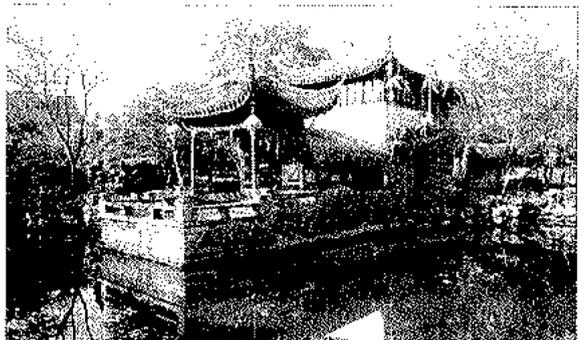
(그림6) 월정원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원향당과 설향운울정 방향의 종단면도

월대 서측의 의옥헌에서 곡랑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소비홍(小飛虹)이라고 하는 작은 다리를 지나 득진정(得眞亭: 그림2의 8)에 도달한다.(그림7) 그리고 소비홍



(그림7) 의옥헌에서 남쪽으로 곡랑을 따라가다보면 나오는 소비홍. 이 다리는 왼쪽편에 있는 옥진정에 연결된다.

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소창랑(小滄浪)이라고 하는 누각이 수면 위에 세워져 있어 서로 호응관계를 이룬다. 이곳은 주위의 정자와 다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유정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소창랑의 난간에 기대어 북쪽을 바라보면 정자와 회랑, 다리 등을 지나 멀리 견산루(見山樓: 그림2의 13)가 눈에 들어오게 되므로 경관의 깊이와 하이러라키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소창랑에서 덕진정을 지나 북쪽으로 꺾어지면 황색돌로 만든 가산이 나오고 가산의 서측에는 적막한 작은 정원과 옥란당(玉蘭堂: 그림2의 10)이 있으며 북쪽에는 수면에 면하여 배의 형상을 모방한 방청(舫廳) 유형의 건물인 향주(香洲: 그림2의 9)가 자리잡고 있다.(그림8) 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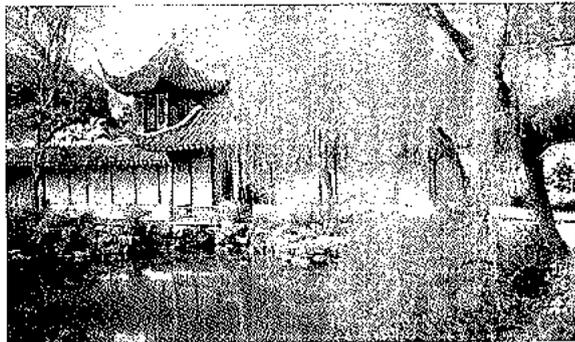


(그림8) 배의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향주의 전경

향의 건물인 향주와 횡방향의 건물인 의옥헌 역시 수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의 수면은 폭이 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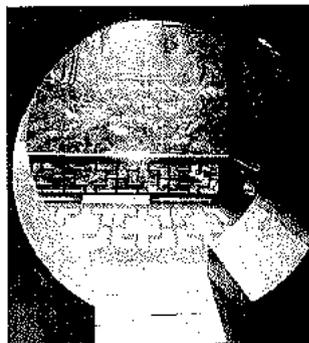
옥란당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면 연못의 서

쪽 끝에 별유동천(別有洞天: 그림2의 11)이라는 정자가 있고(그림9, 10) 이 정자는 연못의 동쪽 끝에 있는 오죽유거(梧竹



(그림9) 오죽유거와 대경을 이루는 별유동천의 모습

유거: 그림2의 18)라고 하는 작은 정자와 멀리 떨어져 대경을 이루어서 주요 경관구역의 동서방향 축선을 형성한다. 오죽유거 정자는 사면 모두 월동문(月洞門)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자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서로 다른 풍경(框景)을 얻을 수 있다.(그림11, 12)



(그림10) 별유동천 안에서 풍경원 안쪽을 바라본 경관



(그림11) 별유동천과 대경을 이루고 있는 오죽유거의 모습



(그림12) 오죽유거 풍경원 안쪽을 바라본 모습으로 섬 위에 세워진 정자가 북산정이다.

졸정원의 전체적인 구성은 호수의 수면을 위주로 삼았기 때문에 주요 경관 구역은 크고 작은 호수의 수면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호수의 수면은 때로는 합쳐지고 때로는 분산되는데 합쳐진 곳에서는 탁트인 개방감이 돋보이고 분산되는 곳에서는 구불구불한 변화의 느낌을 받게 한다. 호수의 동서 양쪽 끝에는 수구(水口)와 수미(水尾)가 뻗어나와 수면의 흐름이 무한함을 표현하였다. 호수 기운에는 동, 서로 각기 하나씩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수

면을 남북의 두 공간으로 분할한다. 그 가운데 서쪽의 섬이 비교적 크고 섬 정상에는 장방형의 설향운울정(雪香雲蔚亭: 그림2의 15)을 세웠다.(그림13) 동쪽 섬은 상대적으로 작



(그림13) 서쪽 섬에 세워진 설향운울정의 겨울 풍경

고 북쪽으로 치우쳐 육각형의 북산정(北山亭: 그림2의 16)을 지었는데 은밀하게 숨어 있다.(그림13) 섬은 흙을 위주로 하고 돌을 보조재료로 삼아 조성하였으며 남쪽 면은 황색의 돌을 불규칙하게 쌓았고 북쪽 면은 흙으로 경사지게 복돋운 다음 갈대 숲을 조성하였다. 두 섬 사이는 계곡형태로 처리한 뒤 그 위에 작은 다리를 만들어 연결하였다.(그림14) 섬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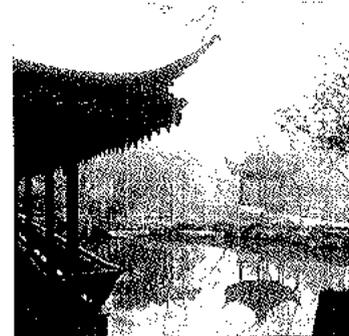


(그림14) 동, 서에 각기 하나씩 조성된 섬 사이의 계곡과 연결 다리

에는 곳곳에 낙엽수를 심고 그 사이에 활엽수를 식재하는 한편, 호안가에는 관목과 덩굴식물을 심어 강남지역의 분위기를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원림 전체에서 풍경이 가장 뛰어난 장소이다.

서쪽 섬의 서남쪽 부분에는 육각형의 하풍사면정(荷豊風四面亭: 그림2의 14)이 있으며 그 서쪽과 남쪽에는 구불구불한 다리가 각기 1개씩 있어 수면을 3개 지역으로 구분 짓는다. 서쪽 다리는 버드나무 숲의 길로 연결되고 남쪽 다리는 의옥헌(倚玉軒: 그림2의 4)으로 이어지는데 이 노선은 전체 원림의 주요한 통로가 된다.(그림15)

견산루는 서쪽 섬의 뒷편인 서북쪽 호안에 위치하는데 삼면이 물에 면한다.(그림16) 산



(그림15) 의옥헌(좌)과 하풍사면정(우)의 연결

으로 향하는 서쪽편의 회랑을 따라 오르면 멀리 설향운을 정, 남헌, 향주 일대가 그림처럼 들어온다. 이 회랑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유랑(遊廊)은 약간의 기복이 있으며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었기



(그림16) 견선루의 전경

때문에 유음곡로(柳蔭曲路)라고 한다. 이 길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별유동천이 나오는데 그 안쪽이 바로 보원이다.

중부 졸정원의 동남쪽에는 원림 속의 원림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파원이 있다. 담장과 가산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한 구역을 형성하였다. 이 안에는 비파를 식재하였으며 영롱관(玲瓏館: 그림2의 21)과 가보장(嘉寶亭)이 있다.

이상과 같은 원림의 구성으로 볼 때 중부 졸정원은 수면이 넓어 대부분의 건축물이 물가에 면해 있으며 수면을 빌어 경관을 감상하고 수면 때문에 경관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다리는 모두 평교의 형식으로 고요한 수면과 조화를 이룬다. 특히 호수면을 중심으로 북쪽에 조성된 산수환경은 소량의 건축물을 점점이 배치하여 유람자로 하여금 경관의 범위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구성은 송, 명대 이래로 유지되었던 간결하고 평범한 풍격을 여전히 보여준다. 반면 생활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남쪽 부분은 원림거주자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건축물의 밀도가 비교적 높는데 주된 경관구역의 자연스러움을 더욱 보장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9.3 서부 보원의 공간구성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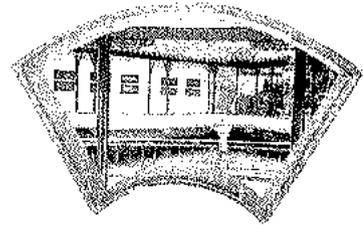
중부 졸정원의 서쪽에 있는 보원 역시 수면을 공간 구도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호수면의 형상은 꼭



(그림17) 여수동좌헌의 전경

적형이다. 수면의 분산을 위주로 하고 취함을 보조로 삼은 이수(理水)의 방법은 졸정원과 확연히 다르다.

호수에 조성된 섬의 동남쪽, 시아가 비교적 트인 곳에는 물가를 면해서 부채꼴 형상의 작은 정자가 하나 있다. 정자의 이름은 여수동좌헌(與誰同坐軒: 그림2의 28)으로 송대 문인 소식의 “여수동좌? 명월청풍야(與誰同坐? 明月淸風我)⁷⁾”라고 하는 글에서 취했다. 정자의 형상이 독특하여 훌륭한 점경(點景)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보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의 감상장소로서 난간에 기대어 앉으면 삼면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그림17, 18)



(그림18) 여수동좌헌의 상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유음의 모습

호수의 동북쪽으로는 좁고 긴 수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서쪽 편은 돌과 수목으로 이루어진 자연경색의 부분이고 동쪽 편은 호수면의 경계를 따라 물 위에 유랑(遊廊)이 구축되어 담장의 구실을 한다. 유랑은 곡절과



(그림19) 마치 물위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을 주는 유랑

기복이 있어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그림19) 이 유랑의 북쪽 끝은 도영루(倒影樓: 그림2의 24)와 연결되어 좁고 긴 수면의 종결점이다.(그림20) 도영루에서 남쪽을 바라보



(그림20) 유랑과 유랑의 종착지인 도영루의 전경

면 서쪽의 자연스러운 동경과 동쪽의 인위적인 유랑이 서로 대비를 이룬다. 더구나 수면에 비춰진 도영루의 모습은 생동감 있고 활달한 하나의 경관을 창출한다. 한편, 유랑의 남쪽 끝의 작은 정자는 의랑

7)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고? 청동명월과 너로서 라는 의미이다.

정(宜兩亭: 그림2의 29)으로 가산의 정점에 세워졌다. 도영루와 수면을 사이에 두고 대경을 형성한다. 이곳에서는 보원의 전체적인 경관을 조망해 볼 수 있으며 중원인 즐정원의 경관도 끌어들이 수가 있으므로 정자의 명칭이 의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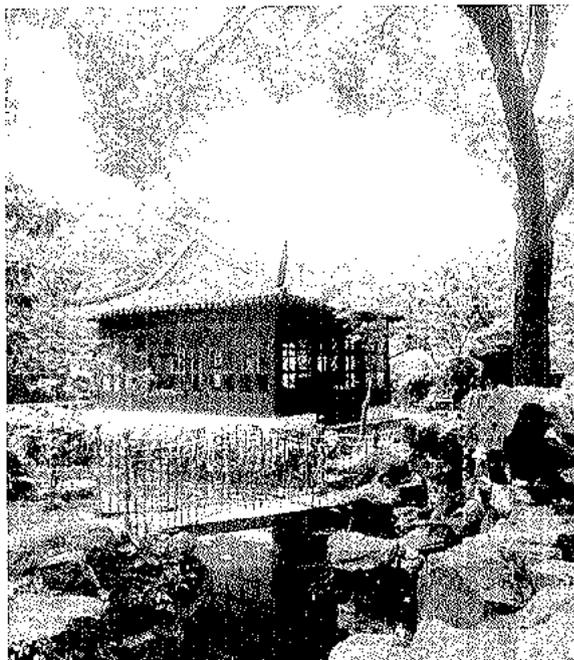
의량정의 서쪽은 보원의 주채건축인 원양청(鴛鴦廳: 그림2의 27)이 있다. 원양청은 방형의 평면으로 네 모서리에 각각 이실(耳室: 곁방 또는 딸린방을 의미함)이 1칸씩 붙어

있다. 이실은 주인이 이곳에서 음주 기무를 즐길 때 하인들의 대기장소였다. 실내공간은 가변 칸막이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반씩 구획된다.⁸⁾ 남쪽 부분은 십팔만타라관(十



(그림21) 36원임청의 내부조경미 진살린 가구의 모습. 칸막이의 뒤쪽이 18만타라관이다.

八曼陀羅館)이고 북쪽 부분은 삼십육원양관(三十六鴛鴦館)으로 수면으로 돌출되어 있다. 십팔만타라관의 앞에는 산다화(山茶花: 일명 만타라화라고도 함) 심어져 있으며 관의 남쪽면은 바로 원림주인의 저택부분이다. 그러나 이 건물의 전체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수면과의 조화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림22) 이상은의 시에 의미를 취했다고 하는 유청각의 전경

8) 이상은(1812-1898년): 당나라 때 하남 상양(上陽) 사람으로 자는 차산(次山), 호는 옥계생(玉階生)이다. 당나라 시단(詩壇)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문집으로 《이차선시집(李次善詩集)》이 전한다.
9) '남겨진 연꽃에 맞소리만 있구나'라는 의미이다.



(그림23) 보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부취각의 전경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구불구불한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면 호안에 면해서 유청각(留聽閣: 그림2의 26)이 나타난다.⁹⁾ 유청각 앞의 호수면 위에는 연꽃이 많은데 당나라 때의 시인 이상은(李商隱)⁸⁾의 "유독잔 하청우성(留得殘荷聽雨聲)"⁹⁾라고 하는 시의 의미에서 건물의 이름을 취했다. 다시 북쪽을 향하여 산 정상으로 오르면 부취각(浮翠閣: 그림2의 25)에 이른다.¹⁰⁾ 이곳은 보원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건물의 크기가 역시 커서 이 지역 원림의 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인은 멀리 남쪽 끝단에 소형의 탑영정(塔影亭: 그림2의 30)을 설치하여 남북호응의 시각적 대응선을 구성하고 수면의 뾰뚱한 결함을 적절히 보완하였다. 圖

협회소식 / 91

건축계소식 / 92

법령(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97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제6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6회 이사회가 지난 5월 8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건축사보관리규칙 폐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설계도서 신고사무취급 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건축물의 조사감정업무 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상임임원처무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위원회운영총칙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직제및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보수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건축정보센터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1호의안: 신문발행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신문발행준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키로 함.
목적: 신문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준비 위원구성: 7인
이사(4인): 김인하, 박영식, 서천식, 신문섭
건축사회회장(3인): 서울, 부산, 경기
- 제12호의안: 대한건축사신문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신문발행준비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함.
- 제13호의안: 2001년도 신문발행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신문발행준비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함.
- 제14호의안: 신문발행 사업운영자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신문발행준비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함.
- 제15호의안: 신문발행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신문발행준비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함.
- 제16호의안: 희망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안건〉

- 제1호: 회관처리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협의
- 회관 이전에 따른 사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회관처리 대책위원회에 요청키로 함.

200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5월 13일 홍익대에서

올 해 건축사자격예비시험이 지난 5월 13일 홍익대에서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총출원자 1,665명 중 911명이 응시해 54.7%의 응시율을 보였다. 발표는 5월 25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 19일에 한다. 한편, 자격시험은 오는 9월 2일(일) 실시될 예정이다.

제1회 건축자재 신제품 발표회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협회 갤러리에서



우리나라 건축자재업계 최초로 신제품을 주제로 한 새롭고 획기적인 형태의 홍보 마케팅 행사인 「제1회 건축자재 신제품 발표회」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협회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협회 후원아래 (주)한마당21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신제품전시」, 「Cyber전시」, 「설명회」등으로 구성, 신제품을 Off-line과 On-line을 통합하여 전시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하1층 강당에서 설명회까지 갖는 입체적인 구성이 특징. 참가비는 200만원(기본)이며, 신청마감은 6월 5일(선착순)이다.

문의: (주)한마당21

(전화 02-702-1871)

건축계소식 archi-net

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센터 교육생 모집

6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교육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국민대학교 강남교육관에서 강의될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 제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목조건축의 개론 및 구조의 이해,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 목조건축 시공계획 및 경제성, 목조건축의 구조 및 설계실습 등이다. 이번 강의는 건축사사무소 경력자,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또는 자기 집을 짓거나 주택 사업 창업을 위해 설계 및 기술이해의 경험을 쌓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이며, 수강료는 교재 및 구조모형제작비를 포함해 59만원이다. 그리고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는 목조주택 설계실기교육 단기특별강의(8주)와 DIY@홈코디(12주) 내 집, 내 손 가꾸기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목조주택 설계실기교육 단기특별강의는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며, DIY@홈코디는 7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강의한다. 한편, 제4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과정(1년, 9월 2일 개강)과 제2회 가구디자인 스튜디오(1년, 9월 10일 개강)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2-2006-6212,3

www.wooddesign.or.kr

제19회 서울시 건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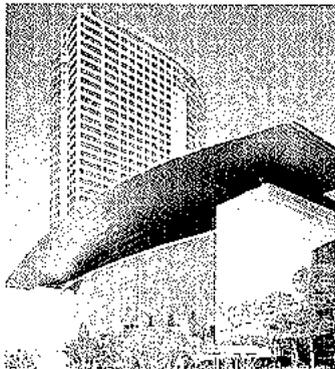
준공건축물부문 금상에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제19회 서울시 건축상 결과가 지난 4월 10일 발표됐다.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건축상은 총 41개 작품이 접수된 준공건축물부문과 총 15개작품이 접수된 야간경관조명부문에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4월 3일과 4일에 있던 심사 결과 준공건축물부문 금상은 기존도시와 유기적인 조화와 균형 등의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은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이 선정됐으며, 은상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스포츠 콤플렉스」는 새로운 형태의 경쾌한 구조미와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로 평가를 받았고, 「도시개발공사 거여3단지아파트」는 주거단지의 주거동과 외부공간의 종합적인 구성의 조화를 꾀한 점과 우리나라 아파트 경향에 새로운 방향 및 대안 제시를 시도한 점을 평가받아 선정됐다. 심사는 준공건축물부문은 이명호(중앙대), 서상우(국민대), 강석원(홍익대), 심우감(서울대), 김성우(연세대), 이정만(한양대), 하해진(시의원), 정재철(대한건축학회), 이철호(서울건축사회장), 고유석(경향신문 e하우징 상무이사), 배경동(주택국장)씨가 맡았으며, 야간경관조명부문은 임창복(성균관대), 양윤재(서울대), 박종호(조명디자인 컨소시엄), 안희영(건국대), 김 현(고려대), 정혜정(서경대), 이진우(호서대), 조경진(시립대), 고기영(비츠로조명), 이미애(아이라이크), 배경동(주택국장)씨가 맡았다. 수상작의 시상식은 5월 31일 세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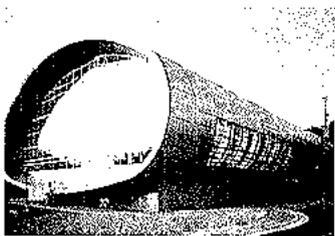
회관 세종갤러리에서 열리며, 6월 5일까지 전시된다.

▷ 준공건축물부문 수상현황

- 금상: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AKDC(범+창조+희림)의1
- 은상: 서울대스포츠컴플렉스/포스에이씨건축
도개공 거여지구 3단지아파트/한울건축
- 동상: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일건건축
독사평정거장/스페이스오건축
광진정보도서관/토파엔지니어링
서초가든스위트/삼우건축
- 장려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가와건축
논현동빌라/모람건축
불보건설기계코리아성북동주택/테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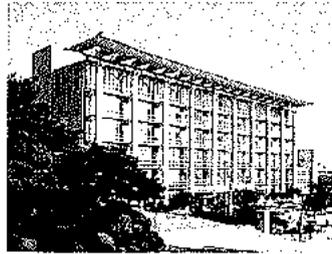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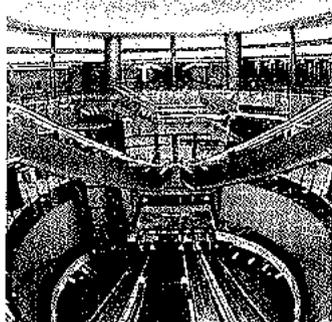
서울대 스포츠 COMPLEX



도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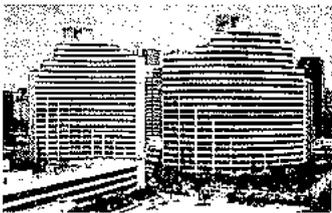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독사평정거장



광진정보도서관



서초가든스위트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논현동 빌라



불보건설기계코리아성북동주택

▷ 야간경관조명부문 수상현황

- 은상: 루이비통청담동매장/RAC건축
서울대학병원(구 대한의원)/알토
- 동상: 방화대교/누리플랜
지하철6·7호선케노피/나남전기
- 장려상: 올림픽대교/누리플랜

제6회 MBC 건축박람회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에서

MBC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6회 MBC건축박람회가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자재전, 인테리어전, 건축리노베이션, 건축공구전, 전원주택전, 광고물기자재전, 조명산업전, 에너지기자재전, 조경 및 DIY제품전, 가구전, 보안 및 방범기자재전, 부동산분양 및 건축정보전으로 개최된다.
문의: 02-780-0367

2001 공간국제학생건축상

9월 8일까지 접수

- 주제: 만남(Rendezvous)
- 참가자격: 국내외 전공 불문/팀당 3인 이내
- 심사위원: 카즈오 세지마(Kazuyo Sejima Ryue Nishizawa & Associates)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오현 대표)
- 시상내역: 단체 해외연수 및 해외

건축가 탐방(가작, 입선 제외, 대표 1인만 해당)

대상 1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 /CG부문특별상 1점/후원상 1점/가작, 입선 다수

-공모일정

· 참가신청서 배부 및 접수: 6월 11일부터 8월 25일

· 작품접수: 6월 11일부터 9월 8일

· 작품심사: 9월 10일부터 9월 15일

· 심사 발표: 9월 17일 (웹진 vmSPACE 발표 및 개별통보)

-심사규정

· 당해년도 중복 출품작은 심사 및 수상 대상에서 제외

· 타 공모전 및 타인의 작품과 유사한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접수 방법

· 웹진vmSPACE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팀별 참가시 대표자 반드시 명기

· 내사/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

· 참가비: 팀당 7만 원 /www.vmspace.com 회원 5만원

· 문의 및 작품제출: (주)공간사

(전화 02-747-2892,

팩스 02-747-2894)

▶ 주제의 해제

모든 건축 작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논의는 사이트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해석에 주목해야 한다. 이 두 회두에 대한 설계자의 건축적 결단이 이 작품의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심사 대상 항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 사이트

· 1975년 제작된 지도를 설계상 기본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설계시점의 조건으로 한다.

· 주어진 지도의 옛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철도의 노선을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적합한 대지를 설계

자가 임의로 선정, 계획한다.

·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마을(주거), 경작지, 자연환경 등은 설계자의 건축철학에 따라 적절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프로그램

· 철도역사와 면회를 위한 스페이스프로그램은 설계자 임의로 작성한다.

· 프로그램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설계자가 임의로 상정한 인구(상주 및 방문객 등), 활동, 선택된 주변환경 등과 그에 따른 스페이스프로그램의 적정성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요구된다.

· 특히 DMZ설치 후 위의 사이트는 많은 부분이 방치, 소멸, 변질되어 왔다. 변화되며 지속해온 자연생태계와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 등에 대한 취사선택의 철학과 건축적 방안 역시 설계자의 주요 제안의 일부가 될 것이다.

· 주어진 프로젝트와 기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남북통일 후 면회소라는 기본적 기능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기성이 소멸된 이후의 이 축조물에 대한 변형 역시 주요한 제안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글/민현식)

제1회 Parchi부산건축답사

우장춘 기념관 답사

부산의 젊은 건축과 교수들의 모임인 "Parchi(Pusan Architecture)" - 해양대 우동선·도근영 교수, 동의대 양재혁·김삼열 교수, 신라대 정지영 교수, 동서대 유재우 교수, 동명정보대 김의용 교수, 동아대 김기수 교수, 인제대 고인석·강병준·우신구 교수 참여 - 에서 제1회 "부산건축답사"를 개최하였다.

Parchi에서는 그 동안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대학에서의 설계 교육과 부산의 건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하여 왔으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부산건축답사"라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 건축가는 작품을 그냥 던져놓고 '해석은 자유'라는 애매한 변명으로 자신의 건물에 신비성을 덧씌우려는 경향이 있었고, 교수는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공허한 메아리를 양산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의 "지금 여기"를 외면한 채 외국 잡지를 카피해 오던 타성에 물들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부산건축답사"란 기존의 답사나 탐방처럼 일방적으로 건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현장에서 건물을 가운데 놓고, 건축가, 교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강연, 저술, 답사, 비평, 저널 등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3자간의 상호반응적인 「현장에서의 대화」를 중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 답사에서의 다방향성의 대화는 그 내용을 참여적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웹진 "Archibluе(www.archibluе.com)"에 게재함으로써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행사에서 나눌 대화의 많은 부분은 현장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넓게는 대지와 주변 컨텍스트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에서, 좁게는 아주 세밀한 디테일에 대한 건축가의 고민들을 현장에서 보고 만지면서 함께 논의한다. 그 과정을 통해 건축만들기의 즐거움과 함께 그에 관해 대화하는 기쁨을 공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건물에 대한 단일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 건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촉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해석과 이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건축작업에 주목함으로써, 부산 건축의 성과와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없는 공허한 지역성 논의를 종식시키고, 실천적인 부산 건축의 agenda를 발굴하고 함께 고민하는 작업도 될 것이다.

지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1회 답사에서는 우장춘 기념관을 답사하고 현장에서 건축가인 노진석 소장, 부산지역 각 대학의 6명의 교수(고인석, 김기수, 김의용, 양재혁, 우신구, 정지영), 31명의 대학원생·학부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제2회 답사는 6월 중순에 건축가 강대화가 설계한 해운대 세무서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우신구/인제대학교 건축학과 (055-320-3475)

이인미 건축사진전

남겨진 시간 사이로 - 건축사진으로 이어보는 부산

부산 금정구청 건축과에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인미의 건축사진전을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남겨진 시간 사이로-건축사진으로 이어보는 부산」을 주제로 금정구청에서 개최한다. 이인미는 부산에서 사진작업실 비운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명정보대학교에 출강하여 건축과에서 건축사진학을 강의하고 있다.

참조: <http://iseeone.pe.kr>



끊어짐의 아쉬움보다는 무엇인가를 이어가고, 어떤 연속적인 잇기를 우리 대부분은 번식력처럼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 이

어짐의 끈나풀로 부산의 건축을, 그 이어짐의 도구로 사진을 생각해본다.

사진은 시간을 남긴다. 그 시간들은 1초보다 짧은 시간의 틈으로 또는 잊혀질 만한 시간의 터울로도 이어져 간다. 사진으로 보는 건축 또한 지나버린 시간으로 남는다.

건축물을 바로 눈앞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살갑게 느껴지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시간과 여유가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현재라는 태두리를 벗어나기도 힘들다.

덜 살갑지만 사진을 통한 건축보기는 뚝어저러 쳐다보기에 맞닿는 작업이다.

사진 프레임이 만들어 낸 건축이나 도시는 멈춰져 있고 남겨진 시간 속에 놓여져있다. 그 놓여진 시간들을 이어본다.

사진은 시간과 함께 공간의 흔적을 남긴다.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는 공간의 나누어진 현실에서는 별개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이어져나간다.

앞과 뒤 그리고 옆 건축의 자화상들을 이어서 볼 수도 있다.

부산이란 도시 속에 흩어져 있는 -실제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 건축물들을 사진으로 이어본다.

사진을 통해 건축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부산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작업.

부산이란 도시의 건축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꼭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사진으로 건축과 이 도시의 모습을 잘라보고, 떨어뜨려 놓아보고, 이어 보는 것.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벼운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건축을 또 다른 맛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도시와 건축의 색깔이 혹시 바다 빛에 묻혀나지 않을까?(글/이인미)

제2회 전국대학생 건축디자인 캠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회 전국대학생 건축디자인 캠프가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대구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된다. 「도시의 비전」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대한건축학회 지회위원회가 위원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도에 학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학생 디자인 캠프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많은 참여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개최하기를 바랐으나 지회위원회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이 행사는 미래 우리 건축계를 이끌 각 대학을 대표하는 우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건축을 담론하고 아름답고 멋진 우정들을 쌓을 젊음의 마당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회위원회로서는 경제적 여건이 가장 문제였으나 디자인 캠프를 계기로 각 대학간의 건축설계교육과 디자인에 대한 견해들이 비교되면서 건축학도들간의 친교를 통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젊음을 통한 정보교류 그리고 친목도모가 원만하게 이뤄져서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라고 있다.

▷내용: 대구패션 어패럴밸리 기본설계: 주어진 패션,어패럴단지에 대하여 건축적 제안을 함에 있어서 스튜디오 별로 설계개념과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안을 도출 한다. 스튜디오내의 각 조는 단지내의 계획지를 하나씩 담당하여 적절한 건축안을 마련하는데 동일 스튜디오내의 다른 조와 논의 협력함으로써 개별 건축과 전체 단지와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기간: 2001년 6월 27일(수)~7월 3일(화) (6박 7일)

▷장소: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학생생활관

▷인원: 100여명 (2인/1조로 조직하여 6~7조를 1개 스튜디오로 편성 운영계획)

▷참가비: 10만원/인 (각 지회 또는 각 대학에서 지원하기로)

▷튜터: 각 지회 소속 교수 및 건축사 추천에 의해 참여(20~30명 정도)

▷특강: 주제 발표 및 초청 특강 2회 이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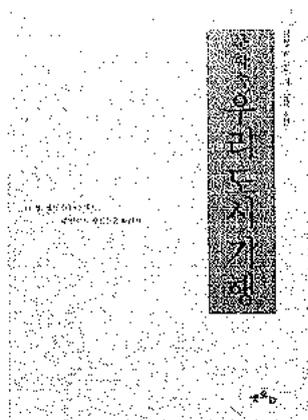
▷전시: 7월 4일~10일 대구 건축사 회관 (최종 결과물 전시)

▷문의: 전국대학생 디자인캠프 운영 위원회(부경대학교 051-620-1396, 620-1399)

전국대학생 디자인캠프 진행위원회 (경일대학교 053-850-7245)

디자인 캠프 홈페이지 <http://archi.kyungil.ac.kr>.

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다 행히도 소설에서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속의 무대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장소의 하나이고, 세월이 흘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남겨진 글 속에는 그것이 원형처럼 남아 있음을 저자는 보았고, 비록 '글의 화석'이지만 소설은 역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건축의 동선을 따라 읽으려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김정동교수의 문학동선「문학 속 우리도시 기행」은 저자의 우리건축 찾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작품이다.



김정동지음/356쪽/1만3천원/도서출판 옛오늘 퍼냄(02-756-8956)

▷ 건축의 일상성과 상징성

이 책은 본격적인 비평서는 아니다. 부산이란 도시에 널려있는 건축물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신의 건축적 거울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돌아본 기억을 정리한 고백서이다. 때로는 건축물을 안내하고 소개하면서 때로는 건축물을 분석하는 비평서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특정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구성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특정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나 흐트러진 부산의 건축상황이 자신의 다음작업을 이어가게 하는 희망과 아쉬움으로 남게 하지만, 언젠가

그들의 건축을 이야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책을 접할 때 건축가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면 단단한 구성의 이론서적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되는 건축작품들은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작업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산건축이 일상적 건축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으로 자리할 때 여기서 화두로 던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 즉 일상적 문제와 상징성(기념성)의 문제는 본연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김기수지음/109쪽/7천원/도서출판 비온후 퍼냄(051-464-4115)

신간안내

문학 속 우리 도시 기행
건축의 일상성과 상징성

▷ 문학 속 우리 도시 기행
김정동교수의 문학동선

자극히 건축적인 용어 '동선'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당시의 도시와 건축물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소설속에서 건축적인 영감을 찾거나 건축적인 경향으로서의 소설읽기와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설명할 실물자료는 이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젊은이들은 근·현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화신백화점, 우미관, 조선총독부 같은 건물들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30~40년 전의 도시 풍경

정정합니다.

지난호(통권384호) 112쪽 2001년도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소식 중 강원도건축사회 「제3호외안: 일원 개선의 건」에서 신임회장에 「박세진」을 「이명섭」으로 정정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
(2001. 5.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설계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 부문 및 전기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기준 별표의 단열재의 등급별 두께기준과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 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 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②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절약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사용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다.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부문
 - 가.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 나.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 다.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을 포함한다.

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을 포함한다.

마. "공동주택의 측벽"이라 함은 세대간 내벽 및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미터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한다.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덕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에 접할지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 본다.

(1) 공동주택 거실의 창 및 문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당해 비난방 공간의 내표면 면적(천장, 바닥, 벽, 창 및 문 부위 면적의 합)에 대한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의 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비난방 공간에 접한 창 및 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원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자. "기밀성 창호"라 함은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통기량이 10 $\text{m}^3/\text{h} \cdot \text{m}^2$ 미만이 창호를 말한다.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용은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

면적(창호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 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 $^2 \cdot \text{h} \cdot \text{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1013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 $\text{m}^2\text{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파.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장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하. 규칙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4. 기계설비부문

가. "위험율"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 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측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써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

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를 말한다.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 냉동기중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아. "심아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아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아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자.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이라 함은 기계적 설비를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차.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카.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기설비부문

가. "저손실형변압기"라 함은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전력용 변압기 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13(전력용 몰드변압기)에서 정하는 손실이 적은 변압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각,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

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산업자
원부 고사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
한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
는 제품을 말한다.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
착한 등기구로서 산업자원부 고사 고효
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
한 제품을 말한다.

바. "수용률"이라 함은 무하설비 용량 합계
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
한다.

사. "직접감압방식"이라 함은 수전된 특별
고압 또는 고압전력을 건축물의 조명,
동력 등의 해당 부하설비에 적합한 전
압으로 직접 변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기에서
일정 기간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
은 수용기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
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
다.

자.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
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
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차. "고효율유도전동기"라 함은 전동기로
서 산업자원부 고사 고효율에너지기자
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
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말한다.

카.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
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
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
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
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
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
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
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
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
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
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
위에 면한 비난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
21조 (별표 4)에 준하여 단열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
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사
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
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
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
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
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
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
는 규칙 제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
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
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KS F 2299 건축물 부재
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능능 시험방법
(가열상자에 의한 방법) 또는 KS F
2277 주택용 단열재의 단열능능 시험
방법에 의한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
율(또는 열관류저항)이 제시되는 경우
에는 그 값을 근거로 규칙 제21조 (별
표4)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규칙 제21조 (별표4) 건축물부위의 열
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
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
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
온도는 20+5℃로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
는 경사지붕은 규칙 제2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 및 문의 열
관류율 값은 규칙 제21조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여야 하
며, 이 열관류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 기준 (별
표3)에서 제시되는 값을 적용할 수 있
다.

사.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
측 표면 열전달저항과 건물 구조체 내부
의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4) 및
(별표5)를 적용한다.

아.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
는 소수점 2자리로 맞출을 하며 반올림
에 대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0021에 따른다.

자. 주상복합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시행
령 제32조제1항단서에서 정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
용되는 공간의 허부가 주택 외의 용도
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
4)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여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
류율을 적용한다.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
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
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
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
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
(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
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
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
(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
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

의 심아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침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 평면계획

가. 거실의 송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3. 단열계획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면적을 줄이거나 외피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여 평균 열관류율을 감소시킨다.

나. 외벽 부위를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4. 기밀계획

가. 거실부위의 창호는 기밀성 창호를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5.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관립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영장은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창에는 직달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

양장치(커튼, 블라인드, 선스크린 등)를 설치한다.

6. 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관람잡화시설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제3장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제6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6)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6)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 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열원 및 반송설비

가. 공동주택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 등)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7)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열원설비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나.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보일러로 가스보일러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산업·건물용 혹은 가정용가스보일러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라. 냉동기로 원심식냉동기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원심식냉동기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나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를 설치한다.

사.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여 급탕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도록 한다.

3. 공조설비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반송설비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다. 공조용 송풍기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 제어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라. 공동주택의 경우,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생설비등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의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장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제8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압기는 저손실형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설비용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형광램프용 반사갓이나 형광램프 전면커버 등을 부착한 간접적인 조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등은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후 자동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선정한다.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배크를 구성한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 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 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 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마. 역률개선통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바. 임대가 주옥적인 건축물은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력설비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명설비

가. 백열전구보다 전구식 형광등기구를 사용하고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사용한다.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 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어설비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5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제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0점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등급에 의한 배점의 경우에는 최저점을 적용한다.

제6장 보 칙

제1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등) ①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중 용도가 중복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동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숙박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7호), 목욕장·수영장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8호), 병원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9호), 판매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57호),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58호), 관람집회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59호), 학교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60호)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43호 및 제1999-277호)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다.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가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폼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 비드폼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폼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¹⁾

(단위 :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빈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면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남부지역〉²⁾

(단위 :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빈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면		65	7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빈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면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 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m²·K(괄호안은 : kcal/m²·h·°C)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6	12	6	12	6	12			
창	복층유리 ²⁾	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2.58)	3.30 (2.84)	3.00 (2.58)		
	복층유리 (low-E)	3.70 (3.18)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8)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층+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	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방풍구조문	3.80(3.27)									
문 ³⁾	일반문	단열 두께 20mm 미만	2.70 (2.32)		2.60 (2.24)		2.40 (2.06)		2.40 (2.06)		
		단열 두께 20mm 이상	1.80 (1.55)		1.70 (1.46)		1.60 (1.38)		1.60 (1.38)		
	유리문	단창	유리비율 50%미만	4.20 (3.60)		4.00 (3.44)		3.70 (3.18)		3.70 (3.18)	
			유리비율 50%이상	5.50 (4.73)		5.20 (4.47)		4.70 (4.04)		4.70 (4.04)	
		복창	유리비율 50%미만	3.20 (2.75)	3.10 (2.67)	3.00 (2.58)	2.90 (2.49)	2.70 (3.32)	2.60 (2.24)	2.70 (2.32)	2.60 (2.24)
			유리비율 50% 이상	3.80 (3.27)	3.50 (3.01)	3.30 (2.84)	3.10 (2.67)	3.00 (2.58)	2.80 (2.41)	3.00 (2.58)	2.80 (2.41)
			방풍구조문	3.80(3.27)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체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 m ² ·K/W) (괄호안은 m ² ·h·°C/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 m ² ·K/W) (괄호안은 m ² ·h·°C/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건물 부위			
거실의 외벽 (축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11(0.13)	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0.17)	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0.10)	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별표 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 m ² ·K/W) (괄호안은 m ² ·h·°C/kcal)
(1) 공중생산된 가발제품	2cm 이하	0.086×da(cm) (0.10×da(cm))
	2cm 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cm 이하	0.086×da(cm) (0.10×da(cm))
	1cm 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별표 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도시명	구분	냉		난	
		건구온도(°C)	습구온도(°C)	건구온도(°C)	상대습도(%)
서울		31.2	25.5	-11.3	63
인천		30.1	25.0	-10.4	58
수원		31.2	25.5	-12.4	77
춘천		31.6	25.2	-14.7	70
강릉		31.6	25.1	-7.9	42
대전		32.3	25.5	-10.3	71
청주		32.6	25.8	-12.1	76
전주		32.4	25.8	-8.7	72
서산		31.1	25.8	-9.6	78
광주		31.8	26.0	-6.6	70
대구		33.3	25.8	-7.6	61
부산		30.7	26.2	-5.3	46
진주		31.6	26.3	-8.4	76
울산		32.2	26.8	-7.0	70
포항		32.5	26.0	-8.4	41
목포		31.1	26.3	-4.7	75
제주		30.9	26.3	0.1	70

(별표 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지역	구분	냉		난	
		건구온도(°C)	상대습도(%)	건구온도(°C)	상대습도(%)
공동주택	학교(교실)	20~22	26~28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27~30	50~70
	공공주택	20~22	26~28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26~28	50~60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에 너 지 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설계자						
건축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명		면허번호		
설비설계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기계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성명		전화번호		
전기		사무소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성명		전화번호		
나. 건축부문						
건축면적		(㎡)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단열구조	부위별	열관류율 (W/㎡K, (kcal/㎡h℃))	단열재 두께 (mm)			
	외벽	()				
	축벽 (공동주택)	()				
	지붕	()				
바닥	최하층	()				
	층간바닥 (공동주택)	()				
창문	종류	열관류율 (W/㎡K, (kcal/㎡h℃))	창의 구성	창틀 종류		
	I	()				
	II	()				
	III	()				
창문 종류		남(남동)	북(북서)	동(북동)	서(남서)	방위는 가장 근접한 항목 기준으로 작성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보일러	종류	난방용		급탕용	
		용량 (kW, kcal/h)	효율 (%)	용량 (kW, kcal/h)	효율 (%)
냉동기	종류	용량		성적계수	
				usRT	
펌프	급수용	용량합계		순환수용	
		효율	용량합계	효율	효율
송풍기	종류	용량		효율	
라.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	수전방식	수전전압		수전방식	위 치
	변압기 종류	형		회선	층
동력설비	큰렌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제어방식	인버터 제어		전동기부하명	
승강설비	전동기형식	제어방식		효율	
	주거실 설계조도	lx		주거실 조명전력	
조명설비	주요명광원	속 내		속 외	
	조명기기	형식		고조도반사각	
전력감시 제어설비	전력감시 제어방식	유, 무		자동조도절멸장치	
	전력감시 제어방식	유, 무		유, 무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년)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 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 택	미채택		확 인	보 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비단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③ 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④ 외기에 의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 및 실내 온도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비에 따랐다.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③ 기가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②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④ 가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⑤ 조명기기 중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각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⑥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였다.						
⑦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 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⑧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멸회로를 구성하였다.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항 목		기본배점(a)										배점(b)					
		사면	평면	속벽	옥외	관강	벽면	화구	주위	주위	주위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_e (W/m^2 \cdot K)^{2.2}$ (창 및 문틀 포함)	19	14	14	14	18	18	27				중부	1.14미만	1.14~1.34미만	1.34~1.54미만	1.54~1.75미만	1.75이상
												남부	1.27미만	1.27~1.50미만	1.50~1.72미만	1.72~1.95미만	1.95이상
												제주	1.60미만	1.60~1.88미만	1.88~2.17미만	2.17~2.46미만	2.46이상
부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_r (W/m^2 \cdot K)^{2.2}$ (천장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6	6	6	5	7	7	7	6	8		중부	0.92미만	0.92~1.08미만	1.08~1.25미만	1.25~1.41미만	1.41이상
												남부	0.92미만	0.92~1.08미만	1.08~1.25미만	1.25~1.41미만	1.41이상
												제주	1.16미만	1.16~1.36미만	1.36~1.57미만	1.57~1.78미만	1.78이상
부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_f (W/m^2 \cdot K)^{2.2}$	5	4	4	4	4	5	7	5	5		중부	0.26미만	0.26~0.31미만	0.31~0.36미만	0.36~0.41미만	0.41이상
												남부	0.30미만	0.30~0.36미만	0.36~0.41미만	0.41~0.47미만	0.47이상
												제주	0.34미만	0.34~0.40미만	0.40~0.46미만	0.46~0.52미만	0.52이상
부	4. 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비율, 옥상부위 및 바닥부위의 외단열은 해당되지 않음)	6	4	6	5	6	6	6	6	6		45%이상	40%이상~45%미만	35%이상~40%미만	30%이상~35%미만	30%미만~0%	
		6	4	6	5	6	6	6	6	6		2미만	20이상~4미만	4이상~6미만	60이상~80미만	80이상~100미만	
		1	1	1	1	1	1	1	1	1		수영장: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개폐되는 창부분의 면적이 외주부위 바닥면적의 1/100이상 적용 여부					
안	8. 외기에 의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	-	-	-	-	-	-	1	1		전체 창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	-	-	-	-	-	-	-	1	1	적용 여부					
		-	-	-	-	-	-	-	-	1	1	적용 여부					
안	9.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	-	-	-	-	-	1	1	적용 여부					
		-	-	-	-	-	-	-	-	1	1	1.20이상	1.15이상~1.20미만	1.10이상~1.15미만	1.05이상~1.10미만	1.05미만	
안	10. 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 ²⁾ (단열 등으로서 대향동이 없는 경우는 0.8점 배점)	-	-	-	-	-	-	-	-	1	1	적용 여부					
		-	-	-	-	-	-	-	-	1	1	적용 여부					